

통합치료연구

제7권 제1호

한국통합치료학회

한국통합치료학회 임원진

회 장 : 선우현(명지대학교)

부 회 장 : 홍혜영(명지대학교)

총 무 : 노남숙(명지대학교)

편 집 위 원 회 : 최광현(한세대학교) 김은연(명지대학교) 박정환(제주대학교)
박춘성(상지영서대학교) 서근원(대구카톨릭대학교) 손보영(선문대학교)
이상진(평택대학교) 최예린(명지대학교)
Dr. Felicity Baker(The University of Melbourne)

국제교류위원회 : 권수진(Maryville University) 심혜원(한국상담대학원대학교)

윤 리 위 원 회 : 이은경(명지대학교) 송민애(연세대학교)

홍 보 위 원 회 : 유경훈(송실대학교) 정은정(명지대학교) 최정현(서울문화예술대학교)

학 술 위 원 회 : 문소영(명지대학교) 강순미(백석예술대학교)

학제 간 연구위원회 : 박은선(명지대학교) 양심영(송의여자대학교) 조민지(평택대학교)

간 사 : 양진옥 공정윤

감 사 : 김수지(이화여자대학교) 최명선(명지대학교)

〈차 례〉

- 학업 스트레스, 학업적 자기효능감, 우울간의 관계연구
- 외국어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
민경수5
- 중학생의 자아분화와 내외통제소재가 친구 간 갈등해결전략에 미치는 영향
추효승·홍혜영33
- 가족놀이치료를 적용한 아동양육시설의 아동과 양육자 간의 상호작용 사례연구
김효정·선우현63
- 즉흥연주 중심 창작음악극 활동이 교육복지특별지원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
에 미치는 영향 - 만 5세 유아를 중심으로 -
양예슬·문소영 103

<별첨 1> 통합치료연구 연구 윤리 관련 규정 / 121

<별첨 2> 투고규정 / 124

<별첨 3> 논문 작성 요령 / 125

<별첨 4> 한국통합치료학회 회칙 / 132

학업 스트레스, 학업적 자기효능감, 우울간의 관계연구 - 외국인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

민경수*
국민대학교

본 연구는 외국어고 학생의 상담·심리치료 장면에서 우울에 대한 개입 시 치료와 예방을 위한 기초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여 학업스트레스에 대한 적절한 대처프로그램 개발을 돕는데 있다. 이를 위해서 경기도 B지역 공립 외국어고등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수거된 589명의 질문지를 사용하였고 연구 대상을 여학생, 남학생, 학년별 집단으로 나누었으며 T검증, 일원변량 분산분석, 상관분석, 다중회귀 분석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성별에 대한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고 시험에 대한 스트레스가 우울과 가장 높은 상관을 보여주었다. 학업적 자기효능감에서는 3학년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우울척도에서는 1학년이 가장 높은 점수를 2학년이 가장 낮은 점수를 보여주었다. 또한 학업스트레스 중 성적, 공부, 진로 요인이 높을수록 우울척도가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학업스트레스는 높고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낮아질수록 우울척도가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 결과는 외국어고 학생들의 심리적 측면에 대한 이해를 통해 이들에게 적합한 치료적 접근을 연구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고, 특목고 학생들이 겪는 심리적 상황에 대해 밝힘으로써 특목고에 진학 하려는 학생들의 진로선택에 있어 하나의 기준점을 제공한데서 또 하나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핵심어 : 학업 스트레스, 학업적 자기효능감, 외국어 고등학교

* 교신저자: 민경수(buti55@nate.com)

■ 게재 신청일 : 2015년 5월 5일 ■ 최종 수정일 : 2015년 8월 24일 ■ 게재 확정일 : 2015년 8월 26일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청소년들의 우울증이 사회적으로 이슈화 되면서 각 학교마다 정서행동특성검사를 통해서 정신건강 실태 조사에 나서고 있다. ‘2012년 전국 특목고 학생 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에 따르면 특수목적고등학교(이하 ‘특목고’) 학생 6만2,966명 가운데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관심군 학생의 비율은 19.6%(1만 2355명)로, 전국 고등학생의 관심군 비율인 13.8%보다 높았다. 특히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주의군 학생은 4.8%(3052명)을 차지했다(새전북신문, 2013, 10, 13).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3)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청소년들의 74.1%가 학업 스트레스, 38.3%가 가족스트레스, 14.2%가 친구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응답하여 청소년들은 학업에 가장 높은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약 19%의 청소년들이 우울의 범주에 속하였다고 하였다.

우리사회에서 사회경제적 지위 획득으로서 학력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김현정, 2011). 입시위주의 교육 현실과 성취에 대한 압박으로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학업스트레스가 심하고 이러한 학업 중압감은 정서적 불안감을 유발하며(임경희, 2015), 정신건강과도 상관관계가 높다고 볼 수 있다(김유선, 2013).

정은주(2000)는 스트레스 수준과 학업성적 및 정신건강 간의 관계를 밝혔는데 계열, 성별에 상관없이 학업 및 학교생활에 대한 스트레스 수준이 다른 스트레스 수준과 비교하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원식(1985)의 연구에 의하면, 우리나라 중·고등학생의 주요 고민거리로는 진로와 학교성적 관련 문제가, 문화방송(1991)의 연구에서는 공부(55.2%)와 진학문제(41.1%)가 가장 큰 고민거리로 나타났다.

청소년기에는 성취해야할 과제도 많으며, 발달단계의 특성상 심신의 장애가 일어나기 쉬운 시기이다. 보건복지부(2001)에서 조사한 통계자료에 의하면 2000년 1년간 15세에서 19세 청소년 762명을 대상으로 우울 인식도를 조사한 결과 우울을 항상 느끼는 청소년이 7.91%, 가끔 느끼는 청소년이 55.18%, 거의 안 느끼는 청소년이 27.25%, 전혀 느끼지 않는 청소년이 9.66%로 20세에서 29세 성인이 항상 느끼는 우울보다 약 2배 정도의 심각한 우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심도를 중증, 경증, 정상으로 나누어 조사해 본 결과 각각 전체의 1.78%, 41.28%, 56.94%로 상당부분 고등학생 정신건강에 장애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이현주, 1992). 이와 같이 학업 스트레스로 인해 청소년들의 정신 건강이 위협수위에 있다.

이와 같이 우울증은 청소년기에 상당히 보편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정서로 학업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은 학업수행 문제와 사회적 부적응과 관련이 있으며(김미옥, 2009), 우울, 불안 등과 같은 정서적 문제를 일으키고(황정규, 1990), 그 강도와 심각성에 따라 자살생각, 자살시도와 같은 문제가 유발될 수 있다(Friedmanetal, 1984).

특목고와 같은 학업우수 집단의 일원이 된다는 것은 이전까지 학업적으로 또래 중 상위그룹에 속해 있던 학생이 자신과 성적이 비슷하거나 우수한 학생들 속에서 집단 내 학업적 위치의 하락을 경험함을 의미한다(임형신, 2008). 과도한 성취 경쟁과 처음 경험하는 성적 하락, 그리고 내신 성적이 떨어지면 대학입시에 불리하다는 두려움을 갖게 됨으로써(김영빈, 2011) 스트레스를 가중시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특목고나 학업우수고 학생일수록 성적 하락에 대한 부담을 더 많이 가질 수 있으며 이것은 학업적 스트레스를 유발시키는 요인으로, 우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예상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로 외국어고 학생들의 학업에 대한 부담과 성취에 대한 압박 그리고 주위의 높은 기대가 학업스트레스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외국어고 학생의 우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서 본 연구에서는 학업스트레스와의 관계를 살펴보려 한다.

또한 특목고 학생들의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 대처요인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학업스트레스 변인과 더불어 개인의 의지와 성취 행동 사이를 매개하는 개인 변인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업적 상황에서 학습자가 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조직하고 실행해 나가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판단을 하는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다루고자 한다.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학습자가 자신의 학업적 수행 능력에 대해 보이는 기대나 신념, 학습자의 학습 능력과 수행을 매개하고, 동시에 학습자의 지식과 수행을 매개하는 중요한 변수로 학습자가 새로운 상황에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학습하고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원동력이 된다(Bandura, 1986). 이러한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학업스트레스와 부적응 사이를 매개하고 불안이나 우울과 같은 정서에 영향을 미치고(Bandura, 1993)있으며, 우울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두금주, 2003)고 하였다.

특히 일반고 학생들에 비해 특목고 학생들은 학업으로 인한 심리적 압박감을 더 많이 느끼고, 낮은 성취도로 인한 무력감과 자기비하, 상대적 열등감 등을 더 많이 지각하고 있기 때문에(고순희, 1995),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하여 학업적 자기

효능감을 저하시킬 문제성이 있다.

이상과 같이 선행연구를 살펴 본 결과 청소년기 학생들은 성적 등 학업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가장 높게 지각하고 있으며 이것은 학습자의 학습능력과 수행을 매개하는 학업적 자기효능감과도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변인들은 우울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학업스트레스와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관계에 대한 그리고 그러한 변인들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많지만 중·고등학생들보다는 초등학생들의 심리적 요인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학업스트레스를 더 많이 경험하고 있다고 예상되는 특목고나 외국어고등학교(이하 ‘외국어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외국어고 학생들의 학업스트레스와 학업적 자기효능이 우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이러한 관계가 외국어고 학생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일반고 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학업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하고 있다고 예상되는 외국어고 학생을 대상으로 학업스트레스 특성을 파악하고 외국어고 학생의 학업스트레스와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우울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규명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는 학교 현장에서 외국어고 학생의 학업스트레스에 대한 적절한 대처방법을 이해하고 지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고, 또한 외국어고 학생들의 학업스트레스와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밝힘으로써 학교나 상담 장면에서의 치료와 예방을 위한 기초자료와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이라 기대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학업스트레스

가. 학업 스트레스의 개념

학교는 청소년기의 가장 중심적인 사회 환경이며, 청소년은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게 된다(이지현, 2008). 이로 인해 학생들은 공부에 대한 의무감을 많이 느끼게

되고 부모의 요구나 사회적 기대에 부응하려고 좀 더 많은 노력을 하게 된다. 우리나라에서의 학교생활은 입시 위주의 교육으로 인해 시험 점수에 얽매이게 되고, 성적 수준에 관계없이 크고 작은 실패를 경험하고 좌절하게 된다. 이러한 좌절은 학업과 관련된 스트레스를 유발하게 된다(이광희, 2005).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하며 수행해야 하는 여러 가지의 다양한 요구에 대처하고 적응해 가는 과정에서 느끼게 되는 어려움과 관련된 정신적, 심리적 상태를 학업스트레스라고 말할 수 있다(오종진, 2011).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스트레스의 원인과 그 정도는 성, 연령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하지만, 공부나 성적 등과 같은 학업문제가 주된 스트레스 원인으로 나타났다(박은영, 1995).

원호택과 이민규(1987)는 대인관계나 가정문제보다도 공부문제가 더 큰 스트레스 요인이 되고 있다고 한다. 청소년의 학업 스트레스 실태와 관련된 연구들을 살펴보면, 박은영(1995)은 성적과 관련해서 받은 스트레스가 63.6%로 가장 높았다고 하였다. 한국 청소년상담원에 따르면 시험 불안, 학업 스트레스 때문에 상담원을 직접 내방해 개인 상담을 받는 청소년 상담 건수가 2008년부터 크게 늘고 있다고 한다. 연도별 내방 상담 건수를 보면 2006년 4건, 2007년 2건, 2008년 29건, 2009년 47건, 2010년 59건이라고 보고하였다(조선일보, 2011, 11, 16).

청소년의 학업과 관련된 스트레스 연구는 상당히 많이 이루어진 편으로 학업스트레스를 유발시키는 인지적·정의적·학업방법·환경적 원인은 학생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며, 특히 고등학생의 성적에 따른 학업스트레스 요인과 스트레스 증상 간 관계에서 성적이 상인 학생이 성적이 중·하인 학생보다 학업스트레스에 따른 스트레스 증상이 더 많은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최승혜, 2008).

외국어고·과학고 등 특수목적고와 자율형 사립고 등 학업우수고 학생들일수록 성적 하락에 대한 스트레스, 심적 부담감이 크다. 우수집단에 속한 학생들은 과도한 성취 경쟁과 처음 경험하는 성적 하락, 그리고 내신성적이 떨어지면 대학입시에 불리하다는 두려움을 동시에 갖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청소년학 연구 18호, 김영빈, 2011).

이러한 결과는 성적에만 치중된 우리나라의 교육 현실을 고려할 때, 성적의 주요 척도가 되는 시험에 대한 학생들의 부담감은 결코 작아질 수 없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광경미(2007)는 우리 사회의 학벌 중심 사고와 그것이 반영된 입시위주의 학교 현실이 학생들로 하여금 학업 스트레스를 받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서열화 된 교과 성적만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대학 입시 제도를 지양하고 특기와 적성을 반영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입시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업 스트레스를 줄이려

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러한 선행 연구의 결과들을 보면 외적으로 드러나는 뚜렷한 장애를 보이지 않는 학생이라 할지라도 고등학교 학생들은 이미 학업이나 학교와 관련된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고 여러 스트레스 요인 중에서 학업과 관련한 스트레스는 우리나라 청소년들 상당수가 겪고 있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외국어고 학생들이수록 성적 하락에 대한 스트레스가 더 클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나. 학업스트레스 요인

청소년기는 발달 특성상 급변하는 시기로 다양한 신체, 심리 정신적 변화와 갈등 및 혼란을 경험하고 이로 인해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한다(윤신예, 2012). 청소년들이 공통적으로 가장 많이 고민하는 문제가 공부와 성적이고, 그 다음이 진학과 진로 문제인데, ‘진학과 진로 문제’도 자신에게 맞는 적절한 진로 선택이 어렵다는 것보다는 자신이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을 만큼 성적이 좋지 않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진로문제는 공부나 성적 문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최경란, 2002).

고등학생들이 학교생활에서 받는 스트레스에 관해 조사한 연구에 의하면, 시험과 평가에 대한 불만, 긴장 등으로 심각한 좌절과 우울, 초조감을 경험하고 있으며, 대인관계나 가정문제보다도 공부문제가 더 큰 스트레스 요인이 되고 있다고 한다(원호택, 이민규, 1987). 임성옥(2004)의 연구에서도 학업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성적과 시험, 진로 문제가 학생들에게 가장 많은 스트레스라고 보았다.

이경희(1995)의 청소년의 스트레스 요인에 대한 연구에서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일상 생활에서 받는 스트레스 사건을 비교한 결과, 중학생은 학업성적문제, 이성친구와의 문제, 성격심리문제의 순서로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등학생은 학업성적문제, 이성친구와의 문제, 성격심리문제의 순서로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이경희, 1995).

선행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학생들이 받고 있는 스트레스의 원인은 공부나 성적과 같은 학업문제가 가장 주된 원인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외국어고 학생들이 성적으로 받는 학업 스트레스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학업 스트레스가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변화에 어떠한 작용을 하고 있는지, 그러한 작용들이 심리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2. 학업적 자기효능감

가.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개념

학업적 자기효능감(academic self-efficacy)은 Bandura(1986)의 사회학습이론(social learning theory)의 자기효능감(self-efficacy)의 개념 으로부터 발전하였다. 이러한 학업적 자기효능감(academic self-efficacy)은 학습자가 학업적 과제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행위를 조직하고 실행해 나가는 자신의 능력에 대해 내리는 판단을 의미하며(김아영, 2001), 학습자의 내적 동기가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내적 동기와 자기효능감이 자기조절 학습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김아영, 박인영, 2001). 따라서 사람이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는 실제로 그들이 성취할 수 있는 바에 의해서보다 사람들이 자신의 능력에 대해 가지고 있는 신념, 즉 자기효능감에 의해 더 잘 예측될 수 있다(박지현, 2006).

즉,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학습자가 자신의 학업적 수행 능력에 대해 보이는 기대나 신념, 학습자의 학습 능력과 수행을 매개하고, 동시에 학습자의 지식과 수행을 매개하는 중요한 변수로 학습자가 새로운 상황에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학습하고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원동력이 된다(김아영, 박인영, 2001).

Zimmerman(2000)은 자기효능감의 역할을 보다 구체적으로 세분화하여 학생의 행위 선택, 노력의 강도, 지속성, 정서적 반응의 네가지 측면에서 설명하였다. 행위선택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자기효능감이 높은 학생은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어렵고 도전적인 과제를 보다 쉽게 수행한다.

또한 노력의 정도에서도 자기효능감이 높은 학생은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수행의 속도가 빠르면 투입하는 에너지의 양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효능감은 또한 학생들이 과제를 더 지속할 수 있도록 동기화하는 역할을 하며, 학생의 스트레스, 불안감, 우울증 등을 감소시켜 맑은 학업 과제를 잘 마칠 수 있도록 해준다.

김아영과 박인영(2001)은 내적 동기와 자기효능감은 자기조절 학습에 영향을 미치며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불안을 느끼는 정도가 낮고, 보다 효과적인 학습전략을 사용하며, 뛰어난 자기조절 능력을 보인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자기효능감은 주어진 일을 얼마나 잘 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판단에 따라 자신의 능력에 대한 확신 정도가 달라지고(자신감), 주어진 일을 수행하는데 자신의 인지적 전략을 사용하고 초인지전략을 통제하면서 행위를 진행시켜나가는 역할을 한다(자기조절효능감)고 하였다(김아영 2001).

특히 특목고 학생들은 일반고 학생들에 비해 자신의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가 높은 편이며, 지적 능력이 높은 학생들이 학업으로 인한 심리적 압박감을 더 많이 느끼고, 낮은 성취도로 인한 무력감과 자기비하, 상대적 열등감 등을 더 많이 지각하기 때문에 (고순희, 1995),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하여 학업적 효능감을 저하시킬 문제성이 있다.

위의 선행연구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은 학생은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좌절하지 않고 도전하는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학업성적 우수자로 구성된 외국어고 학생들은 내신성적의 하락으로 인한 자존감 및 자신감의 저하를 예상할 수 있다. 외국어고의 수업 환경이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한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연구를 통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나.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구성 요인

자신들의 연구를 통해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학습자의 학습 능력과 수행을 매개하고, 동시에 학습자의 지식과 수행을 매개하는 중요한 변수로 학습자가 새로운 상황에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학습하고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원동력이 된다고 밝히고 있다. 학업적 자기효능감(Academic self-efficacy)의 이론적 구성 요인으로 자신감, 자기조절효능감, 과제난이도선호의 세 가지를 든다(김아영, 박인영, 2001).

(1) 자신감

자신감이란 자신의 가치와 능력에 대한 개인의 확신 또는 신념의 정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구성요인으로서의 자신감은 학습자가 자신의 학습 능력에 대해 보이는 확신 또는 신념의 정도라는 축소된 의미를 작용한다(Sherer, 1982).

Bandura(1986)는 자신감을 어떤 결과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행동을 조직하고 수행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에 대한 판단이라는 상황·특수적 개념으로 정의하였지만, 이를 전반적인 학업적 상황에 적용시켜 보면 자신의 전반적인 학문적 수행능력에 대한 학습자의 확신 또는 신념으로 정의할 수 있다.

자신감을 높게 지각하는 청소년 일수록 성적에 대한 만족수준을 높게 지각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성적에 대한 만족감이 높은 집단이 불만족 집단보다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더 높게 지각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최신아, 2010).

(2) 자기조절 효능감

자기조절 효능감이란 개인이 자기관찰, 자기판단, 자기반응과 같은 자기 조절적 기제를 잘 수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효능기대라고 정의할 수 있다(Bandura, 1986).

자기관찰(self-observation)이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의도적인 주의집중으로,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목표를 설정하고, 과제의 진전 정도를 평가하는 자기조절 기능을 하며, 행동의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다.

자기판단(self-judgement)이란 자신의 목표와 현재의 수행을 비교하는 것으로, 판단에 적용되는 기준, 목표의 특성, 목표달성의 중요성, 수행에 대한 귀인에 따라 수행의 긍정성 또는 부정성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다.

자기반응(self-reaction)이란 목표 과정의 만족 여부에 따라 행동을 조정하고 보다 긍정적인 방향으로의 변화를 위해 스스로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Bandura, 1986; Zimmerman, 1989).

인간은 자신의 행동을 관찰하고, 자신의 목표하는 기준에 비추어 자신의 수행을 판단하여 긍정적이라면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고, 부정적이라면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부가적인 행동을 하는 반응을 보이게 된다(김아영, 박인영 2001).

자기반응은 목표 과정의 만족 여부에 따라 행동을 조정하고 보다 긍정적인 방향으로의 변화를 위해 스스로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김미경, 2008).

(3) 과제난이도선호

과제난이도선호는 개인이 어떤 수행 상황에 임해서 목표를 선택하고 설정할 때 어떤 수준의 난이도를 선호하는가를 측정하는 것으로(노원재, 2007), 자신이 통제하고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도전적인 과제를 선택하는 과정을 통해 표출된다(김아영, 박인영, 2001).

자기효능감이 높은 개인은 도전적이고 구체적인 목표를 선택한다(Bandura, 1986). 반면에 자기효능감이 낮은 개인은 자신의 기술을 뛰어넘는 위협적인 상황을 무서워하고 피하려 하며, 그들이 조절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상황만을 선택하고 행동한다고 하였다(Bandura, 1977).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은 학습자는 도전적인 과제를 선택하고, 주어진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며, 어려운 일이 닥쳐도 끈기 있게 과제를 지속한다. 또한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불안을 느끼는 정도가 낮고, 보다 효과적인 학습전략을 사용하며, 뛰어난 자기조절 능력을 보인다(김아영, 박인영, 2001).

자기 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자신이 그에 대해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는 신념이 강하고(임진형, 2000) 낮은 자기효능감을 가진 사람은 어떤 과제를 실제보다 더 어렵다고 믿거나 문제 해결에 있어 폭넓은 시각을 갖지 못하고, 의기소침해지거나 스트레스를 강하게 받는다(윤운성, 1998).

이런 측면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학업스트레스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3. 청소년기 우울

DSM-IV에 따르면, 우울증은 정서적 증상으로 슬픔, 공허감, 무가치감, 죄책감을 보이고, 인지적 증상으로 낮은 자기존중감과 기억력, 사고력, 판단력의 저하, 주위집중의 곤란 및 자살에 대한 지속적인 사고를 보인다고 하였다. 행동적 증상으로는 말과 행동이 느려지고 자발성과 활동성이 감소되는 정신운동 지체를 보이며 그밖에도 무망감, 흥미와 즐거움 감소, 성욕 및 식욕 감퇴, 에너지 저하, 피로감, 체중의 급격한 변화, 수면 곤란 등을 보인다고 하였다(DSM-IV: APA, 1994).

청소년기는 발달과정 중의 한 기간으로 격변과 시련의 시기일 뿐만 아니라 정서적 동요의 시기로 생리적, 정서적, 인지적, 도덕적 변화가 급격히 일어나는 시기이다. 또한 청소년들은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으로 과도기 상태에 놓여있기 때문에 내재되어 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표출되기도 한다(최윤희, 2007).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많은 고통과 스트레스가 되고 있는 학업성적 및 입시중심의 교육 환경 등을 고려한다면 많은 수의 청소년들이 우울을 겪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청소년의 우울은 학업 수행 문제와 사회적 부적응과 관련이 있으며(Emslie & Mayes, 1999), 우울 증상이 장기적으로 지속되면 대인관계의 위축, 권태감, 무력감, 식욕부진, 불면증 등을 나타내고 나아가 사회적, 인지적 및 정서적 기능의 손상을 보이는 우울장애로 발전되기도 한다(Garber, Kriss, Koch & Lindholm, 1998).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6)이 조사 보고한 청소년의 우울증 경험 실태 자료에 따르면, 2005년 12-18세에 해당되는 우리나라 청소년 중 일 년 간 우울증을 경험한 청소년은 전체 응답자의 12%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은 객관적 상황과는 관계없이 일어나는 정서의 병리현상으로 어느 곳에서나 존재하며 누구에게나 있는 보편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우울증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며, 심리적인 문제지만 매우 복잡하고 파악하기 어려운 감정이기도 하다. 또한 주요 우울증은 청소년들에게서 나타나는 보편적인 정신장애의 하나로서, 그 결과

는 정신건강 장애, 물질남용, 학업적 및 사회적 탈선, 무분별한 임신, 자살 충동을 가져 오게 된다(Martin & Cohen, 2000)는 점에서 소홀히 다룰 수 없는 문제이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청소년기의 우울은 학업과 관련되어 있으며 그중에서도 성적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관련성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외국어고 학생들의 효과적인 학업수행을 위해서는 이들의 우울수준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4. 학업스트레스와 우울과의 관계

DSM-IV에서 주요 우울증 진단 기준에 아동과 청소년들은 우울한 기분대신 짜증을 보일 수 있다고 명시함으로써 성인 우울증과의 차이를 반영하였다. 학업 스트레스는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하며 수행해야 하는 여러 가지의 다양한 요구에 대처하고 적응해 가는 과정에서 느끼게 되는 어려움과 관련된 정신적, 심리적 상태라고 말할 수 있다(오종진, 2011).

우울은 복잡하고 경쟁위주의 물질만능적인 현대사회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정서중의 하나이다. 두금주(2003)는 스트레스가 우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고,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 있어서 심영배(2003)는 스트레스 수준이 높을수록 우울 수준이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다고 하였다.

특히 교육열이 매우 높은 국가로 평가받고 있는 한국은 청소년들이 받는 학업스트레스 수준이 상당히 큰 편이어서 자살의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다. 때문에 매년 대학능력 시험이 끝나고 나면 고3 학생들이 성적을 비관하여 자살했다는 사건이 보도되는 것을 볼수있다(세계일보, 2008. 11. 22).

스트레스는 청소년들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데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의 1/3이 우울증, 두통, 만성소화불량, 불면증의 치료를 요하는 수준의 심리적, 신체적 증상을 경험하고 있고, 스트레스가 우울, 허무감 및 자살생각과 모두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였다(임인순, 2004).

송정옥(2009)은 학업성적이 높을수록 스트레스 관리행동을 잘하고 있다고 하였으며 우울증 지수가 낮을수록 스트레스 관리 행동은 잘하고 있었는데 이는 정신건강이 양호한 사람들이 스트레스 관리행동도 잘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스트레스 증상과 우울정도가 높을수록 스트레스 대처를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위의 연구 결과들을 살펴보면 스트레스 수준과 우울 수준은 상관관계를 보인다고 볼 수 있으며 스트레스의 주요한 요인이 학업과 관련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위의 연구들을

바탕으로 외국어고 학생들의 학업스트레스와 우울과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한다.

5. 학업스트레스와 학업적 자기효능감과의 관계

스트레스에 적절히 반응하고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은 높은 자기효능감이다(Moeini et al., 2008). 정규태(2009)는 중·고등학생 801명을 대상으로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학업스트레스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학업스트레스를 낮게 지각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실제로 학업성적과 높은 상관을 보였다(김의철, 박영신, 1999). 또한 임진형(2000)의 연구에서도 자기효능감은 스트레스 사건의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시켜 주는 중요한 변수라고 하였다.

두금주(2003)는 자기효능감이 스트레스의 부정적 효과를 감소시키며, 삶에 대한 만족도를 증가시킨다는 연구결과를 보고하였다. 강한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가진 사람은 많은 방법으로 성취를 높이고 정신 건강을 향상시키며, 어려운 과제를 피하여야 할 위협이 아니라 정복하여야 할 도전으로 인식하며, 내발적인 흥미를 기울이면서 활동에 전력으로 투신하지만(김성옥, 2003), 이와 반대로 자기효능감이 낮은 사람은 위협으로 생각되는 어려운 과제를 피하고, 야심이 낮으며, 추구하기로 선택한 목표에 전념하지 않으며, 어려운 과제에 부딪히면 전념하기 보다는 개인의 약점, 마주친 장애, 열악한 결과에서 헤어나지 못한다고 하였다(김금식, 2005).

송정옥(2009)의 연구에서도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스트레스 증상도 덜 받고 스트레스 대처도 훨씬 잘하며 행복과 생활만족도와 같은 긍정적인 심리변인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스트레스 대처도 잘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강한 효능감을 가진 사람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성취를 높이며 정신건강을 향상시키고 도전적인 목표를 세우고 실패에 직면해서도 노력을 더 강화·유지하고, 실패한 경험을 겪고 나서도 효능의식을 빨리 회복한다. 또한 위협이 되는 상황에서도 확신을 가지고 접근하며, 스트레스를 줄이고 우울증에 걸릴 소지를 낮춘다고 하였다(김성옥, 2003).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학업스트레스를 유발시키는 정의적 요인이며(김계현외, 2000), 학업스트레스는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추론해 볼 수 있으나 학업스트레스의 관련 변인으로 우울, 자아존중감, 학습태도, 학업적 자기개념 등에 대한 연구(양경남, 1994)가 주로 이루어진 반면 학업스트레스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다룬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며 외국어고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찾아볼 수 없다.

이상과 같이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학업스트레스를 낮게 지각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따라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역할이 학업상황에서 중요하게 부각되는 이유가 명확해지며, 이런 의미에서 부정적인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보이는 외국어고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학업적 효능감을 갖도록 함으로써 학업스트레스의 해소와 함께 성공적인 학습경험을 통한 학업성취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6.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우울과의 관계

학업적 자기효능감(academic self-efficacy)은 학습자가 학업적 과제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행위를 조직하고 실행해 나가는 자신의 능력에 대해 내리는 판단을 의미하며(김아영, 2001), 학습자의 내적 동기가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며 내적 동기와 자기효능감은 자기조절 학습에 영향을 미치지만(김아영, 박인영, 2001).우울은 성취되지 못한 목표, 낮은 사회적 효능감, 낙담이 되는 사고를 반추함으로 생기게 된다고 말한바 있다(Bandura, 1977).

신영희(1994)는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자기 수행 능력을 믿고, 스트레스 상황이 올 때 문제 중심의 해결책을 쓰며, 그렇게 함으로써 불안이나 우울 수준이 낮았음을 설명했다. 사법고시 준비생을 대상으로 한 이은진(1998)의 연구에서도 일반적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인 자신감, 자기조절 효능감, 과제난이도 선호와 자기효능감 총점 모두가 우울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즉 낮은 자기효능감을 갖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 자신이 적절하게 대처행동을 하지 못한다는 무력감 때문에 문제나 상황을 더 어렵게 인식하여 우울해 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홍혜영, 1995).

이와 같이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청소년의 정신건강이나 적응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낮은 자기효능감을 갖는 사람은 자신이 실제로 할 수 있는 수준을 능가하는 목표수준을 설정하여 부정적인 정서를 유발하는데 이것은 낮은 자기효능감이 원인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낮은 자기효능감이 우울을 유발하는 요인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과열된 내신경쟁으로 인해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저하 현상이 예상되는 외국어고 학생들의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우울간의 관계가 어떻게 형성이 되고 있으며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경기지역 B외국어고등학교 전교생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포하였으며 전교생 700명중 597명의 자료가 수집되어 그 중 누락된 문항이 많거나 불성실한 응답을 보인 8명을 제외한 589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남학생이 229명(38.9%), 여학생이 360명(61.1%)이며 학년별로는 1학년은 205명(34.8%), 2학년은 210명(35.7%), 3학년이 174명(29.5%)을 차지하였다.

2. 연구도구

가. 학업스트레스 척도

학업스트레스 척도는 오미향과 천성문(1994)이 제작한 검사를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1부 학업 스트레스 요인을 측정하는 11개의 하위척도 75문항과, 2부 학업 스트레스 증상을 측정하는 3개의 하위척도 3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환경적 요인을 배제하고 성적, 시험, 수업, 공부, 진로의 5가지 하위요인으로 수정 사용한 38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Likert식 5점 척도로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업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오미향과 천성문(1994)의 연구에서 1부 학업 스트레스 요인 검사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Cronbach's alpha)는 하위요인 별로 .88에서 .91로 나왔으며, 본 연구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Cronbach's alpha)는 .90이다.

나. 학업적 자기효능감 척도

학업적 자기효능감 척도는 학습자가 새로운 상황에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학습하고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원동력이 되는, 자신의 수행능력에 대해 보이는 기대나 신념을 측정하는 척도이며, 본 연구에서는 김아영과 박인영(2001)의 학업적 자기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학습자가 학업적 과제를 수행해 나가는 자신의 능력에 대해 내리는 판단을 측정하기 위한 이 척도는 자신감, 자기조절효능감, 과제난이도선호의 3개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하위 요인별 문항 수는 자신감 8문항, 자기조절효능감 10문항, 과제난이도 선호 10문항의 총 2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Likert 6점 척도로 이루어져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를 1점, “상당히 그렇지 않다” 2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 3점, “그런 편이다” 4점, “상당히 그런 편이다” 5점, “매우 그렇다”를 6점으로 구성되며, 1~6점 사이에서 점수가 높을수록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정적문항 16문항과 부적문항(역채점 문항) 1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 척도 점수를 합산하여 학업적 자기효능감 점수로 사용한다.

김아영과 박인영(2001)의 연구에서 자신감 .77, 자기조절효능감 .88, 과제난이도선호가 .77로 나타났으며 학업적 자기효능감 신뢰도의 총합은 .80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학업적 자기효능감 검사의 문항 구성과 내적일관성 신뢰도(Cronbach's alpha)는 자신감 .78, 자기조절효능감 .81, 과제난이도선호 .88로 나타났으며 학업적 자기효능감 신뢰도의 총합은 .87이다.

다. Beck의 우울척도(BDI: Beck Depression Inventory)

본 연구에서는 Beck(1967)의 BDI를 사용하였다. BDI는 우울의 영역에 따라 정서적, 인지적, 동기적, 생리적 증상 영역들을 포함하는 21개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문항은 증상의 강도별 4개의 진술로 되어있다. 각 문항마다 점수는 0점에서 3점의 점수가 주어지며, 총점의 범위는 0점에서 63점까지이다. Beck(1978)은 BDI의 총 점수에 따라 우울정도를 분류하였는데, 0-9점까지는 우울하지 않은 상태, 10-15점까지는 경미한 우울 상태, 16-23점까지는 중증의 우울 상태, 24-63점까지는 심한 우울 상태라고 하였다.

한홍무 등(1986)의 정상집단을 중심으로 BDI에 대한 한국판 표준화 연구를 실시하였는데, 이때 반분 신뢰도는 정상집단에서 .89, 우울증 집단에서 .94였다. 그리고 개별 문항 점수와 전체 점수 사이의 상관은 우울증 집단과 정상 집단 모두에서 유의한 정적 상관($p < .001$)을 보였다. 또한 우울증 집단은 정상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고, 21개 문항 모두에 대해 우울증 집단과 정상 집단을 잘 변별해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신뢰도 계수는 .90이었다.

3. 연구절차

학업스트레스, 학업적 자기효능감, 한국판 Beck 우울 척도를 포함한 총 89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지를 작성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의 순서는 학업스트레스, 학업적 자기효능감, 우울 척도, 인구학적 변인에 관한 질문으로 이루어졌다.

본 연구를 위해 먼저 연구 대상자를 선정하고 각반 담임들께 연구에 대한 협조를 의뢰하여 아침 조회시간과 자율학습 시간을 통하여 설문을 실시하고 수거하였다. 조사는 2011년 10월 5일부터 10월 6일 2일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검사지 응답에 소요된 시간은 약 10~15분이었다.

4.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SPSS Version 17.0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자료분석을 하였다. 각 영역에 대한 신뢰도 검사를 실시하여 문항간의 신뢰도를 측정하여 예측가능성, 정확성 등을 살펴보고,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성별에 따른 우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고, 학년에 따른 우울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변량 분산분석을 사용하였다. 마지막으로 학업스트레스, 학업적 자기효능감, 우울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상관관계 및 다중회기 분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해석

1. 성별에 따른 학업스트레스, 학업적 자기효능감, 우울의 차이

성별에 따른 변수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한 결과 남학생과 여학생의 학업스트레스 점수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의수준 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적 자기효능감에서는 남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 점수가 3.25점으로 여학생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유의수준 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척도에서는 여학생의 우울척도 점수가 10.68점으로 남자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났지만 유의수준 0.05에

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성별에 따른 학업스트레스, 학업적 자기효능감, 우울의 차이

독립변수	성별	N	평균	표준편차	t	p
학업 스트레스	남자	229	2.69	0.49	-0.30	0.7654
	여자	360	2.71	0.48		
학업적 자기효능감	남자	229	3.25	0.48	2.39	0.0171*
	여자	360	3.15	0.48		
우울	남자	229	10.03	9.10	-0.88	0.3777
	여자	360	10.68	8.33		

* : $p < .05$, ** : $p < .01$

2. 학년에 따른 학업스트레스, 학업적 자기효능감, 우울의 차이

학년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변량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학업스트레스는 2학년의 학업스트레스가 가장 높으나 다른 학년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의수준 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적 자기효능감에서는 3학년의 학업적 자기효능감 점수가 3.27점으로 다른 학년에 비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유의수준 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척도에서는 1학년의 우울척도 점수가 11.55점으로 가장 높았고 2학년의 우울척도 점수는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유의수준 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학년에 따른 학업스트레스, 학업적 자기효능감, 우울의 차이

독립변수	학년	N	평균	표준편차	F	p
학업 스트레스	1학년	205	2.69	0.44	0.25	0.7794
	2학년	210	2.72	0.49		
	3학년	174	2.69	0.53		
학업적 자기효능감	1학년	205	3.15	0.45	3.51	0.0304*
	2학년	210	3.16	0.47		
	3학년	174	3.27	0.51		
우울	1학년	205	11.55	9.16	3.24	0.0398*
	2학년	210	9.40	7.85		
	3학년	174	10.34	8.79		

* : $p < .05$, ** : $p < .01$

3. 학업스트레스, 학업적 자기효능감, 우울간의 상관관계

학업스트레스의 하위요인들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들, 우울의 상관계수를 알아보기 위해 피어슨 상관계수를 살펴보았다.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학업스트레스 성적요인과 학업적 자기효능감 과제난이도선호(0.-0.254, $p<0.1$), 자기조절효능감(0.-0.190, $p<0.1$), 자신감(0.-0.393, $p<0.1$), 시험요인에서는 과제난이도선호(0.-0.200, $p<0.1$), 자기조절효능감(0.-0.150, $p<0.1$), 자신감(0.-0.473, $p<0.1$), 수업요인에서는 과제난이도선호(0.-0.251, $p<0.1$), 자기조절효능감(0.-0.300, $p<0.1$), 자신감(0.-0.443, $p<0.1$), 공부요인에서는 과제난이도선호(0.-0.330, $p<0.1$), 자기조절효능감(0.-0.324, $p<0.1$), 자신감(0.-0.501, $p<0.1$), 진로요인에서는 과제난이도선호(0.-0.206, $p<0.1$), 자기조절효능감(0.-0.307, $p<0.1$), 자신감(0.-0.469, $p<0.1$)에서 부적상관을 보였다.

학업스트레스와 우울간의 상관계수에서는 학업스트레스 요인인 성적(0.0.366, $p<0.1$), 시험(0.321, $p<0.1$), 수업(0.308, $p<0.1$), 공부(0.387, $p<0.1$), 진로(0.0.378, $p<0.1$)에서 정적상관을 보였다. 또한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우울척도간 상관을 살펴보면 과제난이도선호(0.-0.199, $p<0.1$), 자기조절효능감(0.-0.217, $p<0.1$), 자신감(0.-0.395, $p<0.1$)에서 부적상관을 보였다.

이와 같이 학업스트레스 하위요인과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별 상관계수 값이 유의미한 음(-)의 상관이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우울척도는 학업스트레스 하위요인별 상관계수 값이 유의미한 양(+)의 상관이 있는 것으로 알 수 있으며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상관계수 값과는 음(-)의 상관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상관계수 값이 높을 수록 상관관계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3〉 학업스트레스, 학업적 자기효능감, 우울간의 상관관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학	① 성적	1.000							
업	② 시험	0.623**	1.000						
스	③ 수업	0.464**	0.527**	1.000					
트	④ 공부	0.616**	0.626**	0.695**	1.000				
레	⑤ 진로	0.518**	0.483**	0.514**	0.641**	1.000			
스	⑥ 과제난이도선호	-0.254**	-0.200**	-0.251**	-0.330**	-0.206**	1.000		
자	⑦ 자기조절효능감	-0.190**	-0.150**	-0.300**	-0.324**	-0.307**	0.368**	1.000	
기	⑧ 자신감	-0.393**	-0.473**	-0.443**	-0.501**	-0.469**	0.243**	0.251**	1.000
효	⑨ 우울척도	0.366**	0.321**	0.308**	0.387**	0.378**	-0.199**	-0.217**	-0.395**
능									1.000
감									

* : $p < .05$, ** : $p < .01$

4. 학업스트레스,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학업스트레스 5개 하위요인과 학업적 자기효능감 3개 하위요인이 우울척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살펴 본 결과, 학업스트레스 하위요인 중 성적, 공부, 진로 요인이 우울척도에 유의미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학업스트레스 중 성적, 공부, 진로 요인이 높을수록 우울척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학업적 자기효능감 하위요인 중 자기조절효능감 요인과 자신감 요인이 우울척도에 유의미한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학업적 자기효능감 하위요인 중 자기조절효능감과 자신감이 높을수록 우울척도가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로 학업스트레스가 높고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낮아질수록 우울척도가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회귀모형의 R^2 가 0.2368로 23.68%의 설명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형의 적합도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학업스트레스와 학업적 자기효능감 하위요인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독립변수	B	std	β	t-value	p-value	R^2	F	p
성적	2.13	0.73	0.15	2.91	0.0038**	0.2368	22.49	0.0000**
시험	0.07	0.79	0.00	0.08	0.9346			
수업	-0.04	0.79	0.00	-0.05	0.9601			
공부	1.08	0.91	0.08	1.19	0.2337			
진로	1.68	0.67	0.13	2.51	0.0123*			
과제난이도선호	-0.44	0.48	-0.04	-0.91	0.3611			
자기조절효능감	-0.87	0.62	-0.06	-1.41	0.1593			
자신감	-2.75	0.57	-0.22	-4.85	0.0000**			

* : $p < .05$, ** : $p < .01$

V. 논 의

본 연구결과를 살펴본 결과 학업스트레스의 하위요인인 시험과 시험의 결과인 성적이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시험에 대한 학업스트레스가 우울과 가장 높은 상관을 보였으며 우울 정도가 높아질수록 학업적 자

기효능감은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과 외국어고 학생들 간의 스트레스 요인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우울 척도에서는 박진아(2000)의 청소년의 우울척도를 발생 비율별로 알아본 결과 연구 대상자의 41.8%가 우울하지 않은 상태였으며, 경미한 우울 상태가 30.6%, 중증의 우울 상태가 18.8%, 심한 우울 상태가 8.8%로 나타났다. 이 결과를 본 연구 대상인 외국어고 학생들의 우울 비율과 비교해보면 외국어고 학생들은 52.6%가 우울하지 않은 상태였으며, 경미한 우울 상태가 26.7%, 중증의 우울 상태가 13.4%, 심한 우울 상태가 7.3%으로 일반고 학생들보다 우울정도가 낮은 결과가 나타났다. 학업우수고 학생들이 감정 요인에 있어서 일반 학생들보다 더 취약하고 감정 요인이 일반학생들보다 더 낮다는 연구결과와 상이하다(김영빈, 2011).

다만 외국어고 학생들은 일반고 학생들에 비해 자신의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가 높은 편으로 낮은 성취도로 인한 무력감과 자기비하, 상대적 열등감 등을 더 많이 지각하기 때문에(고순희, 1995), 자기 효능감이 낮아지고 이로 인해서 자기조절효능감과 자신감이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정서적 우울감에도 불구하고 성적을 올리기 위해 더욱 스스로를 채찍질하는 성향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실패할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과제를 선호하는 학업우수고 학생들의 특성이라 할 수 있다(경향신문, 2011, 2, 28). 이는 우울을 통제하는 높은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상관이라 예상할 수 있다.

김영빈(2011)의 연구에서 한국 학생들의 학업소진 유형 중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가 높고 지쳐있으면서도 여전히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 집단이 발견되었는데, 이는 한국 학업우수학생들의 특수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외부의 기대와 강한 내적 성취욕구가 외국어고 학생들로 하여금 학업스트레스를 유발시키게 하고 학업스트레스는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으로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1학년이 다른 학년에 비해서 우울감이 높았던 이유가 학업성적의 하락에 대한 불안함이 원인이라 예상하기 때문에 학업적 동질집단의 형성 초기인 1학년 때는 학생들에게 학업서열의 하락 가능성을 인식시키고 이에 정서적·행동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예방적 개입이 필요하다.

그리고 성적 평가 이후의 즉각적인 정서적 돌봄과 구체적인 학습기술 코칭도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학기 초에 스트레스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고 실패 가능성에 대한 스트레스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정서적 지원이 제공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학업적 자기효능감 요인 중 자기조절효능감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내신경쟁

을 조장하여 학업성취에만 치중된 수업분위기보다는 외국어고 학생들이 학업경쟁을 잘 수용할 수 있도록 성적 하락에 대한 대처방안을 적극적으로 지도하고 개입하여 부정적인 자아개념으로 발생할 수 있는 우울감과 그로인한 자살 충동을 예방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학생들이 경쟁에서 실패하더라도 심리적으로나 행동적으로 건강하게 대처하고 극복할 수 있도록 지도하기 위해서는 교육과 차별화된 상담을 통해 실패에 대처하는 유연성을 향상시키고, 예방에 알맞은 위기 개입방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연구 분석에 사용된 상관분석이 아닌 구조방정식을 적용하여 우울과 학업 스트레스의 매개변인인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효과를 좀더 명확하게 확인해 본다면 외국어고 학생들의 우울에 대한 심리상담 및 치료적 개입시 좀더 효과적으로 개입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VI. 본 연구의 제한점

첫째, 본 연구의 표집대상이 경기도에 소재한 공립 외국어고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연구의 결과를 외국어고 재학생 전체를 일반화시키기에는 무리가 있다. 전집의 대표성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다양한 표집을 구성하는 점이 요구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 대상은 외국어고를 대상으로 한정하였으나 과학고 학생과 일반고 학생 중 학업우수학생을 대상으로 한 비교 연구를 통해 학업스트레스,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우울과의 관계를 다시 살펴봄으로써 다양한 집단들을 대상으로 한 검증작업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셋째, 설문연구의 제한점을 들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학업스트레스, 학업적 자기효능감, 우울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자기보고형 설문지를 사용하였는데, 이는 응답자가 응답한 당시의 개인적 요인이나 상황적 요인 때문에 왜곡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설문 연구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연구방법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넷째, 외국어고 학생의 정신건강에 관한 선행연구가 거의 이루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였다. 또한 2011년 수거된 설문지를 사용했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을 고려한 비교연구와 다양한 시각에서 후속연구가 이루어질 필요

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기초 연구의 목적을 가진 본 연구의 특성 상 전체적으로 회귀 분석으로 기초 연구를 진행하였으므로, 종속변인에 미치는 영향 외에 종속변수와 독립 변수, 또는 다양한 독립 변수간의 관계를 구조적으로 탐색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연구에서 제시한 변인들 사이에 어떠한 상호작용이나 인과관계가 있는지 탐색하여 보다 정확한 변인 간 영향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참고 문헌

- 경향신문. 2011. 2. 28.
- 고순희(1995). 고등학교 학생들의 스트레스와 대처방식 및 적응의 관계. 원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곽경미(2007). 고등학생의 학업스트레스 요인과 대처방식 및 증상분석. 금오공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계현·김동일·김봉환·김창대·김혜숙·남상인·조한익(2000). 학교상담과 생활지도. 서울: 학지사.
- 김금식(2005). 자기효능감 증진 프로그램이 학습된 무력감과 학업스트레스에 미치는 효과. 순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미경(2008). 학업스트레스 대처 훈련이 고등학생의 학업스트레스와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학업성취에 미치는 효과.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미옥(2009). 중학생의 학업스트레스, 우울, 역기능적 태도와 학업성취와의 관계.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성욱(2003). 인지-행동적 학업스트레스 대처 훈련이 초등학생 학업스트레스와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대구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아영(2001). 학업적 자기효능감: 이론과 현장연구. 서울: 학지사.
- 김아영·박인영(2001). 학업적 자기효능감 척도개발 및 타당화 연구. 교육학연구, 39(1), 95-123.
- 김영빈(2011). 학업우수 고등학교 학생들의 실패내성 특성 및 성적하락 극복과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18(1), 31-47.
- 김유선(2013).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와 정신건강의 관계에서 부, 모-자녀관 의사소통의 조절효과. 인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의철·박영신(1999). 한국 청소년의 생활만족도와 스트레스 형성요인 : 도시와 농촌 청소년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3(1), 79-101.
- 김현정(2011). 외국인 고등학교 문제점 및 개선방안연구.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노원재(2007). 청소년의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두금주(2003). 스트레스와 우울간의 관계. 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화방송(1991). '91 MBC 청소년 백서.
- 박은영(1995). 고등학교 청소년들의 스트레스 원인과 그 대처행동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 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지현(2006). 청소년이 지각한 스트레스, 자기효능감, 심리적 안녕감 및 사회적 지지의 관계.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진아(2000). 청소년의 지각된 사회적 지지 및 자기효능감과 우울간의 관계 연구. 연세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보건복지부(2001).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 보건복지부 용역연구보고서.
- 새전북신문. 2013. 10. 13.
- 세계일보. 2008. 11. 22.
- 송정옥(2009). 고등학생의 스트레스와 우울간의 관계연구.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신영희(1994). 스트레스, 자기효능감 및 사회적 지지가 대처와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심영배(2003). 아동의 스트레스와 스트레스 대처양식 및 우울과의 관계연구. 관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양경남(1994). 학업스트레스 대처훈련이 스트레스 경감과 학습태도에 미치는 효과. 한국 교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오미향·천성문(1994).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 요인 및 증상 분석과 그 감소를 위한 명상 훈련의 효과. 서강대학교 학생생활상담연구소, 인간이해 15, 63-96.
- 오종진(2011). 고3 수험생의 자아존중감과 스트레스 대처방식 및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관계.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원호택·이민규(1987). 고등학교 재학생들의 스트레스.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6(1), 22-32.
- 윤운성(1998). 부모의 기대가 자녀의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교육심리연구, 13(4), 247-268.
- 이경희(1995). 청소년의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 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이광희(2005). 중학생의 학업스트레스 요인 및 증상분석과 인지. 경성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은진(1998). 자기효능감, 스트레스 대처방식, 우울간의 관계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지현(2008).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와 자살생각의 관계.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

위논문.

- 이현주(1992). 고등학생의 스트레스와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경희(2015). 청소년의 우울과 자살생각에 미치는 요인분석.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성옥(2004). 학업스트레스 대처훈련이 중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울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인순(2003). 중학생의 생활스트레스 경험과 대처방식이 우울, 무망감 및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임진형(2000). 유치원 초임교사의 사회적 지지, 자기효능감과 직무스트레스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형신(2008). 일반고와 특목고생의 자아탄력성에 따른 학업적 자아개념과 정서의 차이. 카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규태(2009). 중·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학습관여형태와 학업스트레스 및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관계.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원식(1985). 교사의 의무와 신분보장에 대한 법적 고찰.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은주(2000). 고등학생들의 스트레스와 학업성적 및 정신건강간의 관계연구.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선일보. 2011. 11. 16.
- 최경란(2002). 중학생의 자아정체감과 학업스트레스와의 관계.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승혜(2008). 고등학생의 학업스트레스원과 증상에 관한 연구. 대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신아(2010).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성취압력 및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학업스트레스와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정책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윤희(2007). 서울시 일부 중학생의 우울성향과 관련요인 연구.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2). 청소년 정신건강 실태 및 대응방안.
- 한홍무·염태호·신영우·운도준·정근재(1986). Beck depressio Inventory의 한국판 표준화 연구. 신경정신학회 76, 487-502.

- 홍혜영(1995). 완벽주의 성향, 자기효능감, 우울간의 관계연구. 이화여자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황정규(1990). 한국학생의 스트레스 측정과 형성. 서울대학교, 사대논총 41, 25-66.
- Bandura, A.(1977).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2), 191-215.
- Bandura, A.(1986). *Social foundations of thought and action: A social cognitive theory*. Englewood Cliffs, N. J.: Prentice-Hall.
- Bandura, A.(1993). Perceived self-efficacy in cognitive development and functioning. *Educational Psychologist*, 28(2), 117-148.
- Beck, A. T.(1987). Cognitive models of depression. *Journal of Cognitive Therapy: An International Quarterly*, 1, 5-37.
- Emslie, G. J., & Mayes, T . L.(1999). Depression in children and adolescents: A guide to diagnosis and treatment. *CNS Drugs*, 11(3), 181-189.
- Friedman, R. C., Com, R., Hurt, S. W., Fibel, B., Schulick, J., & Swirsky, S.(1984). Family history of illness in the seriously suicidal adolescent: A life-cycle approach.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54(3), 390-397.
- Garber, J., Kriss, M. R., Koch, M., & Lindholm, L.(1988). Recurrent depression in adolescents: A follow-up study.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27(1), 49-54.
- Sherer, M., Maddux, J., James, E., Mercandante, B., Prentice-dunn, S., Jacobs, B., & Rogers, R. W.(1982). The self-efficacy scale: Construction and validation. *Psychological Reports*, 51(2), 663-671.
- Zimmerman, B. J.(1989). A social cognitive view of self-regulated academic learning.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1(3), 329-339.

〈Abstract〉

The Relationships of Academic Achievement Pressure and Academic Self-efficacy on Depression Among Foreign Language High School Students

Min, Kyoung Su
Kookmin University

This study is to help develop the proper program for the academic stress solution by providing the preliminary data and information for treatment and prevention when depression intervention for a psychical cure of foreign language high school students. We filled in questionnaires and handed out them to 589 students of foreign language high school. And divided the 589 students into groups by genders or grades, and used T-test, one-way analysis of variance, correlation analysis, and multicenter retrospective analysis. It showed that it is nothing to do with the genders and there is strong correlation between stress and depression. The 3rd grade-students at academic self-efficacy and the 1st grade-students at depression level got the highest scores, 2nd grade-students at got the lowest scores. And it also showed that the bigger the factor that grades of exam, studying or career is, the higher despression level is. Therefore it means that the higher academic stress level and the lower academic self-efficacy are, the higher depression level is. The result of this study could help find out the optimal therapeutic approach for the foreign language high school students by understanding psychological aspect of theirs. And it also helps present a standard of career choice for students aiming to enter special-purpose high schools by disclosing their psychological state.

Key words : academic stress, academic self-efficacy, Foreign Language High School

중학생의 자아분화와 내외통제소재가 친구 간 갈등해결전략에 미치는 영향

추효승·홍혜영*

금천청소년상담복지센터·명지대학교

본 연구는 중학생의 자아분화와 내외통제소재가 친구 간 갈등해결전략에 미치는 영향의 매개효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 경기 소재의 중학생 424명에게 설문 조사하였고, 그중 424명(남자 209명, 여자 215명)의 연구 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측정도구로는 자아분화, 내외통제소재, 친구 간 갈등해결전략척도를 사용 하였다. 각 변인들 사이의 관계를 알아 보기위해 상관분석, Baron과 Kenny(1986)방식을 통한 매개효과분석을 실시하였다.

수집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첫째, 자아분화, 내외통제소재, 친구 간 갈등해결전략 중 협력 및 절충 전략, 지배전략에서는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보였으며, 양보에서는 유의미한 부적상관을 보였다. 둘째, 자아분화가 친구 간 갈등해결전략 중 협력 및 절충전략과 지배전략, 양보 전략에서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나타냈으며, 내외통제소재가 친구 간 갈등해결전략 중 협력 및 절충전략과 지배전략, 양보전략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나타냈다. 셋째, 자아분화와 내외통제소재가 친구 간 갈등해결전략 중 협력 및 절충전략, 지배전략에는 부분 매개가 나타났고, 양보전략에는 완전 매개가 나타났다. 이에 따라 중학생의 자아분화와 친구 간 갈등 해결전략에 내외통제소재가 영향을 미치는 매개요인임을 밝혔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자아분화와 내외통제소재 관한 변인을 밝히는 연구가 필요하며, 청소년상담 장면에서의 개인 내적 영역 활용과 사회성 및 또래 관계 효과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핵심어 : 자아분화, 내외통제소재, 친구 간 갈등해결전략

* 교신저자: 홍혜영(hong77@unitel.co.kr)

■ 게재 신청일 : 2015년 6월 30일 ■ 최종 수정일 : 2015년 8월 24일 ■ 게재 확정일 : 2015년 8월 26일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청소년 시기는 친구간의 관계가 사회적 기본 축이 되는 중요한 시기이며 이 관계는 청소년 초기부터 성인기까지 주요 사회적 자원이 되고, 개인의 성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김소영, 2010; 사공미숙, 2006; 조성현, 2012).

상호적 친구관계를 경험한 청소년이 사회적으로 더 유능하며 타인에게 친절하고 협동적이었으며, 조망수용 능력과 자존감이 높다(Newcomb & Bagwell, 1996). 하지만 친밀한 친구관계에서도 자주 다양한 형태로 갈등 상황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러한 갈등은 청소년 전기부터 나타나게 되고(Hatup, French, Laurens, Johnston & Ogawa, 1993), 사춘기 이후 중기 청소년기에는 충돌이 더욱 강렬하게 일어나게 된다(De Goede, Branje & Meeus, 2009).

특히 청소년기 갈등은 자신의 목적을 획득하려는 경향이 크고 공격적이며, 파괴적인 부분이 크게 강조되어 사회성 실패와 같은 부정적인 인식이 크다. 상호작용의 형태에서는 갈등이 건설적인 잠재성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즉, 갈등상황은 자신을 보호·방어하기 위한 일련의 사고 및 행동의 체계화된 과정으로 서로의 의도를 관찰시켜, 각자 원하는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상호작용 접근방식이기 때문이다(유기석, 2013; 윤상은, 2008; 이정주, 2011).

국내의 갈등해결전략과 관련된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Rahim(1983)이 제시한 5가지 유형을 가장 많이 인용하여 이은해, 고운주, 오원정(2000)이 4가지 유형으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친구 간 갈등해결전략 척도를 나타낸다. 회피전략은 친구와 다툼 소지가 있는 소재는 언급하지 않는 전략이다. 협력 및 절충전략은 친구와 문제해결을 위해서로 만족하는 방법을 찾는 갈등해결전략이다. 양보전략은 친구와 의견 충돌 시 친구가 원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바꾸는 갈등해결전략이다. 지배전략은 가능하면 친구가 자신의 의견보다 내 의견 중심으로 받아들이도록 설득하는 갈등해결전략이다.

그동안 많은 연구들에서 친구 간 갈등해결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양육태도(김수정, 2006; 이희영, 천태복, 2005; 황현선, 2010), 애착(김은진, 이정윤, 2009), 가족 및 부모행동 특성(이민영, 김광웅, 2011; 채경미, 2009; 최유진, 유계숙, 2007), 정서양식(이수진, 안경식, 2010; 조성현, 2012) 우울(배미예, 이은희 2009), 자기조절능력(박윤

조, 송하나, 2009) 등 다양한 개인적 요소에 초점을 둔 연구가 진행 되고 있다. 현재 자아분화와 친구 간 갈등해결전략에 대한 연구에는 조성현(2012), 안혜림, 장예진, 김희주, 최연수(2011), 이은희(2008) 등의 연구에서 진행된 바 있으며, 그 결과 자아분화가 친구 간 갈등해결에 영향을 준다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어 자아분화에 대한 연구도 관심이 주목 되고 있다.

자아분화에 대해서 살펴보면 Bowen의 이론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개념으로서 어린 아이가 어머니와의 융합에서 서서히 벗어나와 자기 자신의 정서적, 자주성을 향해 나아가는 장기적 과정을 말한다(Bowen, 1989). 자아분화가 잘 이루어진 사람은 긴장상태에서 원활하게 대처할 능력이 있으며, 생활에 질서가 있다. 그러나 구분이 잘 되지 못한 사람은 감정에 의존하며 대인관계 적응력과 융통성이 부족하여 생활 속에서 어려움을 겪게 된다(백양희, 1997). 청소년기의 자아분화에 대인관계 측면과 심리적 측면으로 나누어 보면 자아분화 수준이 높을 때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객관성을 잃지 않아 유연성을 가져 심리적 증상으로의 이전이 제한된다. 따라서 청소년이 부모로부터 정서적으로 완전히 독립하지 못했을 때 부적응 행동이 나타나게 되어 대인 관계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청소년이 자아분화가 잘 이루어지면 대인관계 문제뿐 아니라 사회적 퇴행과 연결되어 이는 범죄율 저하로 이어져 자제력이 있고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한동현, 2012).

자아분화와 친구 간 갈등해결전략에 관한 선행 연구를 보면, 조성현(2012)의 연구에서 자아분화 수준이 높을수록 협력 및 절충전략을 선택하여 자신과 타인 모두가 만족할 만한 긍정적 갈등해결에 영향을 주게 되며, 사회적응이나 갈등해결에 있어서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양보전략과 자아분화는 유의미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은희(2008) 연구도 마찬가지로 자아분화와 협력 및 절충전략, 양보전략이 영향이 있는 결과가 나타나 자아분화와 친구 간 갈등해결전략 간에 유의하다고 보고되었다. 한편 자아분화 수준이 높은 집단은 긍정적 갈등해결전략을 많이 사용하고(안혜림, 장예진, 김희주, 최연수, 2011), 친구 간 갈등상황에서 효율적으로 갈등 관리하여, 성숙한 방법으로 해결하는데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도 있다(최연우, 2010; 한정아, 2005). Elizabeth, Skowron & Krystal(2009)에서는 자아분화가 적절히 이루어진 경우 갈등 상황 시 이성과 감정이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여 합리적 사고가 가능하고, 효율적이고 융통성 있게 대처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기존연구 결과를 통해 청소년 자아분화는 친구 간 갈등해결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높은 자아분화 수준일수록 이성과 감정이 적절한 균형을 이루어 자신과 타인이 모두 만족 할 수 있는 갈등해결전략을 선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개인 내적요인 중 적응능력, 친구 간 관계, 성취동기 등 개인행동 전반에 영향을 주는 내외통제소재를 중학생의 자아분화가 친구 간 갈등 해결에 미치는 영향의 매개요인으로 초점을 두고자 한다.

내외적통제소재는 서로 다른 대상에게 동일한 환경이 제시 경우 행동 결과에 따라 인식하는 방향이 저마다 다르게 되는데, 이런 지각은 행동의 차이를 가져오게 되고, Rotter는 이런 지각 또는 신념을 내외통제성이라고 한다. 내외통제성은 자신의 행동과 이에 따르는 강화 간의 인과적 관계라는 측면에서 귀인이론과 관련이 깊다. Phares와 Wilson은 내적통제소재자는 외적통제소재자보다 환경을 억제하고 조정하려고 노력하는데 있어서 더 적극적이고 기민하고 직접적이었음을 발견했다(허미란, 2012). 내적통제소재자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 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는데 반해, 외적통제소재자는 바람직한 방법으로 대처하기 위한 정보를 얻지 못하고, 운명이 외부의 힘에 의해 통제된다고 믿는 태도를 가짐으로써 노력의 결과에 대한 기대를 격감시킨다고 하였다(하유진, 2007). 내적통제소재가 높은 사람은 자신의 해결가능성을 믿기 때문에 적극성, 사회성, 인내성, 친사회적행동, 협조성, 정서적 조절 능력이 높고 스트레스도 덜 경험 하게 된다(박영신, 김의철, 1998). 자아분화도 마찬가지로 객관적 통찰이 가능하므로 바람직한 발달과 발달상의 문제 해결이 스스로 가능하게 되면 내적통제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이미경, 2009). 따라서 내외통제소재는 자아분화와 친구 간의 갈등 해결전략 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된다.

내외통제소재와 친구 간 갈등해결전략의 관계를 살펴보면, 채경미(2009)의 연구에서는 내적통제소재자가 갈등 상황 시 협력 및 절충전략을 자주 선택하게 되고, 환경적 요인인 형제 유무보다는 개인 내적요인인 내외통제소재가 친구 간 갈등해결전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밝혔다. 민하영, 유안진(2000) 연구에서는 문제 상황이나 욕구좌절 상황에서 내적통제소재자는 자신의 능력이나 노력을 통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믿고, 외적통제소재자는 갈등 상황에서 방해 불안을 더 많이 경험하고 공격으로 반응한다고 보고하였다. 온정적인 가정환경일 때 성취행동과 칭찬이 내적통제소재를 높여주어 친구 간 갈등 상황에서 자신의 욕구보다는 친구의 욕구를 고려하는 협력 및 절충전략을 사용한다는 결과가 나타났다(이민영, 김광웅, 2011). 이는 갈등 상황에서도 친구와 내가 동시에 서로 만족 할 수 있는 선택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수평적 갈등해결전략을 선택하게 된다는 것이다(Muriel, Susan & Meeus, 2011). 이에 따라 적절하게 자신의 반응을 조절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개개인마다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다를 수 있다. 내외적통제소재의 활용과 더불어 친구 간 갈등해결 전략으로 사회성 및 또

래 관계 효과를 살펴보면 주변 환경이 아닌 행위자의 노력, 능력, 성격, 동기와 같은 내적 요인에 고정된 시각을 갈등 해결 전략으로 변형 진행하게 되면 청소년의 통제소재가 갈등적 상황에서 행동을 결정하는데 관계될 수 있음을 시사 가능 하다(Elizabeth A, Lemerise & William F. Arsenio, 2000).

자아분화와 내외통제소재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이미경(2009)의 연구 결과 중 자아분화와 내외통제소재의 영향력에 자아분화의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기 가족의 분위기가 애정적이고 통제적이고 인식할수록 청소년 자녀는 더 내적 통제성향을 가져서 스스로 자신에게 책임지는 행동이 많아 질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는 자아분화는 청소년에게 통합적으로 영향을 주어 내적통제성향을 갖는데 영향력이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Gabelman(2012)에서 자아분화를 높을수록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내적통제 소재가 있는 사람들은 어떤 일이든 제어가 가능하다고 믿기 때문에 자신의 행동의 결과에 관계에 문제를 면밀히 볼 가능성이 높아 감정을 절제하는 능력이 높다고 밝혀졌다(Gabelman, 2012; Lando, 2008). 이러한 연구들 바탕으로 자아분화가 내외통제소재에 영향을 미칠 것을 예측해 보고, 중학생의 자아분화와 내외통제소재가 친구 간 갈등해결 전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 해보고자 한다.

대상 선정에 있어 김애경(2003) 연구 중 ·고등학생에 비해 더 높은 내적통제소재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고, 고등학생의 경우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가 더 높고 대학입시 환경에 더 가깝게 노출되어 있어 부모나 타인에 관심도가 높아지게 되고 이에 따라 주변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밝혀졌다. 중학생의 경우 진로 탐색 단계로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가 고등학생에 비해 더 낮다는 결과를 추측 할 수 있으며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중학생 대상을 선정하게 되었다(강영미, 유순화, 윤경미, 2009; 정유선, 2003; 채경미, 200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자아분화, 친구 간 갈등해결전략, 내외통제소재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고 친구 간 갈등해결전략의 유형과 서로 연관성을 파악하여 영향 주는 정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 결과를 통해 청소년의 적응과 발달에 친구 간 갈등해결전략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자아분화와 내외통제소재 영향력을 알아보는 것에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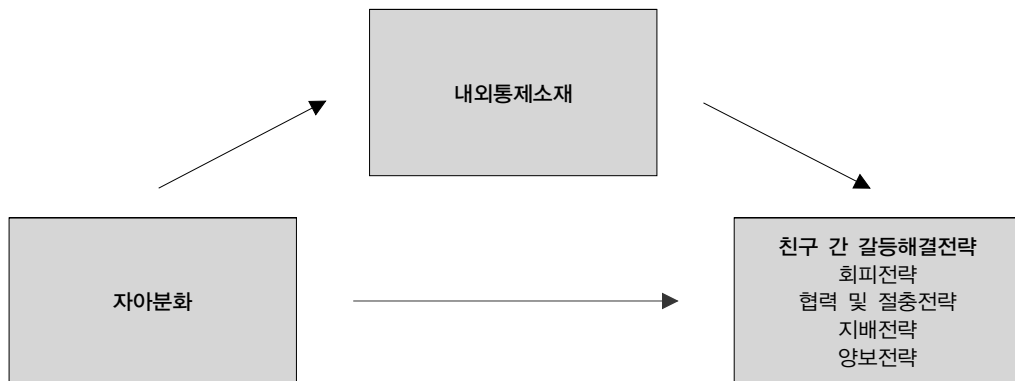
2. 연구문제 및 연구모형

가. 연구문제

- 연구문제 1. 중학생의 자아분화, 내외통제소재, 친구 간 갈등해결전략 간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가?
- 연구문제 2. 중학생의 자아분화와 내외통제소재는 친구 간 갈등해결전략의 각 하위 변인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 연구문제 3. 중학생의 자아분화와 친구 간 갈등해결전략에서 내외통제소재의 매개효과가 있는가?

나.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다루어질 구체적인 연구문제를 기초로 한 연구 모형은 <그림 1> 다음과 같다.



<그림 1> 연구모형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경기소재 중학교 6곳 남녀 학생 508명으로 불성실하게 응답한 질문지 84부를 제외 하고 424명을 대상으로 결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1〉 인구학적 변인 빈도 분석

		(N=424)		
인구학적 변인	구 분	남(%)	여(%)	전체(%)
성별		209(49.3%)	215(50.7%)	424(100%)
학년	1 학년	79(56.0%)	62(44.0%)	141(33.3%)
	2 학년	67(46.5%)	77(53.5%)	144(34.0%)
	3 학년	63(45.3%)	76(54.7%)	139(32.8%)

2. 측정도구

가. 자아분화 척도

Bowen(1976)의 이론을 수정한 제석봉(1989)의 자아분화척도를 사용하였다. 하위요인으로 인지적 기능 대 정서적 기능(7문항), 자아통합(6문항), 가족투사과정(6문항), 정서적 단절(6문항), 가족퇴행(11문항)으로 총 36개 문항으로 구성 된 Likert식 4점 척도이다. 각 하위요인에서 척도의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분화가 잘 된 것을 의미한다. 하위요인별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 는 인지·정서기능(.70), 자아의 통합(.70), 가족투사(.83), 정서적 단절(.78), 가족퇴행(.85)로 나타났다.

나. 내외통제소재 척도

Nowicki 와 Strickland(1973)의 아동용 내외 통제척도를 정은주, 손진훈(1981)이 학생용 내외통제척도로 제작하였다. 이 검사는 ‘그렇다’와 ‘아니다’ 40문항이다. 각 문항 중 16문항은 ‘그렇다’가 내적 통제 점수 문항이며, 24문항은 ‘아니다’가 내적통제점수 문항

이다. 본 연구에서는 ‘그렇다’ 16문항을 역채점 하여 내적통제 점수로 환산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내적통제소재를 의미한다.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 는 .71로 나타났다.

다. 친구 간 갈등해결전략 척도

Mendelson, Goldbaum & Semeniuk(1995)의 친구관계 갈등해결 방식을 이은해, 고윤주, 오원정(2000)가 수정하였다. 하위 요인으로 회피전략(4문항), 협력 및 절충전략(4문항), 지배전략(4문항), 양보전략(4문항)으로 총 16문항으로 5점 Likert척도이다. 본 연구에서의 하위요인별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 는 회피전략(.70), 협력 및 절충전략(.75), 지배전략(.71), 양보전략(.78)로 나타났다.

3. 연구절차

본 연구는 서울, 경기 지역 중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수련시설, 중학교에 직접 방문하여 설문 실시 전에 연구의 목적과 실시시간, 실시방법, 주의사항 등에 대해 설명한 후 설문지를 배포 하고 연구자가 직접 수거하였다.

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18.0 프로그램으로 처리되었다. 일반적 특성을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고,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내적합치도 Cronbach’s α 를 산출하였다. 각 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친구 간 갈등해결전략의 각각 하위 요인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내외통제소재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Baron과 Kenny(1986)가 제안한 절차에 따라 회귀분석을 실시하고, 매개효과의 유의미성을 검정하기 위해 Sobel(1982)테스트를 실시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기술통계분석 및 상관분석 결과

주요변인의 각각의 평균은 자아분화 2.88 (SD=.32), 내외통제소재 .64 (SD=.13), 친구 간 갈등해결전략 중 회피전략 3.18 (SD=.61), 협력 및 절충전략 3.42 (SD=.64), 지배전략 3.18 (SD=.61), 양보전략 2.98 (SD=.70) 으로 나타났다. 독립 변인인 자아분화와 매개 변인인 내외통제소재 ($r=.49, p<.001$)는 유의도 수준 0.01에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독립 변인인 자아분화와 종속 변인인 친구 간 갈등해결전략 중 회피전략은 ($r=.01, p<.001$), 협력 및 절충전략 ($r=.31, p<.001$), 지배전략 ($r=.19, p<.001$), 양보전략 ($r=-.18, p<.05$) 으로 나타났다. 협력 및 절충전략과 지배전략은 유의미한 정적 상관으로 나타났으며, 양보전략은 유의미한 부적 상관으로 나타났다. 또한 종속변인인 친구 간 갈등해결전략과 매개 변인인 내외통제소재에서는 회피전략($r=.02, p<.001$), 협력 및 절충전략 ($r=.28, p<.001$), 지배전략 ($r=.20, p<.001$), 양보전략 ($r=-.22, p<.001$) 으로 나타났다. 협력 및 절충전략, 지배전략은 유의미한 정적 상관으로 나타났으며, 양보전략은 유의미한 부적 상관으로 나타났다. 변수의 왜도가 -.06에서 .15사이로 나타났고, 첨도 역시 -.33에서 1사이로 나타나 절대 값을 넘지 않았다.

〈표 2〉 자아분화, 내외통제소재, 친구 간 갈등해결전략 상관분석 결과

	1	2	3-1	3-2	3-3	3-4
1. 자아분화	-					
2. 내외통제소재	.49**	-				
3-1. 회피전략	.01	.02	-			
3-2. 협력 및 절충전략	.31**	.28**	.42**	-		
3-3. 지배전략	.19**	.20**	.24**	.58**	-	
3-4. 양보전략	-.18**	-.22**	.35**	.29**	.17**	-
평균(M)	2.88	.64	3.18	3.42	3.18	2.98
표준편차(SD)	.32	.13	.61	.64	.61	.70
왜도	-.06	-.28	.15	-.33	-.24	-.07
첨도	.07	-.33	.71	.64	1.0	.50

* $p<.05$ ** $p<.01$ *** $p<.001$

2. 자아분화, 내외통제소재, 친구 간 갈등해결전략에 미치는 영향

가. 자아분화가 친구 간 갈등해결전략에 미치는 영향

자아분화가 친구 간 갈등해결전략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자아분화를 독립변인으로 친구 간 갈등해결전략 하위 요인인 회피전략, 협력 및 절충전략, 지배전략, 양보전략을 종속변인으로 놓고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회피전략은 $\beta=.01$, $p<.001$ 로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으며, 협력 및 절충전략은 $\beta=.31$, $p<.001$ 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R^2=.09$ 로 자아분화가 협력 및 절충전략에 대해 9%의 설명력을 나타내었다. 지배전략은 $\beta=.19$, $p<.001$ 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R^2=.04$ 로 자아분화가 지배전략에 대해 4%의 설명력을 나타내었다. 양보전략은 $\beta=-.18$, $p<.001$ 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R^2=.03$ 로 자아분화가 양보전략에 대해 3%의 설명력을 나타내었다. 그 결과는 <표 3>에 제시하였다.

<표 3> 자아분화, 친구 간 갈등해결전략 단순회귀 분석 결과

종속변인	독립변인	B	β	SE	t	R^2	F
회피전략		.02	.01	.09	.29	-.02	.09
협력 및 절충 전략	자아분화	.60	.31***	.09	6.58	.09	43.26***
지배전략		.36	.19***	.09	4.01***	.04	16.13***
양보전략		-.38	-.18***	.10	-3.70***	.03	13.69***

* $p<.05$ ** $p<.01$ *** $p<.001$

나. 자아분화가 내외통제소재에 미치는 영향

자아분화가 내외통제소재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자아분화를 독립변인으로 내외통제소재 종속변인으로 놓고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beta=.48$, $p<.001$ 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R^2=.23$ 으로 자아분화가 내외통제소재에 대해 23.3%의 설명력을 나타내었다. 그 결과는 <표 4>에 제시하였다.

<표 4> 자아분화, 내외통제소재 단순회귀 분석 결과

종속변인	독립변인	B	β	SE	t	R^2	F
내외통제소재	자아분화	.20	.48***	.02	11.35	.23	128.87***

* $p < .05$ ** $p < .01$ *** $p < .001$

다. 내외통제소재가 친구 간 갈등해결전략에 미치는 영향

내외통제소재가 친구 간 갈등해결전략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내외통제소재를 독립변인으로, 친구 간 갈등해결전략 하위요인인 회피전략, 협력 및 절충전략, 지배전략, 양보전략을 종속변인으로 놓고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회피전략은 $\beta = .02$, $p < .001$ 로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으며, 협력 및 절충전략은 $\beta = .28$, $p < .001$ 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R^2 = .08$ 로 내외통제소재가 협력 및 절충전략에 대해 8.0%의 설명력을 나타내었다. 지배전략은 $\beta = .20$, $p < .001$ 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R^2 = .04$ 로 내외통제소재가 지배전략에 대해 4.0%의 설명력을 나타내었다. 양보는 $\beta = -.22$, $p < .001$ 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R^2 = .05$ 로 내외통제소재가 양보에 대해 5%의 설명력을 나타내었다. 그 결과는 <표 5>에 제시하였다.

<표 5> 내외통제소재, 친구 간 갈등해결전략 단순회귀 분석 결과

종속변인	독립변인	B	β	SE	t	R^2	F
회피전략	내외통제소재	.10	.02	.23	21.13	.00	.19
협력 및 절충 전략		1.35	.28***	.23	5.95	.08	35.42***
지배전략		.93	.20***	.22	4.16	.04	17.30***
양보전략		-1.13	-.22***	.25	-4.52	.05	20.47***

* $p < .05$ ** $p < .01$ *** $p < .001$

3. 자아분화, 내외통제소재, 친구 간 갈등해결전략 매개 효과

본 연구에서 자아분화와 내외통제소재가 친구 간 갈등해결전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검증하기 위해 Baron과 Kenny(1986)의 3단계 매개효과 검증 절차를 적용하였다.

첫 번째 단계는 독립변인이 매개변인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미쳐야 하고, 두 번째 단계는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쳐야 한다. 세 번

째 단계는 독립변인, 매개변인이 동시에 종속변인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야 하는데, 종속변인에 대한 독립변인 영향력이 두 번째 단계에서 보다 세 번째 단계에서 적게 수치를 나타낼 때 매개효과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매개효과는 세 번째 단계에서의 종속변인에 독립변인의 영향력으로 완전 매개 또는 부분매개라고 한다. 세 번째 단계의 회귀식에서 매개변인을 추가할 때, 독립변인의 계수가 유의미 수준에서 무의미 수준으로 떨어지는 경우에는 완전매개효과, 독립변인의 계수가 감소하지만 무의미 수준으로 떨어지지 않을 때는 부분매개효과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의미존재의 매개효과(또는 간접효과)는 자아분화에서 친구 간 갈등해결전략으로 가는 직접효과 a 와 의미추구가 친구 간 갈등해결 전략으로 가는 b 의 곱으로 정의한다. 의미 발견의 매개효과를 통계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매개효과 ab 에 대한 Z 검정을 실시하였다. Z 검정은 아래 식으로 구해지며(Aroian, 1994), sea 는 a 의 표준오차를 seb 는 b 의 표준오차를 나타낸다. Z 검정에서 ab 에 대한 표준오차를 구하는 공식은 몇 가지가 있는데 아래의 공식은 Aroian공식(Aroian, 1994) 또는 변형된 Sobel Test 공식(Baron & Kenny, 1986)이다.

$$Z_{ab} = \frac{a \times b}{\sqrt{(a^2 \times seb^2) + (b^2 \times sea^2)}}$$

보다 정확한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sobel test를 실시한 결과 $Z=0.43$, $p<0.5$ 로 산출되어 내외통제소재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가. 자아분화와 회피전략 간의 관계에서 내외통제소재의 매개효과

자아분화와 회피전략 간의 관계에서 내외통제소재의 매개효과를 알기 위해서는 처음 회귀분석의 기본가정의 위배여부를 확인 해 보면 VIF는 1.30으로 다중공선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 기준치인 10이하의 값을 나타내었고, Tolerance는 .77로 다중공선성 기준치 .1이상의 값을 나타내었으므로 다중공선성은 존재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오차항의 독립성 가정 위배 여부를 확인하고자 Durbin-Watson 계수를 살펴 본 결과 1.91로 2에 근접한 수치이므로 기본 가정을 충족시켜 회귀모형에 적합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Durbin & Watson, 1950).

내외통제소재가 자아분화와 회피전략과 매개하는지 나타내는 <표 6>을 보면 첫 번째, 독립변인인 자아분화가 매개변인인 내외통제소재를 유의하게 설명하였고 ($\beta=.48, p<.001$), 두 번째, 자아분화가 종속변인인 회피전략에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세 번째로 자아분화와 내외통제소재를 동시에 투입하였을 때 또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6> 자아분화와 회피전략 간의 관계에서 내외통제소재의 매개효과

단계	종속변인	독립변인	B	β	SE	t	R ²	F
1	내외통제소재	자아분화	.20	.48***	.02	11.35	.23	128.87***
2	회피전략	자아분화	.03	.01	.09	.30	-0.02	.09
3	회피전략	자아분화	.10	.05	.11	0.91	.00	.10
		내외통제소재	.09	.20	2.60	.34		

* $p<.05$ ** $p<.01$ *** $p<.001$

나. 자아분화와 협력 및 절충전략 간의 관계에서 내외통제소재의 매개효과

자아분화와 협력 및 절충전략 간의 관계에서 내외통제소재의 매개효과를 알기 위해서는 처음 회귀분석의 기본가정의 위배여부를 확인 해 보면 VIF는 1.30으로 다중공선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 기준치인 10이하의 값을 나타내었고, Tolerance는 .77로 다중공선성 기준치 .1이상의 값을 나타내었으므로 다중공선성은 존재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오차항의 독립성 가정 위배 여부를 확인하고자 Durbin-Watson 계수를 살펴 본 결과 1.89로 2에 근접한 수치이므로 기본 가정을 충족시켜 회귀모형에 적합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Durbin & Watson, 19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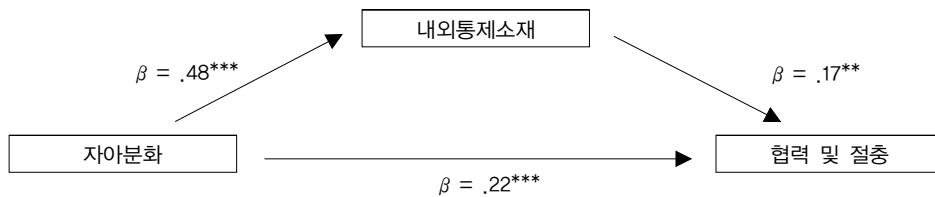
내외통제소재가 자아분화와 협력 및 절충전략과 매개하는지 나타내는 <표 7>을 보면 첫 번째, 독립변인인 자아분화가 매개변인인 내외통제소재를 유의하게 설명 하였고 ($\beta=.48, p<.001$) 두 번째, 자아분화가 종속변인 협력 및 절충전략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beta=.31, p<.001$). 세 번째로 자아분화와 내외통제소재를 동시에 투입하였을 때 자아분화의 계수가 다소 떨어졌으나, 여전히 유의미한 수준으로 떨어졌으므로($\beta=.22, p<.001$),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내외통제소재는 자아분화와 협력 및 절충전략 관계를 부분매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분화는 협력 및 절충전략 관계를 9%로 설명하였으나 자아분화와 내외통제소재를 함께 포함한 모델은 16%를 설명하여 자아분화

와 협력 및 절충관계에서 내외통제소재가 부분매개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보다 정확한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Sobel test를 실시한 결과 $Z=5.10$, $p<0.5$ 로 산출되어 내외통제소재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표 7> 자아분화와 협력 및 절충전략 간의 관계에서 내외통제소재의 매개효과

단계	종속변인	독립변인	B	β	SE	t	R ²	F
1	내외통제소재	자아분화	.20	.48***	.02	11.35	.23	128.87***
2	협력 및 절충전략	자아분화	.60	.31***	.092	6.58	.09	43.26***
3	협력 및 절충전략	자아분화	.44	.22***	.10	4.24	.16	27.40***
		내외통제소재	.83	.17**	.26	3.26		

* $p<.05$ ** $p<.01$ *** $p<.001$



* $p<.05$ ** $p<.01$ *** $p<.001$

<그림 2> 자아분화와 협력 및 절충전략 간의 관계에서 내외통제소재의 매개효과

다. 자아분화와 지배전략 간의 관계에서 내외통제소재의 매개효과

자아분화와 지배전략 간의 관계에서 내외통제소재의 매개효과를 알기 위해서는 처음 회귀분석의 기본가정의 위배여부를 확인 해 보면 VIF는 1.30으로 다중공선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 기준치인 10이하의 값을 나타내었고, Tolerance는 .77로 다중공선성 기준치 .1이상의 값을 나타내었으므로 다중공선성은 존재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오차항의 독립성 가정 위배 여부를 확인하고자 Durbin-Watson 계수를 살펴 본 결과 1.89로 2에 근접한 수치이므로 기본 가정을 충족시켜 회귀모형에 적합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Durbin & Watson, 1950).

내외통제소재가 자아분화와 지배전략과 매개하는지 나타내는 <표 8>을 보면 첫 번째, 독립변인인 자아분화가 매개변인인 내외통제소재를 유의하게 설명하였고($\beta=.48$, $p<0.5$) 두 번째 자아분화가 종속변인인 지배전략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beta=.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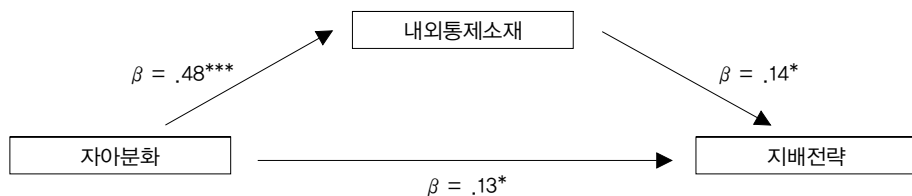
$p < 0.01$) 세 번째로 자아분화와 내외통제소재를 동시에 투입하였을 때 자아분화의 계수가 다소 떨어졌으나, 여전히 유의미한 수준으로 떨어졌으므로($\beta = .13, p < 0.01$),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내외통제소재는 자아분화와 지배전략 관계를 부분매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분화는 지배전략을 4%로 설명하였으나 자아분화와 내외통제소재를 함께 포함한 모델은 5%를 설명하여 자아분화와 지배전략에서 내외통제소재가 부분매개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보다 정확한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Sobel test를 실시한 결과 $Z = 3.90, p < .001$ 로 산출되어 내외통제소재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표 8> 자아분화와 지배전략 간의 관계에서 내외통제소재의 매개효과

단계	종속변인	독립변인	B	β	SE	t	R ²	F
1	내외통제소재	자아분화	.20	.48***	.02	11.35	.23	128.87***
2	지배전략	자아분화	.36	.19***	.09	4.01***	.04	16.13***
3	지배전략	자아분화	.24	.13*	.10	2.30	.05	11.38***
		내외통제소재	.65	.14*	.25	2.54		

* $p < .05$ ** $p < .01$ *** $p < .001$



* $p < .05$ ** $p < .01$ *** $p < .001$

<그림 3> 자아분화와 지배전략 간의 관계에서 내외통제소재의 매개효과

라. 자아분화와 양보전략 간의 관계에서 내외통제소재의 매개효과

자아분화와 양보전략 간의 관계에서 내외통제소재의 매개효과를 알기 위해서는 처음 회귀분석의 기본가정의 위배여부를 확인 해 보면 VIF는 1.30으로 다중공선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 기준치인 10이하의 값을 나타내었고, Tolerance는 .77로 다중공선성 기준치 .1이상의 값을 나타내었으므로 다중공선성은 존재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또

한 오차항의 독립성 가정 위배 여부를 확인하고자 Durbin-Watson 계수를 살펴 본 결과 1.89로 2에 근접한 수치이므로 기본 가정을 충족시켜 회귀모형에 적합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Durbin & Watson, 19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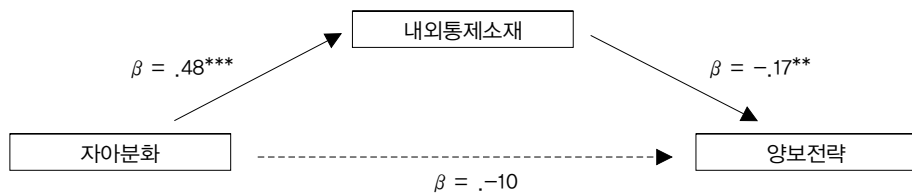
내외통제소재가 자아분화와 양보전략과 매개하는지 나타내는 <표 9>를 보면 첫 번째, 독립변인인 자아분화가 매개변인인 내외통제소재를 유의하게 설명 하였고($\beta=.48, p<0.01$) 두 번째, 자아분화가 종속변인인 양보전략에 유의한 부적영향을 미쳤다($\beta=-.18, p<0.01$). 세 번째로 자아분화와 내외통제소재를 동시에 투입하였을 때 자아분화의 계수가 다소 떨어졌으나, 여전히 유의미한 수준으로 떨어졌으므로($\beta=-.10, p<0.01$), <그림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내외통제소재는 자아분화와 양보전략은 완전매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분화는 양보전략을 3%로 설명하였으나 자아분화와 내외통제소재를 함께 포함한 모델은 5%를 설명하여 자아분화와 양보전략, 내외통제소재는 완전매개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보다 정확한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Sobel test를 실시한 결과 $Z=-4.11, p<0.5$ 로 산출되어 내외통제소재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표 9> 자아분화와 양보전략 간의 관계에서 내외통제소재의 매개효과

단계	종속변인	독립변인	B	β	SE	t	R ²	F
1	내외통제소재	자아분화	.20	.48***	.02	11.35	.23	128.87***
2	양보전략	자아분화	-.38	-.18***	.10	-3.70***	.03	13.69***
3	양보전략	자아분화	-.21	-.10	.12	-1.8	.05	11.90***
		내외통제소재	-.29	-.17**	.29	-3.10		

* $p<.05$ ** $p<.01$ *** $p<.001$



* $p<.05$ ** $p<.01$ *** $p<.001$

<그림 4> 자아분화와 양보전략 간의 관계에서 내외통제소재의 매개효과

VI. 논의 및 제언

1. 결론요약 및 논의

본 연구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자아분화와 내외통제소재, 친구 간 갈등해결전략에 어떠한 관련이 있는가를 규명하고, 자아분화와 친구 간 갈등해결전략의 관계에서 내외통제소재의 매개효과를 밝히고자 하였다.

첫째, 자아분화, 내외통제소재, 친구 간 갈등해결전략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한 결과 자아분화, 내외통제소재, 친구 간 갈등해결전략 중 협력 및 절충전략, 지배전략에서는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보였으며, 양보에서는 유의미한 부적상관을 보였다.

이는 자아분화가 높고 내적통제소재 일수록 협력 및 절충전략, 지배전략을 선택하고, 양보전략의 선택은 적다고 할 수 있다. 회피전략은 상관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 친구와 갈등 해결 상황인 경우 나와 친구의 의견 모두 수용하고 만족하는 방향으로 탐색하는 협력 및 절충전략을 사용하거나, 자신의 의견을 주장을 나타내어 친구로 하여금 자신의 의견으로 선택가능하게 유도 하는 지배전략을 선택 한다고 할 수 있다. 그에 반해 서로 의견이 다를 친구 생각을 맞추거나 친구가 원하는 방향으로 선택을 바꾸는 양보전략을 선택하는 것은 적다고 할 수 있다.

자아분화와 친구 간 갈등해결전략의 관계에서 협력 및 절충전략, 지배전략에서는 정적상관이 나타났으며, 양보전략에서는 부적상관이 나타났다. 이는 이은희(2012), 조성현(2012)의 연구에서 자아분화와 협력 및 절충전략은 정적상관을 자아분화와 양보전략은 부적상관으로 나타난 결과와 일치한다. 이 결과 갈등 상황에서 나를 포함한 갈등의 원인의 대상과 생각을 나누고 절충하는 방식을 통해 모두 만족스러운 결과를 선택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타인의 객관적 지각과 친근한 정서적 관계를 맺으면서도 잘 정의된 자아를 유지 한다고 볼 수 있다. 이때 이성과 감정이 함께 균형을 이루는 상태로 합리적 사고가 가능하기 때문이다(Bowen, 1976). 반면 자아분화 수준이 낮은 경우 의존적이고, 긴장이나 갈등을 야기하는 상황에 적응하지 못하여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기보다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배인선, 2005).

또한 자아분화와 내외통제소재 간은 정적 상관이 나타났으며 이 결과는 자아분화가 높을수록 내적통제소재도 높다고 할 수 있다. 내적통제인 경우 영속성 있는 자기의 행동이나 자신의 고정적 특성이 달린 것에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에(이수옥, 2007) 긴장

과 갈등 상황에서도 건설적인 방법을 모색하여 자기 비난이 적어지게 되어(조설희, 2005) 자아분화가 높을 경우와 마찬가지로 정서적인 것에 초점이 맞춰진 형태가 아닌 객관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이처럼 자율적이고 긍정적인 청소년은 부모의 자아분화 수준에 영향을 받고, 내적통제성향도 높다고 재해석 할 수 있다. 이 결과는 이미경(2009)의 연구에서 자아분화와 내외통제소재간에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 일치한다. 이는 내적통제성향을 가져서 스스로 자신에게 책임지는 행동이 많아 질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내외통제소재와 친구 간 갈등해결전략의 관계에서는 협력 및 절충전략, 지배전략에서는 정적상관이 나타났으며, 양보전략에서는 부적상관이 나타났다. 채경미(2009) 연구에서 내외통제소재에 따른 친구 간 갈등해결전략에서 내적통제소재의 청소년은 협력 및 절충 전략을 쓰는 것으로 나타나 일부 일치 하는 결과를 나타냈다. 내적 통제가 가능하면 자신이 그 사건을 조정 할 수 있고 변형 가능하기 때문에 갈등 상황에서도 친구와 나 둘을 만족 시킬 수 있는 절충안을 찾아 함께 만족 할 수 있는 선택을 하게 된다고 보고하였다. 또 내적통제소재를 지닌 사람은 외적통제소재를 지닌 사람에 비해 문제 해결에 있어 더욱 적극적이며 건설적인 방향으로 반응하려는 성향이 강하다고 나타났다(백양희, 최외선, 1997). 이경님(2001) 연구에서는 부모의 통제에 따라 내외통제 소재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온정적 수용적 환경 일수록 내적통제 소재를 발달시킨다고 나타났다.

이 결과는 자아분화와 내외통제소재의 상관관계를 확인함으로써 중학생의 경우 친구 간 갈등해결전략을 협력 및 절충전략이나 지배전략에 영향을 주고 자아분화와 내외통제소재가 대인관계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의 중요함을 제안한다.

둘째, 자아분화와 내외통제소재, 친구 간 갈등해결전략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자아분화는 친구 간 갈등해결전략 중 협력 및 절충전략과 지배전략, 양보 전략에서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보였다. 자아분화가 높을수록 친구와 갈등 상황에서 협력 및 절충 전략은 상승하고 양보전략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자아분화와 친구 간 갈등 해결전략과의 관계는 이은희(2012), 조성현(2012)의 연구에서 자아분화와 협력 및 절충전략과 양보전략에서 영향으로 나타난 결과와 일치하며, 김지현(2002)과 배선영(2001) 연구에서 가족과 또래 관계에서 안정적 관계 일수록 협력 및 절충전략과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 본 연구와 부합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겠다. 또한 자아분화의 수준이 낮을수록 갈등상황에 객관적 인식이 부족하여 적절한 대처하지 못하게 되는데, 이는

친구 간 갈등해결전략 중 양보전략의 특징과도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양보전략의 특징으로 친구와 의견이 맞지 않을 경우 친구의 생각을 맞춰 행동 하거나, 자신의 생각을 미뤄두고 친구에 바꾸는 행동은 타인의 감정에 의존하여, 자신의 선택에 있어 생각과 주장을 나타내야 할 때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백양희, 1997; 이민수, 2000; 최연우, 2010; 한정아, 2005).

이 결과는 가족 간 분화 정도에 따라 청소년 초기의 관계 형성에 영향을 끼치게 되고 아동 때와 달리 교육 환경의 강화로 다른 환경이 제공되게 되는데 이때 개인 내 외적인 역량에 따라 범위도 넓어지는 시기이므로 자아 분화가 청소년 초기에 중요한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기존 연구의 결과와는 다르게 자아분화가 친구 간 갈등해결전략 중 지배전략이 유의미한 영향을 나타내고 있다. 청소년 초기 시기는 가족과 영향력 있는 주변인에게 분화 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특징을 나타내며, 친구 간 갈등해결전략 선택 또한 아동기 때와 달리 여러 가지 변화가 나타나는 시기이다(김민경, 2003). 배선영(2001) 연구에서 친구 간 갈등해결전략에 있어 지배전략을 선택 할수록 더 많은 갈등 경험을 하지만 사회 정서적 기능 및 만족감과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대인관계의 어려움보다는 사춘기 과정에 있는 중학생의 특징과 개인적 성향이 반영 될 것으로 예상 된다.

자아분화가 내외통제소재에 대한 결과는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결과 자아분화가 높을수록 내외통제소재도 유의미하게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청소년 대상으로 연구한 이미경(2009) 연구에서 자아분화가 내외통제소재에 영향력이 낮은 결과로 나타나 청소년은 성장과정에 있어 자아분화와 내외통제소재 간 낮은 영향을 설명했으나, 본 연구에서는 자아분화와 내외통제소재가 더 유의미한 관계로 나타났다. 또한 Gabelman(2012) 연구에서 자아분화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고 내적통제가 높다는 결과를 지지하게 된다.

내외통제소재가 친구 간 갈등해결전략 중 협력 및 절충전략과 지배전략, 양보전략에서 유의미한 영향이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 내외통제소재에 따라 친구 간 갈등해결전략 선택 또한 아동기 때와 달리 개인 내적으로는 신체 변화가 개인 외적으로는 환경의 변화가 나타나는 시기로 갈등해결전략이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내적통제소재자가 협력 및 절충전략을 선택 한다고 할 수 있다. 선행 연구의 결과에서(민하영, 유안진, 2000; 채미경, 2009; 이경님 2001) 문제 상황이나 욕구 좌절 상황에서 내적통제소재자는 자신의 능력이나 노력을 통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설명하였으며 이 결과는 본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내외통제소재와 지배전략의 경우 내외통제소재가 높은 경우 자

신의 해결가능성을 믿기 때문에 적극성, 사회성, 인내성, 친사회적 행동, 협조성, 정서적 조절능력이 높고 스트레스도 덜 경험한다(박영신, 김의철, 1998). 그로인해 친구와 갈등 상황일 경우 자신의 선택을 믿고 협력이나 절충으로 의견을 모으기 보다는 자신의 생각이나 신념을 확고히 할 것으로 예측해 본다.

한편 내외통제소재와 양보전략에서 양보전략을 쓰게 되면 자신의 의견보다 타인의 의견을 더 수용하게 되는데,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외적통제소재자는 타인 지향적이며 타인에게서 자신의 기준을 구하고 사회 상황에서 타인의 판단에 따르며 독자적인 판단을 쌓아 가는데 내적인 가치에 의존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구분하였다(유성은, 2002, 재인용). 그래서 외적통제소재자는 갈등 상황에서 방해 불안을 더 많이 경험하고 공격으로 반응 한다고 보고하였다(민하영, 유안진, 2000).

셋째, 자아분화와 친구 간 갈등해결전략에서 내외통제소재의 매개 효과를 검증한 결과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분화와 내외통제소재가 친구 간 갈등해결전략에 미치는 영향을 하위요인 별로 살펴보면, 협력 및 절충전략이 부분 매개가 나타났다. 조성현(2012) 연구에서 자아분화, 인지적 정서조절이 친구 간 갈등해결전략의 연구 결과에서 적응적정서조절인 경우 협력 및 절충 전략에 간접적 영향을 미쳤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는 적응적 정서 조절에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 간접적인 영향을 주어 친구 간 갈등전략에서도 지지추구적이고 적극적인 방법으로 협력 및 절충 전략에 간접적 영향을 미쳤다는 결과이다. 배선영(2001)의 연구에서 아동이 친구 간 갈등해결을 위해 협력 및 절충전략을 선택하는 것은 사회 정서적 지원을 해준다는 지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또래 관계 형성 전 가족 관계에서 자아분화가 이루어진 후 정서적 지원이 인식 되었을 때 협력 및 절충전략 선택이 가능 할 것으로 예측해 본다. 또한 이은희(2008) 연구에서 협력 및 절충전략이 대인관계에 유의미한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협력 및 절충 전략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 결과를 뒷받침 한다.

하위요인 중 양보 전략은 본 연구에서 양보전략에는 완전 매개로 나타났다. 자아분화, 인지적 정서조절이 친구 간 갈등해결전략의 연구 결과에서 부정적정서조절과 양보 전략도 간접적 영향을 미쳤다는 결과가 나타났다(조성현, 2012). 이은희(2008) 연구에서 대인관계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으로 갈등해결전략 중 양보 전략이 자아분화와 친구 간 갈등해결전략 간에 유의 하다고 보고되어 이 결과는 본 연구와 부분적으로 일부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자아분화와 내외통제소재가 친구 간 갈등해결전략 중 지배전략이 부분매개로

유의미한 영향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은혜, 고운주, 오원정(2000) 연구에서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대상으로 ‘동성친구와 만족스러운 관계 예언 변인 검사’를 결과 중 중학생의 경우 긍정적 감정 예언 변인을 협력 및 절충 전략, 지배전략을 선택 했으며, 긍정적 변인으로 공평하거나 욕구보다 자신의 원하는 대로 갈등이 해결 된 경우 또한 친구의 관심사가 무시되더라도 자신의 욕구를 해결 할 수 있을 때로 나타났다. 고등학생은 중학생과 달리 양보전략과 협력 및 절충전략을 선택하여 중학생과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이는 중학생의 갈등해결 전략의 특징으로 보이며, 선행 연구들에서 지배전략이 상관을 유의미한 결과로 나타나지 않았으나, 중학생 대상인 결과로 연령의 특징으로 지배형의 유의미한 영향으로 예측 할 수 있다. 또한 이은혜, 고운주, 오원정(2000) 척도에서 지배전략 4개의 문항 중 ‘나는 내가 할 수만 있다면 내 주장대로 하려고 노력 한다’, ‘나는 ○○가 나의 생각을 받아 드리도록 설득하려 애쓴다’의 문항과 같이 지배전략의 통상적 의미보다는 협력 및 절충 전략에 가까운 문항으로 결과가 의미 관점에 따라 문항 선택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예측한다.

이와 같이 중학교 시기 또래관계는 아동기의 대인관계와 차이가 크며,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에게 상담 및 심리치로 현장에서 적절한 내적통제소재 강화를 이용하여 친구 간 갈등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 해 볼 수 있다.

2. 연구의 의의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의 자아분화와 친구 간 갈등해결전략 간의 관계에서 내외통제소재가 매개효과를 가지는지의 여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에 대한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친구 간 갈등해결전략에 대한 연구는 환경적, 개인내적인 부분으로 다양하게 연구 되고 있다. 그 중 자아분화와 친구간의 갈등해결에 대한 연구 또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내외통제소재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내외통제소재를 매개를 밝히겠다는 시도에 가치가 있다.

둘째, 자아분화와 내외통제소재를 영향력을 밝혔다는데 의의가 있다. 선행 연구와 비교해서 자아분화 내외통제소재 간 더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결과 나왔으며 이 결과를 바탕으로 외적요인에 어려움을 겪는 내담자의 경우 개인 내적 기준을 세워 스스로 선택하여 미래에 막연한 불편감에서 벗어 날수 있을 것을 예측 해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제언과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아분화와 내외통제소재가 친구 간 갈등해결전략에 미치는 영향으로 살펴본 결과 자아분화와 내외통제소재가 친구간의 갈등 해결 중 지배전략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지배전략 4개 문항 중 하나인 3번 문항에서 ‘나는 ○○가 나의 생각을 받아 드리도록 설득하려 애쓴다.’ 와 같이 ‘지배’의 사전적 개념인 ‘어떤 사람이나 집단, 조직, 사물 등을 자기의 의사대로 복종하게 하여 다스림’ 다른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다. 이처럼 결과를 명명하는 일반적 의미가 다르게 해석 가능 하므로 후생 연구결과에 따라 각 해당 척도의 결과와 영향을 알아 볼 수 있을 것을 기대해 본다.

둘째, 중학생의 프로그램을 개발 활용하여, 개인 내적 영역 활용 통해 사회성 및 또래 관계 효과를 밝히는 연구가 가능 할 것으로 보인다. 외적통제소재자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내적 요인에 고정 된 시각을 변형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게 되면 치료적 효과에 기대가 가능 하다.

셋째, 중학생이 주변 환경인 부모, 교사, 또래 등 특징을 고려하여, 친구 간 갈등해결 전략, 자아분화와 내외적 통제소재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알아봄으로써 중학생의 바람직한 성장을 위해 조력 하여 심리 치료적 개입의 기초가 되고자 한다.

참고 문헌

- 강영미·유순화·윤경미(2009). 전문계 고등학생이 지각한 진로장애와 자아탄력성이 진로 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6(1), 415-438.
- 구경호·유순화(2012). 청소년의 부모화 경험과 자아분화의 관계. 상담학연구, 13(6), 2763-2776.
- 김소영(2010). 청소년의 학대경험, 갈등해결전략 및 의사소통 능력이 또래관계의 질에 미치는 영향.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수정(2006). 중학생의 친구 간 갈등해결방식에 관한 연구: 부모양육태도와 공감능력을 중심으로. 숭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애경(2001). 내외통제성, 가족의지지, 가족의 응집 및 적응성과 아동의 사회적 행동 간의 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 19(6), 185-196.
- 김애경(2003). 부모의 갈등 및 사회적 지지와 내외통제성이 초기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학회, 10(3), 351-372.
- 김은진·이정윤(2009). 부모와의 애착과 청소년의 또래관계: 우울증상 및 갈등해결전략의 매개효과. 청소년상담연구, 17(2), 55-68.
- 김종주(2000). 현실요법을 적용한 학급운영이 실업계 고등학생의 내외통제성과 학교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효과. 동양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지현(2002). 부모의 애착안정성 및 청소년의 공감능력과 친구 간 갈등해결 전략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민하영(1999).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지각된 통제감과 내외 통제소재가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민하영·유안진(2000). 학령기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의 상황 간 일관성 및 내외 통제소재에 따른 대처행동. 대한가정학회, 38(10), 15-26.
- 박상신(2008). 중학생의 리더쉽기술과 갈등해결전략과의 관계.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영신·김의철(1998). 청소년 비행과 성취행동: 가정환경, 귀인양식, 건강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 사회문제, 4(1), 29-53.
- 박영신·김의철(1998). 한국인의 성공양식과 귀인양식. 교육심리연구, 12(2), 51-84.
- 박윤조·송하나(2009). 청소년의 자기조절능력과 또래 간 갈등해결전략이 문제행동과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연차 학술발표 논문집 한국심리학회, 496-497.

- 박혜선(2011). 아동의 자아분화가 스트레스 대처행동과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배미예·이은희(2009). 청소년의 자아분화와 대인관계 및 우울/불안간의 관계: 자기 통제력의 매개효과. 한국청소년연구, 20(1), 85-112.
- 배옥현·홍상욱(2008). 대학생의 자아분화 정도가 스트레스 수준 및 대처방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생활과학회지, 17(1), 27-34.
- 배인선(2004). 완벽주의 성향과 자아분화수준에 따른 결혼만족도의 차이.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백양희(1997). 부모-자녀 유대관계가 농촌 고등학생들의 자아분화, 불안 및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영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사공미숙(2006). 대학생의 애착과 정서조절 양식이 갈등해결전략에 미치는 영향.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혜림·장예진·김희주·최연수(2011). 대학생의 자아분화수준에 따른 이성교제 시 갈등 해결전략. 부모교육연구, 8(1), 87-114.
- 유선경(2007). 내적 통제소재와 가족관련 변인이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유성은(2002). 아동이 지각한 학업 스트레스 정도와 내외 통제소재가 학습동기에 미치는 영향. 대구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윤상은(2008). 중학생의 정서지능과 또래관계에 대한 갈등해결 전략의 매개효과 분석.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경남(2001). 학령기 아동의 자기통제에 대한 내외통제 소재와 어머니의 양육행동의 인과모형. 대한가정학회지, 39(12), 37-50.
- 이기학(1997). 고등학생의 진로태도 성숙과 심리적 변인들과의 관계: 자아존중감, 직업가치, 내외통제성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미경(2009). 청소년 자녀가 지각한 부모양육 행동과 자기분화 및 내외통제성향 연구. 상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민수(2000). 가족응집력과 자아분화가 공감과 스트레스대처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민영·김광웅(2011). 초기청소년이 지각한 부모행동 통제특성과 내외통제소재 및 친구간 갈등 해결전략. 청소년학연구, 18(2), 193-218.
- 이송자(2012). 대안학교 청소년의 초기 부적응도식과 청소년기 애착, 갈등해결전략과의

- 관계. 전북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수옥(2006).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 내외통제성향 및 대인불안의 관계.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수진·안경식(2010). 청소년의 자의식과 정서조절양식이 또래 간 갈등 해결전략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7(5), 150-170.
- 이은주(2001). 청소년이 지각한 자아분화 수준 및 부모양육태도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은혜·고윤주·오원정(2000). 청소년기 친구에 대한 만족감과 친구의 지원 및 갈등해결.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3(3), 105-121.
- 이은희(2008). 청소년의 자아분화가 대인관계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갈등해결전략의 매개효과.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정주(2011). 중학생들의 가족스포츠 여가활동 참가에 따른 갈등해결 전략과 인터넷 게임 중독 성향 및 학교생활 적응의 관계. 선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지민(2010). 중학생의 인터넷 중독, 자아존중감, 자아통제, 공격성간의 관계구조. 한국생활과학회 학술대회, 10(5), 132-133.
- 이현주(1993). 부부의 자아분화 정도와 갈등대처 행동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희영·천태복(2005). 학년 및 성별과 부모의 양육행동에 따른 청소년의 또래 갈등해결 전략. 수산해양교육연구, 17(2), 228-239.
- 정경연(2007). 부모 및 자녀의 자아분화수준과 아동이 지각한 세대 간 가족 관계가 아동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정미란(1994). 청소년의 발달시기에 따른 자아분화와 정신건강과의 관계.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유선(2003). 자기효능감, 목표지향성, 내외통제소재간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은주·손진훈(1981). 학생용 내외통제소재 제작연구. - Nowicki와 Strickland(1973)의 척도를 중심으로-. 한국행동과학연구소, 10(2), 통권 109호.
- 제석봉(1989). 자아분화와 역기능적 행동의 관계: Bowen의 가족체계이론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조선희(2006). Rotter와 Glasser의 내외통제성향이 청소년의 정신건강과 심리적 및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성현(2012). 청소년의 자아분화와 인지적 정서조절이 갈등해결전략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채경미(2009). 외동아·형제아의 내외통제소재에 따른 친구 간 갈등해결전략의 차이.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연우(2010). 청소년의 자아분화수준이 스트레스 대처에 미치는 영향 -자아정체감의 매개효과.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외선·문기라(2004). 청소년의 내외통제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관한 연구. 부모교육연구, 1(2), 149-165.
- 최유진·유계숙(2007).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자녀간 의사소통과 자아존중감, 친구간 갈등해결전략이 교우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지, 25(3), 59-75.
- 최은희(1998). 청소년의 내외통제성과 도덕적 판단에 관한 연구: 비행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을 중심으로. 서강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인재(2009). 가족체계유형과 청소년의 자아분화 및 심리, 사회적 적응간의 관계 -가족응집성의 문화적 특성을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16(4), 1-23.
- 하유진(2007). 자아존중감 및 내외통제성과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하지원(2004). 아동이 지각한 가족관계 및 정서조절능력이 친구 간 갈등해결전략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동현(2012). 부모의 양육태도와 공격성의 관계: 자아분화의 매개효과. 상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한신애·민하영(2011). 중학교 청소년의 부모 간 갈등과 자아분화 간 관계에서 특질불안이 미치는 매개 효과. 한국보육지원학회지, 7(3), 125-141.
- 한정아(2005). 대학생의 자아분화와 스트레스 대처방식: 부정적 기분조절 기대치를 매개변인으로.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허미란(2012). 자아존중감 및 통제소재와 환경행동의 관계 : 초등학교 5, 6학년을 중심으로. 서울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황현선(2010). 부의 양육태도가 청소년 자녀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갈등해결전략의 매개효과.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Baron, R. M., & Kenny, D. A.(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of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al and statistical concider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ical*, 51(6), 1173-118.

- Bowen, M.(1976). *Family therapy in clinical practice*. New York: Jason Aronson.
- Branje, S. J. T., van Doorn, M. D., van der Valk, I., & Meeus, W. H. J.(2009). Parent-adolescent conflict, conflict resolution, and adolescent adjustment.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30(4)*, 195-204.
- Cannary, D. J., Cupach, W. R., & Messman, S. J.(1995). *Relationship conflict: Conflict in parent-child, friendship, and romantic relationships*. London: Sage Publicationl Dissertation. Ohio State University.
- Chub, N. H., Fertman, C. I., & Ross, J. L.(1997). Adolescent self-esteem and locus of control: A longitudinal study of gender and age differences. *Adolescence, 32*, 113-129.
- Cohen, Esther, Sade, Michal, Benarroch, Fortu, Pollak, Yehuda & Gross-Tsur, Varda (2008). Locus of control, perceived parenting style, and symptoms of anxiety and depression in children with Tourette's syndrome. *European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17(5)*, 299-305.
- De Goede, I. H. A., Branje, S. J. T., & Meeus, W. H. J.(2009). Developmental changes in adolescents' perceptions of relationships with their parent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8*, 75-88.
- Durbin, J., & Watson, G. S.(1950). Testing for Serial Correlation in Least Squares Regression: I. *Biometrika 37, 3(4)*, 409-428.
- Elizabeth A, Lemerise, & William F. Arsenio(2000). An Integrated Model of Emotion Processes and Cognition in Social Information Processing. *Child Development, 71(1)*, 107-118.
- Elizabeth A. Skowron, & Krystal L.(2009). A Longitudinal Perspective on Differentiation of Self, Interpersonal and Psychological Well-Being in Young Adulthood. *Contemp Fam, 9(31)*, 3-18.
- Fonzi, A., Schneider, B. H., Tani, F., & Tomada, G.(1997). Predicting children's friendship status from their dyadic interaction in structured situations of potential conflict. *Child Development, 68*, 496-506.
- Gabelman, Emily(2012). The Effects of Locus of Control and Differentiation of Self on Relationship Satisfaction. *Honors Research Thesis, 14(2)*, 145-159.
- Hartup, W. W., French, D. D, Laursen, B., Johnston, M. K., & Ogawa, J. R.(1993).

- Conflict and friendship relation in middle childhood Behavior in closed-feild situation. *Child Development*, 64, 445-454.
- Hyejeong Chung. & Jerry Gale(2006). Comparing Self-differentiation and Psychological Well-being between Korean and European American Students. *Contemporary Family Therapy*, 28(3), 367-381.
- Kee, T. T. S.(2005). A cultural interpretation of locus of control, family and school experience, and school truancy: The case of Hong Kong. *International Journal of Adolescence and Youth*, 124, 329-349.
- Landau, R.(2000). Locus of Control and socioeconomic Status: Does Internal Locus of Control Reflect real Resources and Opportunities or Personal Coping Abilities?. *Social Science Satisfaction and Medicine*, 41(11), 216-224.
- Lewis, S. K., Ross, C. E., & Mirowsky, J.(1999). Establishing a sense of personal control in the transition to adulthood. *Social Forces*, 77, 1573-1599.
- Megan Spokas, & Richard G. Heimberg(2009). Overprotective Parenting, Social Anxiety, and External Locus of Control: Cross-sectional and Longitudinal Relationships.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33(6), 543-551.
- Mendelson, M. J., Goldbaum, S., & Semeniuk, J.(1995). *Handling Disagreements Questionnaire*. Mc Gill University, Montreal, Quebec.
- Muriel D. Van Doorn, Susan J. T. Branje, & Wim H. J. Meeus(2011). Developmental Changes in Conflict Resolution Styles in Parent-Adolescent Relationships: A Four-Wave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40(1), 97-107.
- Nelson, G. M.(1987). Support for the aged: Public and private responsibility. *Social Work*, 27, 137-143.
- Nesselroade, J. R., Musher-Eizenman, D. R., & Schmitz, B.(2002). Perceived control and academic performance: A comparison of high and low-performing children on within-person change patterns.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26(6), 540-547.
- Newcomb, A. F., & Bagwell. C. L.(1996). *The developmental significance of children's friendship relations*. In W Bukowski, A F. Newcomb, & W. W. Hartup(Eds.). *The company they keep Friendship childhood and adolescence*.

-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Nowicki, S., & Stickland, B.(1973). *A locus of control scale for children. Journal of and clinical psychology, 40*, 148-153.
- Rahim, M. A.(1983). A measure of style of handling interpersonal conflict.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26*, 368-376.
- Romana C. Krycak, Nancy L. Murdock, Jacob M. Marszalek(2012). Differentiation of Self, Stress, and Emotional Support as Predictors of Psychological Distress. *Contemporary Family Therapy, 34(4)*, 495-515.
- Ross, H. S.(1982). The social nature of early conflict. *Child Development, 53*, 105-113.
- Rotter, J. B.(1966). Generalized expectancies for internal versus external control of reinforcement. *Psychological monographs, 80(1)*, 1-28.
- Shanahan, L., McHale, S. M., Osgood, D. W., & Crouter, A. C.(2007). Conflict Frequency With Mothers and Fathers From Middle Childhood to Late Adolescence: Within- and Between-Families Comparisons. *Developmental psychology, 43(3)*, 539-550.
- Skowron, E., Stanley, K., & Shapiro, M.(2009). A Longitudinal Perspective on Differentiation of Self, Interpersonal and Psychological Well-Being in Young Adulthood. *Contemporary family therapy, 31(1)*, 3-18.
- Sobel, M. E.(1982). Asymptotic intervals for indirect effects in structural equations models. In S. Leinhardt (Ed.),San Francisco: Jossey-Bass, *Sociological methodology 1982*, 290-312.
- Spokas, Megan, Luterek, Jane A. & Heimberg, Richard(2009). Social anxiety and emotional suppression: The mediating role of beliefs. *Journal of Behavior Therapy & Experimental Psychiatry. 40*, 283-291.
- Thompson(1999). *The impact of conflict resolution education on participating students and their families: A qualitative case study*. Doctoral Dissertation. Ohio State University.

〈Abstract〉

The effects of self-differentiation and locus of control on conflict resolution strategies in peer friendships in middle school students

Choo, Hyo Seoung · Hong, Hye Young

Gumchon Counseling and Welfare Center for Youth, Myongji University

This study attempted to verify the mediating effect which middle schoolers self-differentiation and locus of control materials has solution of conflict strategy between friends. For this, a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to 424 middle schoolers in Seoul and Gyeonggi, 424 of them (males 209, females 215) were used from analysis. Measuring tools used self-differentiation, locus of control on conflict resolution strategies in peer friendships. To explore the relation between each variable, correlation analysis and a mediating effect analysis through Baron and Kenny(1986) were conducted.

The results of the gathered data showed that cooperation and compromise strategy, and control strategy of self-differentiation and locus of control and showed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and concession showed a significant negative correlation. Second, self-differentiation, on conflict resolution strategies in peer friendships, showed a significant effect in cooperation, compromise, control and concession strategy, locus of control, on conflict resolution strategies in peer friendships, showed a significant effect on cooperation, compromise, control and concession strategy. Third, self-differentiation and locus of control, on conflict resolution strategies in peer friendships, indicated a partial mediating effect in cooperation, compromise, control. Thus, the study showed that locus of control is a mediating factor having an effect on self-differentiation and on conflict resolution strategies in peer friendships. Based on this result, this study suggested a need of research into making clear the variable on self-differentiation and locus of control, and discussed a precedent study on the analyzed results and presented suggestions on the scene of youth counselling, limits and subsequent study.

Key words : self-differentiation, locus of control, conflict resolution strategies in peer friendships

가족놀이치료를 적용한 아동양육시설의 아동과 양육자 간의 상호작용 사례연구

김효정* · 선우현
명지대학교

본 연구는 가족놀이치료를 적용하여 아동양육시설의 아동과 양육자 간의 경험된 상호작용 변화를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고 실시되었다. 연구방법은 Moustakas(1994)가 제안한 현상학적 분석방법을 적용해 사례를 분석하였으며, 상호작용의 변화를 평가하기 위해 사전·사후 가족 협동화를 실시하였다. 참여대상은 아동양육시설의 만3세부터 14세까지의 아동과 그 아동들을 담당하고 있는 양육자이다. 연구의 결과는 첫째, 가족놀이치료를 아동양육시설의 아동과 양육자 간의 상호작용에 친밀감을 형성하여 긍정적 인식변화를 이끌었다. 둘째, 가족놀이치료를 아동양육시설의 아동과 양육자 간의 유쾌하고 즐거운 정서적 상호작용을 증진시켜 긍정적 정서촉진을 이끌었다. 셋째, 가족놀이치료를 아동양육시설의 아동과 양육자 간의 공감적 상호작용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긍정적 관계형성을 이끌었다. 이와 같이 가족놀이치료를 아동양육시설의 아동과 양육자 간의 긍정적 상호작용 변화를 이끌어 내는데 효과적임을 시사한다.

핵심어 : 가족놀이치료, 아동양육시설의 아동과 양육자, 아동양육시설의 아동과 양육자 간의 상호작용

* 교신저자: 김효정(hjmmsd12@hanmail.net)

■ 게재 신청일 : 2015년 7월 31일 ■ 최종 수정일 : 2015년 8월 24일 ■ 게재 확정일 : 2015년 8월 26일

I. 서론

아동이 태어나면 가정이라는 안전한 울타리에서 부모와 관계를 형성하고, 욕구를 충족 받으며 사회에서 건강하게 상호작용 할 수 있도록 보호, 교육 받을 권리를 가지게 된다. 그러나 일부 아동들은 부모가 생존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이혼과 가출, 별거, 경제적 어려움과 외부 환경의 요인으로 가정해체를 경험하거나 부모로부터 학대 받아 보호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 이와 같이 부모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아동들이 그렇게 되지 못하였을 때, 가정위탁보호와 입양양육이 우선시 되고, 이것 또한 어려운 아동들은 대부분 아동양육시설에 입소하여 보호받게 되며 그 수도 상당하다(신혜령, 안혜영, 김성경, 문성윤, 2002). 아동양육시설의 아동 현황을 살펴보면(보건복지부, 2015), 1997년 3,928명, 2000년 4,481명, 2005년 4,818명, 2010년 4,842명, 2014년 2,900명으로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보호받는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끼치는 아동양육시설의 역할은 여전히 중요하다(노병일, 김주연, 2008).

아동양육시설에서 보호되고 있는 아동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아동양육시설에 입소하기 전까지 경험했던 여러 가지 환경적, 물리적 어려움으로 심리·정서·사회적인 문제를 가지게 된다고 보고하고 있다(김명성, 2011).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양육시설 아동의 보호자 역할을 감당하는 양육교사의 경우, 양육교사 한 명이 10명이상의 많은 아동들을 양육해야 하기 때문에 개별적인 안정적 유대관계를 갖기 어려우며, 가정과 같은 깊은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어려워 안정적인 애착을 경험하는 것이 쉽지 않다(송영혜, 박진희, 2000). 이러한 특성은 아동양육시설에 거주하는 아동들의 발달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며, 함께 생활하는 아동들에게도 정서적인 어려움을 동반하여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할 대상이 적고 바람직한 사회적 기술을 학습할 모델이 부족하게 된다(권세은, 이순형, 2002). 이에 아동양육시설 아동의 발달적인 측면에 관련된 선행연구들의 공통된 특징들을 살펴보면, 아동양육시설의 아동은 부모로부터 분리된 슬픔, 부모의 유기로 인한 분노와 불안감, 긍정적 정체감의 결핍, 위기감, 낮은 자존감의 발달, 가족과의 지속적인 유대욕구, 낮은 정서적 조망능력 등이 보고되었다(양승연, 오정란, 권지성, 2012). 이와 같이 아동양육시설의 아동들은 함께 생활하고 있는 아동들과의 관계에서도 자신의 정서를 표현하고 다른 아동들의 정서를 이해하는 능력이 취약할 것으로 예측되며, 함께 생활하는 아동들과 그 아동을 담당하는 양육자와의 상호작용 또한 충분히 이루어지는데 어려움을 갖는다(김현자, 한성심, 서명원, 2008). 이러한 어려움은 건강한 정서를 발달시키는 것이 중요한 아동의 시기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가족놀이치료는 이러한 아동양육시설의 아동과 그 아동을 담당하는 양육자의 관계와 같이 자신의 정서와 어려움을 표현함에 있어 어려움을 겪는 대상에게 놀이를 통해 자발적으로 치료에 참여할 수 있게 한다. 또한 가족의 은밀함을 드러내게 하고, 정서적 상처에 직면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성인에게도 은유적인 방법으로 자신을 표현할 수 있도록 돕는다(김광웅, 유미숙, 유재령, 2010). 즉, 자연스러운 놀이는 말로 표현하지 못했던 갈등이 드러나고, 참여하는 사람의 감정과 생각이 드러나게 된다(선우현, 2007b). 또한 가족의 놀이는 가족의 역동성을 드러내고, 의사소통 방식과 기능을 이해하게 하며, 부모가 자녀의 문제에 대한 통찰을 얻어 새로운 해결책을 조성할 수 있게 한다(선우현, 2006). 김유숙(2006)의 연구는 아동양육시설의 아동과 비슷한 상황인 재혼가정을 대상으로 가족놀이치료를 실시하여 의미하는 바가 크다. 재혼가정의 가족놀이치료는 가족 내 유대감을 증가시키고, 가족의 문제를 예방하며 의사소통이 개선된 효과를 밝혔다. 또한 한유진, 노남숙(2014)의 연구를 통해 애착문제를 경험하는 아동들에게 가족놀이치료는 정서와 행동 문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확인되었고, 이승희, 윤호열(2007)의 연구에서 ADHD 아동의 가족놀이치료는 주의 산만, 충동성, 과잉행동을 감소시키는데 효과를 보였음을 입증하였다. 이현주(2010)의 연구 또한 ADHD 아동에게 가족놀이치료는 가족 간의 친밀감을 증진시키고,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주었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선우현(2007a)의 연구에서는 정서 및 행동장애 아동에게 가족놀이치료는 문제행동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보였고 가족의 유대감을 증가시키며 부모와 자녀간의 건강한 상호작용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준다고 보고하였다. 이처럼 가족놀이치료는 가족 내 어려움을 겪는 가족구성원에게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제공한다.

가정에서 제대로 된 양육과 보호를 받지 못한 아동을 담당하는 아동양육시설과 그 양육자는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위한 가정과 부모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배진희, 2007). 이에 아동양육시설 양육자의 지지는 일반가정아동의 부모의 지지 역할만큼이나 중요하다(김수정, 김영미, 이화명, 2013). 전규용(2003)의 연구에서도 아동양육시설의 아동이 아동양육시설 가운데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시설 내의 양육자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고민 상담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 또한 아동양육시설의 양육자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최영주(2001)는 아동양육시설 양육자의 수용적이고 자율적인 양육태도는 아동양육시설 아동의 자아정체감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고하였다. 이와 같이 부모와의 분리와 상실을 경험한 아동에게 새로운 아동양육시설의 양육자와 관계는 매우 중요하다. 아동양육시설의 아동과 양육자 간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의 중요성은 연구들을 통해 증명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아동양육시설의 아동과 양육자와의

상호작용과 관련된 치료적 개입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앞에서 언급 하였듯이 심리적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아동양육시설의 아동에게는 개인적 치료 과정보다도 가족 전체와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경험할 수 있는 가족놀이치료가 유용한 치료방법이 된다. 또한 아동양육시설의 양육자와 그 외의 함께 생활하는 아동들까지 놀이에 참여하여 상호작용을 경험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며 효과적인 치료방법이 될 것이다. 그러나 가족놀이치료에 대한 연구는 꾸준히 진행되고 있지만 이러한 특수성을 지닌 가족에 대한 다양한 연구는 매우 드물고 찾아보기가 힘들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가족의 친밀감과 유대감이 낮고, 관계형성에 어려움을 갖는 아동양육시설의 아동과 양육자에게 가족놀이치료를 실시하여 상호작용에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사례분석하고자 하며 더불어 사전·사후 가족협동화를 통해 상호작용의 변화를 효과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가족놀이치료가 일반 가정 뿐 아니라 아동양육시설 아동과 양육자, 입양가정 및 재혼가정 등에 더 많이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는 아동양육시설의 아동과 아동양육시설의 양육자를 대상으로 가족놀이치료를 실시하여 사례를 분석하고 효과성을 검증하고자 하며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아동양육시설의 아동과 양육자 간의 상호작용에는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는가?
 연구문제 2. 아동양육시설의 아동과 양육자 간의 사전·사후 가족 협동화에 나타난 상호작용에는 어떠한 변화가 있는가?

Ⅱ. 이론적 배경

1. 아동양육시설의 아동

보건복지부 아동분야 사업안내(2015)에 따르면 아동양육시설의 아동은 아동복지법 제 15조에 의거하여 보호자가 존재하지 않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 및 학대로 특별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그 환경에서 분리하여 부모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시설에서 생활하게 되는 아동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발생 원인으로는 미혼모 아동, 학대, 부모이혼, 비행·가출·부랑, 부모사망, 부모의 빈곤과 실직 순이며(보건복지부, 2015) 아동의 수는 꾸준히 발생되고 있다.

아동양육시설에 입소한 아동은 건강한 양육환경을 제공받지 못했던 원 가정에서 벗

어나 집단생활을 시작하게 된다. 아동양육시설은 아동에게 적합한 교육 및 생활 서비스를 제공하며 다양한 경험을 통해 능력을 성장시키고 발휘하도록 돕는다. 하지만 일반가정과 다른 형태로 깊은 인간관계를 형성하거나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아동양육시설에 거주하는 것만으로도 사회적으로 낙인찍히며, 낮은 자존감과 두려움, 열등감을 가지게 될 가능성이 있고 유연성과 개성을 상실하게 된다(김선희, 2002). 또한 아동의 정상적인 성장과 발달을 이루기 위해 다양한 자원들이 요구되나 아동양육시설은 지속적인 안정감을 제공할 양육자의 부재로부터 사회정서발달에 어려움을 갖게 된다(성미영, 설경옥, 2012).

아동양육시설의 아동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일반아동과 전반적인 발달 면에서 차이를 보이고 발달 수준이 낮으며 부정적인 정서와 문제행동을 더 많이 경험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Spitz(1945)는 오랜 기간 동안 아동양육시설에서 거주하는 아동들은 일반 육아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보다 신체발달과 지능이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상태를 보였고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을 ‘시설병’이라고 명하였다(성영혜, 김영진, 1997 재인용). 김보람, 이경숙, 박진아 및 이지성(2008)은 일반아동에 비해 아동양육시설의 아동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충동 조절이 어렵고, 긍정적인 인식이 낮게 나타나며 과잉행동문제를 더 많이 보인다고 하였다. 박미경, 문혁준(2009)은 일반아동에 비해 정서지능 점수가 낮게 나타나며 사교성, 대인적응성, 사회참여도, 주도성, 사회적 능력 전체가 낮다고 보고하였고, 권세은, 이순형(2002)은 협동 기술, 자기주장 기술이 부족하고 이는 또래관계에도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으며 학교적응수준 또한 낮다고 보았다. 성미영(2006)은 일반가정아동에 비해 부정적인 정서를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외현화 된 행동문제 또한 높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아동양육시설의 아동은 환경적인 결핍으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에 Bowlby(1986)는 아동양육시설 아동의 문제행동 원인을 모성결핍으로 보았고(한성김, 하승민, 윤혜미, 2012 재인용), Thoburn(1994)은 친부모와의 분리를 경험한 아동양육시설의 아동이 건강 발달을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한 사람과의 지속적인 관계가 형성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권세은, 이순형(2002)은 아동양육시설의 양육자가 10명 이상의 아동들을 돌봄으로 인해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하기가 어렵고, 사회적 기술을 가르칠 모델의 부족으로 아동의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또한 이진숙, 한지현(2006)은 정서적 지지가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는 아동양육시설의 아동은 일반아동에 비해서 문제 행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고하였다. 즉, 아동양육시설의 아동은 부모로부터의 분리와 단절 경험, 획일화된 집단생활로 가정과 같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이는 건강한 인간관계 형성 및 아동 발달상의 지체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2. 아동양육시설의 아동과 양육자의 상호작용

친부모와 함께 성장하는 것이 아동에게 최고의 양육환경이지만 부모의 이혼, 사망, 질병, 학대, 실직 등의 다양한 이유로 가정이 해체되고 친부모가 아동을 양육할 수 없는 환경의 경우 아동과 부모는 분리되어 생활하게 된다. 이때 친부모의 환경과 가장 가깝고 친숙한 조부모에게 양육이 위탁되기도 하고, 가정위탁, 국·내외 입양, 시설의 보호 등으로 돌봄과 양육을 제공받게 된다.

조손가정의 아동들은 조부모와의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과 새로운 환경에 대한 적응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또한 조부모의 심리 및 정서 상황에 따라 아동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것은 아동의 여러 문제 행동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한편 건전한 가정적 분위기에서 보호 받도록 가정위탁을 하게 되는데 위탁가정의 아동 또한 갑작스럽게 친부모와 단절을 경험하고 부모로부터 격리된 상황에 대해 심리적인 박탈감, 배척, 불신 등으로 정서적인 어려움을 갖는다. 그 외에 국·내외 입양으로 아동보호시설에서 생활하였다가 친부모가 아닌 다른 제 3의 양육자로부터 입양되어 돌봄과 양육을 받게 되고 성장하게 된다. 입양 아동은 생애 초기 애착관계를 형성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양육 과정에 있어 많은 어려움을 가지게 되며, 아동에게 친부모와의 단절 경험은 안정적인 애착을 저해하게 돼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형성하는데 어려움을 준다(김윤경, 2012).

앞에서 살펴본 조부모 가정과 위탁가정, 입양가정의 양육자와 그의 아동들의 관계는 모두 친부모와의 단절을 경험하고 새로운 가정에서 상호작용하며 적응해 나가게 된다. 아동양육시설의 양육자 또한 제 3의 양육자로서 비슷한 양육 형태, 관계를 맺게 된다. 즉, 아동양육시설의 양육자는 아동에게 새로운 양육자가 되어 부모의 역할을 대신하게 되고, 함께 생활하는 다른 아동들과는 형제관계를 이루며, 일반 아동의 가족과 같이 아동양육시설 안에서 가족을 이루게 된다(양점도, 변미희, 2001). Goldstein(1979) 또한 아동 자신의 신체 및 정서적 욕구를 장기적으로 충족시켜주는 성인에게 애착을 형성할 수 있음을 인정하며 ‘심리적 부모(psychological parenting)’의 개념을 제시하였다(정선숙, 2006 재인용). 이러한 관계 속에서 아동양육시설의 양육자는 아동에게 적절한 보건과 위생, 안정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사회활동, 오락 등을 제공할 역할이 요구된다(강복정, 이정덕, 1999). 또한 부모로써 필요한 예절교육과 생활지도, 학습지도의 역할을 감당

하고(신혜숙, 2009) 아동이 자연스럽게 인간관계를 맺고 사회적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도우며,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이은영, 황혜원, 김현진, 2011). 이와 같이 아동양육시설에서의 가족은 일반가정과 생성되는 과정에서 차이가 있지만 가족의 정서를 바탕으로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가족구성원과 상호작용을 이루어 간다. 이러한 상호작용 속에서 아동의 문제행동은 일반가정과 같이 양육자에게 어려움을 경험하게 하고, 양육 태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아동양육시설의 양육자가 아동에게 부모를 대신하는 존재로서 애착관계를 형성할 경우 아동은 긍정적인 자아상과, 대인관계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정선옥, 2006). 이처럼 아동양육시설의 아동과 양육자 간의 상호작용은 아동의 발달적인 측면에 있어 일반 및 다양한 구조의 가족 특성과 비슷하며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아동양육시설의 아동에게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할 양육환경의 필요성에 부합하여 함께 거주하고 그 안에서 애착을 형성하는 아동양육시설의 아동과 양육자를 하나의 가족구성원으로 설정하고 가족놀이치료를 실시하여 상호작용에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는지 사례를 연구하고자 한다.

3. 가족놀이치료

가족놀이치료란 가족치료와 놀이치료를 조합한 것(Griff, 1983)으로 가족치료의 체계론적 관점과 놀이치료의 기법을 통합한 치료형태이다. 즉, 가족을 대상으로 한 심리치료 상황에 치료적 놀이와 활동을 적용하여 개입하는 심리치료 방법으로 가족치료와 놀이치료를 접목한 것이다(박진희, 2014). 이에 부모와 아동 그리고 치료자 모두가 놀이에 함께 참여하는 형태로 가족의 역동과 변화를 창출하도록 한다(유가효, 위영희, 문현주, 이희정, 김태은, 2010). 이것은 또한 가족 내 의사소통과 상호작용의 어려움을 겪는 부모와 자녀에게 자연스러운 놀이를 활용해 치료적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단기적 기법이다(선우현, 2007b). 가족놀이치료에서는 손 인형, 미술도구, 블록, 인형의 집 등을 이용해 비형식적이고 즉흥적인 방식의 자발적인 놀이로 창조적이고 표현 활동에 집중하게 한다. 따라서 아동이 가족과 나눌 은밀한 이야기를 가족놀이의 은유를 통해 가장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한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가족놀이치료를 통해 자녀들이 부모에 대해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알게 된다(김광웅 외, 2010). 또한 감정 표현이 서툴고 상처나 외로움에 직면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부모에게는 언어적인 직면보다 덜 위협적이고 안전한 방법으로 자신의 어린 시절의 정서적 기억 또는 무의식에 내재된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돕기도 한다(유가효 외, 2010). 또한 놀이의 본질인 가상놀이를

반복하여 가족이 효과적이고 풍부한 소통을 경험할 수 있게 한다(박진희, 2014). 따라서 가족 모두 편안한 상황 속에서 참여를 촉진하고 놀이를 통해 가족의 규칙이나 역할, 관습과 같은 숨겨진 가족의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다루며 가족체계의 변화를 높여간다(김광웅 외, 2010). 이와 같이 가족놀이를 통해 가족의 갈등과 관계를 상징적으로 인식할 수 있게 되며 부모와 자녀 관계의 관찰이 가능해 가족에 대한 이해가 증가한다. 따라서 가족놀이치료는 가족 전체의 문제를 깊이 통찰하도록 하며 부모의 참여로 치료기간이 단축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Eaker, 1986). 또한 의사소통과 역기능적인 체계를 이해하고, 가족 문제에 대해 새로운 해결책을 이끌어 내는 창조적 수단이 되기도 한다(Carey, 1999; 선우현, 2007c 재인용). 최근 가족놀이치료에는 구조화된 전략적 가족놀이치료, 역동적 가족놀이치료 그리고 가족놀이치료 기법을 다양하게 접목시킨 통합적 가족놀이치료 기법들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전략적 가족놀이치료 기법은 주로 가족치료이론들, 정신분석 및 놀이치료 이론들에 근거하여 놀이와 가족에 대한 연구에 기원을 둔 개념 및 방법들을 광범위하게 종합하여 구성되었다(선우현, 2007c). 이 치료기법은 가족원들이 가상놀이 속에서 가족원들 간 상호작용과 갈등을 위협적이지 않게 구성하도록 한다. 이에 치료자는 가족이 위계질서를 가지고 적절한 경계선을 유지하여 기능할 수 있도록 돕고, 현재 문제를 형성하는 가족의 역기능적인 가족 규칙, 질서, 상호작용 패턴 등을 규명해 내는 것을 치료적 목표로 둔다(김광웅 외, 2010). 여기에 사용되는 방법은 손 인형 면접, 가족조각, 가족 협동화, 집 만들기 등의 기법이 있고, 주로 가상놀이와 관련된 다양한 기법을 사용하게 된다(유가효 외, 2010).

역동적 가족놀이치료는 창조적인 상호관계와 친밀감 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창의적인 문제해결, 인본주의적 접근법, 애착이론, 놀이에서의 치료적 힘 등을 이론적 모델로 기초한다(김광웅 외, 2010). 이것은 성인들도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고 해석이 쉬운 놀잇감을 사용하게 되는데 주로 손 인형, 인형의 집, 미술 도구 또는 블록 등으로 참여가 쉽고, 의미를 이해하기 쉬운 것으로 한다. 이에 역동적 가족놀이치료는 가족원들이 자연스럽게 놀이에 참여하여서 창조적인 표현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치료방식이다(선우현, 2013). 그리고 놀이 속에서 가족원들 간의 어려움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가족이 놀이에 참여하여 표현적 추진력을 형성하고, 가족원들이 극적인 상호작용 놀이를 할 수 있도록 촉진한다. 역동적 가족놀이치료 방법은 4가지로 나열할 수 있으며 첫째, 자녀의 발달단계에 따라 부모와 자녀가 함께 놀이하도록 한다. 둘째, 치료자는 관찰을 통해 가족의 상호작용 패턴, 은유, 놀이 주제 등을 평

가하여 치료에 대한 계획을 설립한다. 셋째, 부모와의 피드백으로 부모의 인식을 촉진한다. 마지막으로 각 회기별로 역동적 가족놀이치료를 반복하여 사용하며 문제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수정하고 있는지 확인 하도록 한다(선우현, 2013).

가족치료놀이는 치료놀이의 애착이론에 원리를 두고 있으며, 부모와 자녀를 함께 회기에 참여시켜 건강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거나 조율하도록 하는 데 목표를 둔다(John Wiley & Sons, 2011). 이것은 관계에 초점을 둔 매력적이고 즐거운 놀이로 개입하여 상호작용적이고 재미있다. 치료놀이의 구조, 도전, 개입, 양육의 활동들은 부모가 자녀들을 돌보는 데 초점을 맞춰, 지지적인 가족관계를 형성할 수 있게 함으로써 가족의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이 된다(최순옥, 2006). 또한 부모의 능력을 강화시키고, 즐거운 활동을 연습하고 기회를 제공하여 가족의 상호작용의 패턴이 바뀌게 될 수 있다는 효과가 있다(Jernberg, 1979; Jernberg & Booth, 1999; 김효선, 2011 재인용).

본 연구는 위에서 소개된 전략적 가족놀이치료, 역동적 가족놀이치료, 가족치료놀이 기법들 중에서 전략적 가족놀이치료 기법과 가족치료놀이 기법을 중심으로 가족놀이치료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이에 전략적 가족놀이치료의 가족평가를 실시하여 아동양육시설의 아동과 양육자 간의 상호작용을 파악하고자 하였고, 애착의 상실을 경험한 아동양육시설의 아동에게 따뜻하고 수용적이며 즐거운 상호작용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족치료놀이 기법을 활용한 가족놀이치료 프로그램을 완성하였다.

4. 선행연구

아동양육시설 아동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들은 다양한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통해 치료의 효과성을 검증하는 연구가 주로 시행되었다. 놀이치료 기법을 적용한 선행연구는 아동에게 긍정적인 행동변화를 보였고 그 효과성은 다음과 같이 증명되고 있다.

양숙미, 임원신 및 최미옥(2005)은 10-11세의 아동양육시설 아동에게 아동중심놀이치료를 실시하여 우울과 공격적 정서가 유의미하게 감소한 것을 볼 수 있었다. 김춘경, 김기영(2004)은 집단 놀이치료를 경험한 아동은 공감, 협동성, 주장성, 자기 조절의 점수가 상승하였음을 밝히며 집단놀이치료가 아동의 사회적 기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하였다. 송영혜, 박진희(2000)는 정서적 불안 및 감정통제의 어려움을 보이는 아동양육시설의 아동에게 16회기 게임놀이치료를 적용하고 아동의 언어 표현, 감정통제가 증가하고 긍정적 상호작용과 함께 또래관계 형성이 가능해졌다는 효과성을 검증해냈다. 심희옥(2011)은 초등학교 4학년 남학생의 모래놀이치료 사례연구를 통해 아

동의 새로운 자각이 형성되었고, 분노, 억압, 부적응, 위축 등으로 행동 규제의 어려움이 자유로워졌음을 보고하였다. 이와 같이 아동양육시설 아동의 심리적 어려움으로 나타났던 우울과 불안, 사회성, 학교 적응, 감정 조절 등의 심리적 문제가 놀이치료를 경험하여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음을 입증하고 있으나 그 수요는 매우 미비하다.

아동양육시설의 아동과 밀접하게 연관된 아동양육시설의 양육자는 직무만족과 관련해 선행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최성수(2009)의 연구에서 양육자의 직무만족에는 아동의 지지가 직무만족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고 직무만족에 주된 원인이 되나 아동양육시설 내에서 아동과 끊임없이 갈등관계로 인해 심리적인 소진을 겪고 있다고 보고하였으며 양승미(2010)는 아동양육시설의 양육자의 직무만족은 연령, 직원의 수, 돌보는 아동의 수, 상급자와의 관계 및 보수, 직원개발 등으로 만족감의 정도가 다르지만 특히 아동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아동양육시설의 아동과 양육자의 상호작용과 관련된 선행연구에서도 박영준(1997)은 아동양육시설의 아동에게 보육사의 태도 및 시설 내 아동과의 관계는 학업성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양점도, 변미희(2001)는 아동양육시설의 양육환경이 정서적이고 사회적인 성숙을 촉진 할수록 사회 능력과 자아존중감이 더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타났다. 또한 최종훈(2011)은 아동양육시설의 양육자와의 좋은 관계를 가진 아동양육시설의 아동일수록 정신 건강이 높았고, 노혜련, 장정순, 배은형(1997)은 아동양육시설의 아동이 아동양육시설의 양육자가 자신을 이해하고 있다고 지각할 경우 시설에 대해 높은 만족도를 보인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준의(1998)는 대부분 양육자가 감당해야 할 아동의 수는 10명 이상이며, 과중한 업무로 아동을 양육함에 있어 애정적이고 자율적인 양육태도 보다는 권위적이거나 통제적인 양육태도를 갖게 된다고 하였다. 또한 정선옥(2002)은 이러한 어려운 직업 환경 가운데 양육자의 잦은 교체가 나타나고, 이는 지속적이고 따뜻한 사랑의 관계를 형성해야 하는 아동들에게 많은 어려움을 갖게 한다고 하였다. 이은영 외(2011)는 아동양육시설의 아동과 함께 보내는 시간 동안 긴밀한 정서적 교류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를 통해 직무에 만족감을 느끼게 되며, 최성수(2009)는 아동의 지지를 많이 받는 것이 직무만족에 주된 원인이 되지만 대부분의 아동양육시설 양육자는 아동양육시설 아동과의 관계에서 끊임없이 갈등하고 심리적인 소진을 겪는다고 보고하였다.

가족놀이치료는 이러한 가족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효과적이며 선행연구들을 통해서 그 효과성이 입증되고 있으며 다음과 같다. 이승희, 윤호열(2007)은 산만한 아동에게 가족놀이치료는 주의산만, 충동성, 과잉행동을 감소시키는데 효과가 나타났고, 가족의

기능을 개선시킨다고 하였다. 박재훈, 선우현(2012)은 희귀난치성질환 가족을 대상으로 한 가족놀이치료는 긍정적인 의사소통 및 감정의 변화를 보이며, 상호작용에 있어 가족 간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음을 밝혔다. 정현아, 선우현(2012)의 맞벌이 가정의 가족놀이치료 적용은 부모와 자녀의 상호작용에 있어 정서적 접촉, 주고받기, 지지와 수용을 경험하게 하여 정서적인 상호작용을 활발하게 하는데 촉진역할을 하였으며 긍정적인 상호작용 변화를 경험하게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선우현(2007c)의 위계질서가 혼란된 가족을 대상으로 전략적 가족놀이치료 연구에서는 가족놀이치료가 가족의 역기능적 질서를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아동의 문제행동을 감소시키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가족원들의 항상성 기체를 촉진하여 역기능을 수정하는데 효과적이라고 하였다. 또한 김효선(2011)은 가족놀이치료와 음악치료를 접목한 가족놀이음악치료는 부모와 자녀 간 친밀감을 증진시키고 긍정적인 가족관계를 형성하는데 효과적이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가족놀이치료의 효과성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아동양육시설의 아동과 양육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가족놀이치료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동양육시설의 아동과 양육자를 대상으로 가족놀이치료를 적용하여 상호작용의 변화를 밝히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가. 연구 대상 정보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 소재 아동양육시설의 만3세부터 14세까지의 아동들과 이 아동들을 담당하고 있는 양육자로 구성되었다. 아동양육시설의 설립 기준에 따라 남아와 여아가 분리 돼 거주하고 있어 2반이 선정되었고, 참여집단 ‘가’, ‘나’로 구분하였다. 참여집단 ‘가’는 남아 9명과 양육자 1명, 참여집단 ‘나’는 남아 1명과 여아 9명 양육자 1명으로 구성하여 각각 가족놀이치료가 실시되었다.

애칭 짓기에서 참여집단 ‘가’는 힘이 세고, 강한 이미지의 마리오, 마리오 발로테리오, 슈퍼마리오 등의 애칭이 사용되었고, 부정적인 이미지의 덩어리, 뽀빠이, 으악 등의 애칭도 사용되었다. 참여집단 ‘나’의 경우는 아름답고, 좋은 이미지를 표현하고자 하는

백설공주, 인어공주, 신데렐라, 곰돌이 푸 등의 애칭이 등장함과 동시에 이가탄, 피오나 공주 등의 부정적 이미지의 애칭도 사용되었다. 이 외의 아동들은 본인의 이름을 애칭으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모든 아동에게 가명으로 나타내기로 하였고, 참여집단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표 1>, <표 2>와 같다.

<표 1> 참여집단 ‘가’에 관한 정보

참여집단 ‘가’	특성
양육자 (33세, 여)	- 2012년 10월부터 담당함. - 양육하는 아동의 수가 많아 세밀하게 관심을 갖는데 어려움이 있어 지도에 부담이 됨. 또한 아동의 성향과 감정 파악이 어려움.
A 12세(5학년) 2남 중 첫째, F의 형	-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이 되면 함구하고, 낮을 많이 가리고 폭력적임. 기분이 좋거나 마음에 드는 동생에게는 잘 대해줌. 양육자와의 관계에는 호의적임.
B 12세(6학년) 1남 1녀 중 둘째	- 배려심이 많고 정이 많아 주변 아동들과 사이가 좋음. 그러나 눈치를 잘 봄. 특히 양육자에게 순종적이며 좋은 관계를 형성하고 있음.
C 12세(6학년) 외동	- 시설에 입소한지 가장 오래되어 아동 내에서 힘의 서열이 높음. 다른 아동들의 일에 관심이 많고 참견을 잘 하며 감정기복이 심하고 산만함. 양육자를 무시하는 행동으로 갈등을 빚지만 다정하게 챙겨주는 모습도 있음.
D 11세(5학년) 외동	- 따뜻하고 밝은 성격을 가졌으나 산만하고 정리정돈을 잘 못함. 간혹 눈치 없이 행동하는 경우가 나타나며 고집이 있음. 대체적으로 양육자와 관계가 좋음.
E 10세(4학년) 1남 2녀 중 둘째 Q의 남동생 및 R의 오빠	- 자신의 것을 잘 챙겨 이기적으로 비취질 때가 있음.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못 들은 것 같이 행동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며 불리한 상황에서 함묵함. 양육자와의 스킨십이 없고, 양육자를 어려워하는 것이 느껴짐.
F 10세(4학년) 2남 중 둘째 A의 동생	- 자신의 것을 잘 챙기거나 한편으로 욕심이 많고 산만한 모습을 보임. 양육자와의 관계는 원만한 편임.
G 10세(4학년) 1남 1녀 중 첫째	- 지적장애 3급, 고집이 세고, 남의 말을 잘 듣지 않으려고 하여 아동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갈등상황이 잦음. 양육자에게 아프다는 말로 관심을 받고자 함.
H 7세(1학년) 2남 중 둘째	- 밝은 성격이나 고집이세고 겁이 많음. 수면 시 양육자가 옆에서 항상 재워주기를 바라고, 신체접촉을 자주 시도함.
I 6세(7세반 유치원) 외동	- 웃음과 애교가 많아 귀여움을 받고 있음. 그러나 자기 고집이 있으며 겁이 많음. 양육자에게 ‘엄마’라고 부르기도 하며 관계가 좋음.

〈표 2〉 참여집단 ‘나’에 관한 정보

참여집단 ‘나’	특성
양육자 (40세)	- 2011년부터 담당함. - 양육하는 아동의 수가 많아 신체접촉, 애정과 관심을 더 제공해 주고 싶지만 필요만큼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J 14세(중 1학년) 외동	- 독립심이 강하여 다른 사람의 가치관이나 기대에 맞게 행동하기 보다는 자신의 욕구를 이루고자 하는 경우가 많음. 이에 규범을 어기는 일이 일어나며 아동 간의 갈등이 발생해 좋은 관계를 형성하는데 방해가 됨. 그러나 양육자의 통제에 순응하며 비교적 좋은 관계를 가짐.
K 13세(중 1학년) 1남 1녀 중 둘째	- 타인과의 관계에서 의존적이고 지지받기를 바라며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을 지나치게 따르려는 수동적인 모습을 보임. 도덕적이고 배려심이 있어 집단 내 모두와 관계가 좋음.
L 13세(중 1학년) 1남 1녀 중 둘째	- 계산적인 면이 있지만 신중하고 조심스러우며 동생들에게 다정하고 책임감을 갖고 돌봐 줌. 양육자에게 우회적으로 돌려 말하는 경우가 있어 간죽 거리는 느낌을 받음.
M 13세(중 1학년) 1남 1녀 중 둘째	- 독단적이고 약삭빠르며 이기적인 모습을 보임. 자신의 생각과 편의대로 계획을 수정하여 집단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종종 있음. 양육자와의 관계서 말이나 웃음으로 공격하는 경우가 있고, 자기중심적인 모습이 강하여 긍정적인 관계 형성을 위해 노력이 필요함.
N 12세(6학년) 1남 1녀 중 둘째	- 고집이 세고, 상대방의 힘의 세기에 따라 행동하는 면이 있어 집단 내 몇몇과 관계를 유지함. 반항적인 면이 있지만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대처하여 양육자와 관계는 좋음.
O 12세(6학년) 4녀 중 첫째	- 긴장감이 많고 스트레스를 잘 받아 화를 잘 냄. 간혹 아동 간의 관계에서도 폭력적인 모습을 보여 집단 내 부정적인 인식이 있음. 그러나 순수하고 타인에게 친절한 면도 가지고 있음. 양육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자 함.
P 12세(6학년) 2남 1녀 중 셋째	- 불안하고, 우울한 정서를 보이며 거짓말을 할 때가 종종 있음. 그러나 사교적이고 정이 많아 양육자와의 관계는 좋음.
Q 12세(5학년) 1남 2녀 중 첫째 E의 누나 및 R의 언니	- 우울한 감정을 잘 느끼고, 집단 내에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여 다른 아동에게 피해를 끼치거나 다툼이 빈번하게 일어나며 동생 R과의 사이도 나쁨. 고집이 있어 타인의 말을 잘 수용하지 않아 집단 내 갈등이 크고 부정적 인식이 높음.
R 9세(3학년) 1남 2녀 중 셋째 E와 Q의 여동생	- 집단 내에서 잔피를 많이 부리는 편이며 타인의 도움에 감사히 생각하기보다 당연시 여기는 경우가 있음. 그러나 밝고 활동적이며 사교적이어서 언니들에게 귀여움을 받기도 함. 자신의 의사 표현이 적극적임. 양육자와의 관계에서도 자신의 의사표현이 정확하고 적극적임.
S 3세(유치원) 외동	- 고집이 지나치게 세고 난폭한 면이 있으나 사교성이 있어 집단 내 누나들에게 귀여움을 독차지함. 양육자와의 분리불안을 보이며 가장 신체접촉이 잦고 다정한 상호작용을 가짐.

나. 가족놀이평가에 나타난 아동양육시설의 아동과 양육자 간의 상호작용 평가

본 연구에서는 아동양육시설의 아동과 양육자 간의 상호작용의 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가족놀이치료 프로그램 1회기에 Family Play Genogram과 가족 집짓기 가족놀이 평가를 실시하였다. 가족놀이평가는 아동양육시설의 아동과 양육자로 구성된 가족구성원들이 놀이를 통해 가족의 이미지와 문제를 탐색하고 평가, 진단하는 단계이다. 모든 평가에는 규칙과 제한을 설명하고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을 관찰하여 기록하였다. Family Play Genogram은 가족구성원들의 이미지를 놀잇감으로 표현하면서 서로의 이미지를 탐색하며 이미지를 표현하는 과정에서 개인적 차이를 발견하고 이를 수용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 가족 집짓기에서는 블록을 사용하여 가족구성원들이 공동의 집을 지으며 가족구성원 간의 상호작용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1) 참여집단 가

Family Play Genogram을 실시하자 아동들은 놀이 규칙을 잘 지켜나가지 못하여 양육자의 주의와 지적이 반복적으로 나타났다. 양육자의 요구에 아동들은 무시, 회피, 반복적인 규칙 불이행 등을 보였고 이에 양육자는 답답함을 느끼며 한숨, 화난표정과 말투 등 부정적인 정서를 동반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졌다. 아동들 간에는 규칙을 지키지 않는 아동에게 양육자를 대신해 소리를 지르거나 화를 내며 지적하고 행동을 제지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연령이 많은 아동이 동생에게 다그치는 경우가 많았고, 서열에서 힘이 센 아동이 약한 아동에게 위협을 가하는 경우가 잦았다. 이에 지적 받은 아동은 잠시 위축되었고, 다른 아동에게 자신이 경험했던 방법대로 통제하고 비난하는 모습이 나타나 전반적인 분위기가 산만하고 공격적이었다.

이미지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자신과 친한 대상에게는 긍정적인 이미지를 부여하나 그 외의 아동에게는 ‘모르겠다’, ‘그냥 선택했다’ 등의 표현으로 낮은 친밀감이 나타났다.

가족 집짓기에서도 비슷한 상호작용을 보였다. 산만한 분위기 속에서 아동들은 자신이 바라는 대로 집을 구성하였고 충족되지 않으면 짜증을 내고, 화를 내거나 비난하는 부정적인 상호작용을 주로 사용하였다. 아동간의 친밀감이나 유대감이 적었고, 자기중심적인 상호작용이 이루어졌다. 이에 각자의 주장이 강하여 갈등상황이 계속 되며 힘이 강한 B, C 아동이 주도해 나갔다.

(2) 참여집단 나

Family Play Genogram에서 아동들은 서로 먼저 하고 싶다며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협의가 되지 않아 양육자가 개입하여 상황을 마무리하였고 아동들은 양육자에 의해 적절하게 통제되었다.

아동들과 양육자는 다른 아동들이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유심히 살펴봄에 관심이 컸다. 그러나 자신의 이미지가 부정적으로 표현되면 과장된 웃음으로 상황을 모면하였고, 회피하려는 방어적인 태도를 보이며 진솔한 상호작용이 어려웠다.

M과 N, J는 집단 내 가장 힘이 센 이미지로 나타났고, 집단 내 아동들과 양육자의 이미지에 대해 부정적이고 비난 섞인 어조를 사용하여 표현하였다. 그러나 특별히 자신과 친밀함을 가진 아동에게는 이러한 표현을 삼갔고 긍정적으로 나타내기도 하였으나 전반적으로 집단 내 친밀감이 낮고, 비언어적 상호작용을 더 많이 사용하여 분명한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여 갈등상황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어보였다.

가족 집짓기에서는 양육자가 아동들을 이끌어 바닥, 벽, 가구설치로 나누어 일을 분담시켰다. 이에 아동들은 원하는 분야가 아님에도 거부하지 않고 순응하나 놀이 속에서는 서로 간 갈등이 반복적으로 표출되어 나타났다.

2. 연구도구

가. 아동양육시설 아동과 양육자 간의 상호작용

본 연구는 아동양육시설의 아동과 양육자에게 가족놀이치료를 실시하여 회기 내에서 상호작용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에 가족놀이치료 실시에 앞서 참여자의 동의를 얻고 프로그램 매 회기를 녹음 및 녹화하였으며 그 내용을 전사하여 상호작용의 변화를 정리하였다. 연구자는 참여관찰을 통해 진행 중 생각되는 느낌과 상호작용의 변화를 면밀히 관찰하고, 면담과 비공식적인 대화 등을 통해 변화된 상호작용의 모습을 심층적으로 다양하게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통해 상호작용의 변화 사례를 연구하는데 보다 논리성을 높이기 위해 현상학적 연구 방법 중 Moustakas(1994)가 제안한 연구 방법을 적용하여 사례 연구를 진행하였다.

현상학적 접근 방법은 잘 알려지지 않은 연구문제를 주제로 설정하여 귀납적 방법으로 연구하게 된다. 예측이나 교차비교 또는 일반화 같은 방법을 사용하기 보다는 심층면접을 실시하여 연구의 자료를 수집하여 연구자와 참여자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음을

인정 하고, 그 상황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연구되어 진다. 따라서 현상학적 연구는 연구 주제에 적합한 정보들을 다양하게 만들어내기 때문에 경험이 없었던 사람도 현상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Crabtree & Miller, 1992; Creswell, 1998; Marshall & Rossman, 1989; Moustakas, 1994; Patton, 1980; Thome, 2000; 김유진, 2007 재인용).

현상학적 접근 방법 중 Moustakas(1994)가 제안한 접근 방법의 단계는 첫 번째, 연구자는 일어난 현상에 대해서 자신이 경험했던 것을 전체적으로 기술한다. 두 번째, 연구자는 연구 대상이 어떻게 주제를 경험하고 있는지 그에 대한 진술을 찾고, 의미 있는 진술들을 나열한다. 세 번째, 이 진술들이 일어난 경험들을 축적적 예를 포함하여 의미 단위(meaning units)로 분류하고 나열하여 조직적 기술을 한다. 네 번째, 연구자는 자신의 기술을 반성하여 상상적 변형 또는 구조적 기술을 구성한다. 마지막으로 먼저 경험에 대한 연구자의 이야기를 따르게 되며, 그 다음으로 각 참여자의 이야기를 따라 혼합하여 기술하게 된다(Creswell, 2007). 이와 같은 현상학적 연구 접근을 통해 연구자가 경험한 다양한 현상들을 의미 있는 주제로 분류하고 서술하는 분석 과정에서 아동양육 시설의 아동과 양육자 간의 상호작용에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는지 밝히고자 하였다.

나. 가족 협동화

가족 협동화는 가족놀이치료 프로그램 과정 속에 아동과 양육자의 상호작용을 평가하기 위한 도구이다. 이것은 가족치료에서 가족구성원 간의 상호작용이 중요시 돼 심리검사 영역이 확대됨에 따라 1980년대 초에 개발되어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다.

가족 협동화의 절차는 첫 번째, 구조화되고 비언어적 상호작용 과제로 진행된다. 이 때 치료자의 지시에 구성원들이 어떻게 따르고 반응하는지 관찰한다. 두 번째, 크레파스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하며 순서를 정하게 한다. 치료자는 참여자들의 순서 결정 과정과 나눈 대화들을 유심히 살피고, 지도력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반응하는 참여자를 관찰한다. 세 번째, 치료자의 ‘시작’ 신호에 나와 자유롭게 그림을 그리게 하고 ‘다음’ 신호에 따라 그림 그리기를 멈추도록 하여 다시 뒷사람이 나와 자유롭게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한다(Schaefer, Guitlin, Sandground, 1993; 성영혜, 1997 재인용). 이 때 참여자가 순서와 시간을 잘 유지하고 있는지 살피고 그렇지 못한 참여자는 누구인지 관찰한다. 또한 전체 가족의 움직임들 통해 참여 태도를 관찰하여 참여자의 노력에 다른 참여자들은 어떻게 대응하는지, 서로 협력하고 칭찬하고 있는지, 미완성된 그림에

서로 어떻게 반응하는지, 반대로 돕지 않거나 방해하는지, 방해한다면 어떠한 모습을 하는지 등을 관찰한다(김광웅 외, 2010). 네 번째, 가족 협동화가 마치면 아동과 양육자에게 앞에서 치료자가 관찰한 사항들을 질문하여 토의하게 하고, 계획된 질문을 제공하여 반응을 살피며 그 안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 때 치료자는 아동과 양육자의 상호작용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기록하며 비디오 촬영을 통해 자료를 분석한다. 가족 협동화는 가족놀이치료 선행연구들의 가족 사정평가 도구로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이것을 통해 가족의 상호작용을 분석하여 나타내고 있다. 연구들에 나타난 가족 협동화는 언어의 유창함 없이 그림을 통해 가족의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촉진하고 시도하는 기회를 제공하며, 치료자가 가족의 심리적 거리감과 역기능적 가족패턴을 탐색하고 이해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될 뿐만 아니라 함께 참여한 부모 또한 가족의 상호작용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인식의 변화를 촉진하는데 도와줄 수 있다고 하였다(선우현, 2006; 선우현, 2007b; 박재훈, 선우현, 2012).

3. 연구절차

본 연구는 2013년 3월 9일부터 2013년 6월 1일까지 주 1회를 기본으로 총 6회기에 걸쳐 60분씩 매주 토요일에 진행되었다. 연구자는 놀이·가족치료를 전공하였고, 아동양육시설의 아동과 양육자에 적합한 가족놀이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위해 가족놀이치료 Workshop에 참여하고 놀이치료·가족치료 전문가에게 슈퍼비전을 받으며 원활한 치료가 진행되도록 하였다. 모든 회기는 사전에 참여자로부터 동의를 얻어 녹음 및 녹화촬영을 진행하였고 의미 있는 자료는 사진촬영과 문서화하여 수집하였고 연구절차는 <표 3>과 같다.

<표 3> 연구절차

날짜	과정 및 절차	내용
2013년 3월 9일 ~ 3월 16일	가족놀이치료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 아동양육시설에 가족놀이치료 계획서 발송
2013년 3월 17일 ~ 3월 30일	가족놀이치료 프로그램 안내	• 아동양육시설 담당자와 면담을 통해 가족놀이치료 참가자 결정
2013년 4월 6일 ~ 4월 13일	사전 가족 협동화 검사 및 양육자 면접	• 아동양육시설의 양육자 면접지 작성 및 개인면담 • 아동양육시설의 아동과 양육자의 가족 협동화 실시

날짜	과정 및 절차	내용
2013년 4월 20일 ~ 5월 25일	가족놀이치료 프로그램 진행	• 구조화된 6회기 가족놀이치료 프로그램 진행
2013년 6월 1일	사후 가족 협동화 검사	• 아동양육시설의 아동과 양육자의 사후 가족 협동화 실시 • 아동양육시설의 양육자 개인면담

4. 가족놀이치료 프로그램 구성 및 내용

가. 가족놀이치료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

본 연구는 아동과 양육자 간의 낮은 친밀감, 비난과 통제, 무시 등의 부정적인 의사소통 방식으로 서로의 관계를 악화시키는 상호작용 패턴을 전략적 가족놀이치료를 통해 탐색하고 변화하고자 하였다. 이에 아동과 양육자 간의 구조화된 놀이 안에서 갈등을 위협적이지 않는 방식으로 표출하며 마무리 시간은 서로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여 그 안에서 집단 내 역기능적인 상호작용 방식을 인식하고 긍정적으로 변화하여 기능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하고자 하였다. 전략적 가족놀이치료에서 놀이는 가족의 문제를 탐색하는 진단정보 자원으로 사용하고, 놀이 기법을 통해 의사소통 방식을 변화하고 치료적 도구로서 효과적인 변화를 만든다(선우현, 2007c). 이에 놀이기법을 활용한 평가 단계에서는 참여집단의 방어를 약화시키고 정서적 경험을 이끌어 내 치료자와 아동 그리고 양육자는 즐거운 놀이경험을 통해 동맹관계를 형성하고, 자연스러운 자기표현을 촉진하고자 했다. 또한 친밀감을 향상할 수 있도록 신체접촉 놀이를 활발히 진행하였고, 그것을 통해 아동과 양육자 간의 새로운 긍정적인 인식을 형성하도록 하였다. 놀이 속에서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경험은 아동과 양육자에게 집단 내의 문제 해결력을 증진하여 스스로 집단 내 갈등을 해결하는데 동기를 마련해준다.

본 가족놀이치료 프로그램에는 전략적 가족놀이치료와 더불어 가족치료놀이 이론을 접목하여 구성하였다. 가족치료놀이는 구조화된 놀이치료로 부모와 자녀의 건강한 상호작용을 돕기 위해 개발된 기법이다(김수정, 2009). 이에 친밀감이 부족하고 함께 연합하여 놀이하는 것이 어렵고 애착 형성을 다시 형성하고자 하는 경우에 효과적이다. 그 이유는 가족치료놀이는 부모와 자녀간의 애착을 강화시키며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경험하여 타인에 대한 신뢰감을 향상시키고, 긍정적인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기 때문이다(홍정애, 성영혜, 2007). 가족치료놀이에서 놀이는 공감을 포함하여 가족구성원의 조화롭고 민감한 반응을 증진하며 정서적으로 자신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과 타인을 이해하며 공감하는 능력, 자신을 가치 있게 여기고 타인과 자신에 대한 내적 표상을 발달시킬 수 있는 이점을 가진다(홍정애, 성영혜, 2007). Koluchova (1976)는 유아기 때 모성 상실을 경험한 아동에게도 이를 보상할 수 있는 자극이 풍부하게 적절한 환경이 제공되면 사회적, 정서적, 지적인 회복을 보일 것이라고 보고(김형숙, 2012 재인용)된 바와 같이 본 연구는 일차 양육자로부터 경험된 불안정한 상호작용을 보상할 수 있도록 아동의 현재 양육자와 건강한 상호작용을 이루어 정서적인 상호작용 발달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자 가족놀이치료를 가족놀이치료 프로그램에 구성하였다. 친밀감이 낮고, 애착형성에 실패한 아동과 양육자를 대상으로 치료놀이의 구조, 도전, 개입, 양육 원리를 가족놀이치료 프로그램에 적용하여 그에 맞는 목표에 따라 상호작용을 촉진하고 긍정적인 상호작용으로 변화시키고자 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초기 단계에서 ‘양육’을 적용해 ‘동대문을 열어라, 김밥 말이, 접촉놀이, 손 그리기 및 마사지’와 같은 신체접촉과 함께 양육놀이를 경험함으로써 양육자로부터 충족되지 못했던 좌절된 욕구들을 충족 받으며, 양육자에게 자신을 돌보아 줄 것을 허용하고 스스로 사랑스럽고 소중하다는 내적표상을 느끼도록 하였다. 따라서 양육자의 따뜻하고 온정적인 친밀감을 통해 긍정적인 새롭게 형성하고 안정된 애착을 증진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였다. 또한 중기 단계에는 ‘개입’과 ‘도전’을 통해 재미있고 즐거운 놀이 경험으로 긴장된 감정을 이완하고 표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성공경험을 통해 자신감을 얻고 부정적인 경험들을 인식하고 표출하는 과정을 경험하였다. 마무리 단계에서는 Munns (2000)가 말한 가족놀이치료를 통한 공감 반응을 통해 참여집단 내의 아동에게 모두의 관심을 표현하고 공감함으로써 아동과 양육자는 서로의 욕구를 더 잘 이해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게 하였으며 긍정적 상호 관계를 증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였다(홍정애, 성영혜, 2007 재인용). 이와 같이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가족놀이치료 프로그램은 전략적 가족놀이치료와 가족놀이치료 기법이 절충된 것으로 아동양육시설의 아동과 양육자 상호작용에 치료적 효과를 얻도록 개발되었다.

나. 가족놀이치료 프로그램 구성

본 연구는 아동양육시설의 아동과 양육자에게 가족놀이치료 이론을 바탕으로 평가, 초기, 중기, 마무리에 따른 치료 목표를 구성하여 총 6회기의 단기 가족놀이치료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진행하였다. 평가 단계에서는 가족놀이평가를 통해 가족구성원의 이미지와 가족 문제, 상호작용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초기 단계는 양육놀이를 통해 아동

과 양육자 간의 자연스러운 신체접촉을 통해 양육과 관련된 부모 역할을 강화시키며 친밀감을 높이고 집단 간 응집력과 적응성을 촉진하고자 하였다. 중기 단계는 신체 놀이를 통해 가족 내 긴장된 감정을 이완시키고, 부정적인 감정을 건강한 방법으로 표출하고 수용 받는 경험을 함으로써 정서적 상호작용을 촉진하고자 하였다. 마무리 단계에서는 아동과 양육자 간의 공감을 바탕으로 한 상호작용을 경험하여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촉진하고 가족의 문제를 해결하고 재창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에 다음 <표 4>와 같이 가족놀이치료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표 4> 가족놀이치료 프로그램

단계	회기	가족놀이치료 프로그램 활동내용	목표
평가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amily Play Genogram • 가족 집짓기 	• 가족놀이평가
초기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대문을 열어라 • 김밥 말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밀감 형성하기 : 양육놀이를 통한 가족 간 유대감 향상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촉놀이 • 손 그리기 • 손 마사지 	
중기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문지 편치 • 얼음땀 • 카드 이야기 게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서적 상호작용 촉진하기 : 자기표현 증가 및 타인 수용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정 젠가 • 풍선 치기 	
마무리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맑은 물 붓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감적 상호작용 촉진하기 : 긍정적 상호작용 경험 및 가족 문제 해결력 재창조

4. 자료 분석

본 연구는 아동양육시설의 아동과 양육자를 대상으로 가족놀이치료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실시하고 아동과 양육자의 상호작용의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분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자료 분석과정이 이루어졌다.

첫 번째, 가족놀이치료 프로그램 6회기를 진행하는 과정에 놀이·가족치료를 전공한 2명의 보조자를 참여시켰고 치료자는 보조자와 함께 진행된 프로그램에 대해 치료자가 관찰하지 못한 아동과 양육자 간의 상호작용의 변화를 피드백하고 분석하여 정리하였다. 두 번째, 참여자의 사전 동의를 얻고 매 회기 1시간 분량의 녹음 및 녹화하였고, 녹

화된 영상을 관찰하고 내용을 정리하여 놀이치료·가족치료 슈퍼바이저 자격을 갖춘 2인 이상의 슈퍼바이저로부터 가족놀이치료 프로그램 과정에서 나타난 가족의 상호작용을 지도 및 감독받았다. 세 번째, 녹음된 가족놀이치료 프로그램은 가족놀이치료를 경험해 보았던 석사과정 2명과 함께 전사과정을 진행하여 자료를 심도 있게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놀이치료 및 가족치료 석사와 상담전공 박사수료자 그리고 치료에 대한 정보가 없는 일반인으로부터 전사과정이 제대로 이루어 졌는지 검증받는 절차를 통해 자료 분석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가족놀이치료 과정에 나타난 상호작용

본 연구에서는 가족놀이치료를 적용하여 아동양육시설의 아동과 양육자가 간의 상호작용에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는지 사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에 Moustakas(1994)의 현상학적 방법을 적용해 접근하였다. 매 회기 가족놀이치료 과정의 자료에서 아동과 양육자의 비언어적 상호작용인 행동과 표정, 그리고 언어적 상호작용, 양육자와의 인터뷰 등을 분석하여 15개의 의미단위가 도출되었고, 그에 따른 3개의 주제와 3개의 경험의 본질이 도출되었다. 도출된 주제는 친밀감 형성, 정서적 상호작용, 공감적 상호작용이며 그에 따른 경험의 본질은 긍정적 인식변화, 긍정적 정서촉진, 긍정적 관계형성으로 나타났다. 연구자는 자료 도출 과정에서 가족놀이치료 전문가에게 검증과정을 거쳤으며 도출된 결과는 다음 <표 5>로 제시하고자 한다.

<표 5> 가족놀이치료 프로그램의 경험의 본질

의미단위(meaning unit)	주제	경험의 본질
신체접촉을 거부하였으나 놀이 중 자유롭게 손을 잡거나 껴안는 놀이가 가능해짐	친밀감 형성	긍정적 인식변화
형과 언니가 동생들을 챙겨주고 동생들은 형과 언니를 따르게 됨		
양육자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았으나 점차 옆에 머무르거나 함께하고자 함		
아동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증가함		
관계가 어려웠던 아동에게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시도함		

의미단위(meaning unit)	주제	경험의 본질
짜증, 거친 말투, 화가 줄어들고 미소, 상냥함, 부드러운 말투 증가함	정서적 상호작용	긍정적 정서촉진
아동에게 강압적인 지시와 통제가 줄어들고 양육자의 따뜻하고 양육적인 상호작용이 증가함		
유쾌한 정서를 함께 공유함		
아동과 양육자 간의 감정 표현이 적극적임		
의사 표현이 증가함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듣고자 함	공감적 상호작용	긍정적 관계형성
개인의 비밀스런 고민을 표현하고 함께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함		
산만하고 충동적인 행동이 줄어들고 양육자의 지시에 적절히 순응함		
아동과 양육자 간의 유대관계가 형성됨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함		

가. 긍정적 인식변화

가족놀이치료를 경험한 참여집단의 아동과 양육자 간의 상호작용에는 초기 신체접촉에 있어 부끄러움, 어색함이 나타났으나 회기가 지날수록 점점 자유롭게 신체접촉을 시도하였다. 참여집단 ‘가’의 아동들은 처음 김밥 말이를 진행하자 C는 “나 안 만들어요.”라고 하거나 경직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점차 놀이 중 양육자의 손을 더 먼저 잡으려고 하거나 양육자가 “내 손을 잡고 싶었어?”라고 물어보면 “네.”라고 미소를 지으며 신체접촉에 거부감이 낮아지고 오히려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양육자는 “아이들 하나하나 로션을 발라준 적이 없었는데 아이들과 이런 시간을 갖는 게 좋았어요.”라며 긍정적 인식 변화가 나타났으며 놀이 중기 이후부터 놀이 중 아동과 양육자는 자연스럽게 포옹을 하였고, 아동들은 양육자에게 안기기도 하며 친밀감의 증가가 눈에 띄게 나타났다. 이에 대해 양육자는 “저는 행복한 여자예요.”라고 표현하기도 하였다. 생활면에서 “처음에는 내 옆에 딱 있거나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두 번째부터는 달라진 것 같아요. 그리고 원래 각자의 침대에서 자요. 그런데 토요일에 다 같이 거실에서 자는 날로 만들었어요. 아이들이 이모 옆에는 나. 하면서 서로 경쟁해요.”라며 친밀감이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양육자의 지시에 순응하지 못하였던 아동들은 “애들아 조용히 합시다.”라고 하자 바로 자세를 교정하며 주의를 집중하였고 놀이에서 선택권이 부여될 때 양육자에게 권한을 부여하였고 양육자가 치료실에 입실하면 “이모다.”라고 하며 반기며 양육자에 대한 관심을 표현하기도 하였다. 양육자와의 2회기 인터뷰에서 “C가 간지러움을 싫어하는구나. 저는 이걸 오늘 처음 알았어요. 아이가 이렇게 간지러움을 당하면 속상해하는 것도 처음 알았고

요. 이 아이의 몰랐던 부분을 알게 되었던 점이 좋았던 것 같아요.”라고 보고하였으며 4회기 인터뷰에서도 “D의 의외의 모습을 보았어요. D 입에서 ‘팀워크’라고 하는 것이 정말 의외였어요. 하자고 했을 때 그냥 하자고, 그냥 만들 거라고 예상 생각했는데 그런 것을 주도하고 좋아하는 아이구나라는 것을 오늘 새롭게 알게 되었어요.”라며 “되돌아보면 아이들의 새로운 모습도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좋았어요.”라며 아동과 양육자 간의 상호작용에 있어 새로운 정보를 얻게 되고 서로 간의 긍정적 인식의 변화가 나타났다.

참여집단 ‘나’는 집단 내 신체접촉 놀이에서 “야해. 아 변태.”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낯설고 어색함을 표현하였다. 하지만 중기가 되자 서로 머리를 쓰다듬어 주거나 기대고 안아주며 손을 잡는 등 자연스러운 신체접촉이 나타났다. 양육자는 기분이 상해있는 아동에게 관심을 보이며 살펴봐 주었고 아동이 마음 속 어려운 이야기를 하자 함께 눈물을 흘려주기도 하였다. L은 양육자를 보자 신발을 쟁겨주고 팔을 끌며 신체접촉을 하는 모습 또한 나타났다, 놀이 중 양육자에게 풍선을 불어달라고 하거나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며 서로 간의 관심이 증가하였다. 양육자와의 2회기 인터뷰에서도 평소 관계에 어려움을 가진 아동에게 대해서 “J하고 Q의 그림을 유심히 보게 되었는데, 잘 하는 것 같았어요. 독특하게 그리고 Q가 손 그리기 할 때는 잘 세밀하게 잘 그려서 무난하게 잘 그린 것 같아서 염려되는 마음이 있었지만 안심이 되었어요.”라며 긍정적인 평가를 보였고 “Q와 R은 푹푹한 아이였어요. 가족놀이치료를 하면서 더 밝아졌어요. 제가 없을 때는 이런 모습이 더 그래요. 제가 너무 억압했죠. 다른 방법으로 지도를 해줘야 하는데 하는 아쉬움이 있지요.”라고 고백하였다. 가족놀이치료는 친밀감이 적었던 아동과 양육자 간에 양육, 도전 놀이를 통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상호작용을 촉진하였고, 그 안에서 긍정적인 유대관계가 형성되며 아동과 양육자 간의 긍정적인 인식의 변화를 이끌어 냈다.

나. 긍정적 정서 촉진

가족놀이치료에서 놀이는 즐거움, 유쾌함, 흥분, 기대감, 긴장감, 짜증, 분노, 기쁨, 행복 등의 다양한 정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며 이러한 감정을 표현함으로써 자신 및 타인의 감정과 생각을 인식하고 공유하게 되었다. 거칠었던 상호작용, 잦은 짜증과 분노는 감소하는 대신 부드럽고 따뜻한 상호작용과 미소 등의 긍정적인 정서를 바탕으로 한 상호작용이 증가하였다. 참여집단 ‘가’는 초기 단계에서 놀이 중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아 뭐예요. 아 진짜.”, “(큰 소리로) 야.”라고 화를 내거나 양육자는 “(짜증내며) 시끄러워.”라고 하는 등 매우 혼란스럽고 갈등적인 상황이 자주 나타났다. 그러나 중기 단계가 되자 다

틈이 생겨도 “형이니까 이해 좀 해줘.”라며 부드럽게 다독여주었고, 서로를 용서해주고 갈등 상황을 보다 신속하게 해결해 나갔다. 또한 양육자는 미소를 지으며 “그냥 하고 싶을 때 해. 눈치 볼 것도 없고. 너무 쑥스러워가지고. (웃음)”라며 공감과 수용 그리고 따뜻한 모습을 보였다. 초기 단계에서 아동과 양육자는 놀이 중 피곤해하고 지루해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점차 환호성을 치거나 밝게 웃고, “오우 대박.”이라고 표현하거나 박수를 치기도 하며 생기가 있어지고 유쾌한 정서를 다양하게 표현하고, 함께 공유하기도 하였다.

H : 마사지해서 기분이 대박 좋고요.

D : 이모가 마사지 해줄 때 재미있었어요.

E : 이모가 마사지 해주니까 피로가 풀렸어요.

이러한 반응에 양육자 또한 “나도 고마워(미소).”하며 아동과 양육자 간의 정서적인 상호작용을 활발히 주고받으며 상호작용하였다. 평상시 생활모습에서도 변화가 나타났다. 양육자는 “지난주에 빵을 먹었어요. (C에게)나도 한 번 먹어보자 하고 그것을 먹으면서 맛있다고 하니 C가 다음에 그 빵을 학원에서 먹지 않고 그대로 이모 준다고 가져왔었어요. 고마웠죠.”라며 미소를 가득 지으며 행복해 하였다.

참여집단 ‘나’는 양육자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동 간 서로 발로 차거나 거부하며 공격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회기가 거듭할수록 이러한 모습들은 줄어들었고 아동 간 서로 춤을 추고, 웃으며 즐거운 분위기를 함께 즐겼다. 양육자 또한 양육놀이에서 “야, 던져. 창문 열어.”라고 하거나 “된장김밥”이라며 따뜻한 돌봄을 제공하는 것에 어색함을 보였으나 중기 단계 이후, 아동들에게 부드러운 말투와 표정을 사용하는 경우가 증가하였다. 놀이 중 “그럴 수도 있지 기다려봐.”라고 말하거나 마무리 단계에서 힘든 고민을 말한 Q에게 “Q야, 이모도 (말을 잊지 못하고 눈물을 흘림) 니가 놀림을 받았다고 해서 마음이 아프긴 해. (중략) 이모도 이 순간에 뭘 느끼느냐면, 처음 너희들이 이곳에 왔을 때, Q와 R의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아서 이모가 걱정을 많이 했었어. 근데 오늘 Q가 속상한 일을 경험했다는 말을 하면서 동생 Q가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면서(울음) 아 너희들이 많이 컸구나. 어……. 이제는 돈독한 자매가 된 것 같구나 싶어서 이모가 많이 기특하고 기쁘기도 했었고, (울음)이모가 너희들을 보호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더라고.”라며 아동에 대한 양육자의 따뜻한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R이 퇴근하는데 신문지에 꽃을 돌돌 말아 선물을 주는 거예요. 감동인거예요. 아이들에게 더 잘 해주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못 해주니까.”라며 양육자는 아동에 대한

고마움과 미안함을 표현하며 정서적 상호작용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가족놀이치료는 아동과 양육자 간의 정서적 상호작용을 더욱 촉진하고 일방적이고 지시적이며 경직된 상호작용이 보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표현으로 자연스럽게 드러내 아동과 양육자 간의 긍정적 정서를 이끌었다.

다. 긍정적 관계형성

아동과 양육자 간에는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듣기보다는 자신의 입장을 고수하며 자기중심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에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기 보다는 무시하고, 주의 깊게 듣지 못하며 충동적인 행동들로 산만한 분위기가 나타났다. 참여집단 ‘가’의 아동들은 다른 아동들과 합의점을 찾는데 어려움을 보였다. 이에 양육자는 갈등을 통제하고 조절하는데 지쳐 있었고, 주변의 아동들은 큰 소리를 내며 주의를 집중하도록 하였다. 이에 아동들과 양육자는 놀이 중 반복적으로 “야, 애들아 집중해.”라며 주의를 주었다. 그러나 중기 단계가 되자 점차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동안 끼어들지 않고 기다려 주었고 고개를 끄덕이거나 눈을 마주쳐 이야기를 듣는 등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경청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양육자는 아동들에게 먼저 부드러운 말투로 “애들아, 애들아 설명 들어봐.”라며 다독였고 주변의 아이들도 함께 도와 “애들아 집중 좀 하자.”라고 이야기 하자 모두 자신의 행동을 멈추고 양육자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더 나아가 아동들은 놀이 규칙에 맞게 행동하였고 정리 정돈된 모습이 증가하였다. 놀이 중 아동 간에 다툼이 일어나자 양육자의 중재에 주변의 아동들도 함께 도와 갈등을 경험하고 있는 아동들의 기분을 풀어주고, 울고 있는 아동에게 B는 휴지를 가져와 “닦아.”라며 울고 있는 아이의 눈물을 닦아주었고, E는 “미안해. 한 번 해.”라며 함께 해결하고자 하였다. 이에 갈등이 쉽게 정리되고 다시 즐겁게 놀이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양육자와의 인터뷰에서도 “지지 받는 느낌이 들어서 기분이 좋았어요.”라며 “B는 항상 나를 따라오는 아이라고 했지만 의외로 F가 지지해주다니. F도 나를 따라 오려고 하는구나는 것을 느꼈어요.”라며 아동과 양육자 간의 공감과 지지 경험이 잘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양육자와의 마무리 단계 인터뷰에서 “(맑은 물 붓기에서)생각보다 말을 잘 안하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저도 민망해하기도 하고, 애들 입장을 이해하겠더라고요. 얘기 하고 나니까 사실 제가 민망하기도 했고요. 잘해. 열심히 해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게. ‘제가 평소에 아이들에게 많이 말로써 표현하지 않고 있었구나.’하고 생각했어요.”라며 아동들의 마음을 공감해주고 수용해주고자 하는 모습이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참여집단 ‘나’는 치료사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거나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못 들은 척 하며 무시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그러나 중기 단계 이후 고개를 끄덕이거나 말하려고 하는 아동에게 시선을 고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치료사의 질문에 적극적으로 반응하였고 양육자가 “자, 집중”이라고 하면 행동을 멈추고 이야기를 듣고자 하였다. 어려움에 처한 아동을 모른 척 하지 않고 도움을 주려고 하며 즐거운 기운을 북돋아 주며 마음을 공감해주었다. 양육자는 인터뷰 중에 아동의 입장을 생각하며 자신의 양육태도를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제가 밀가루를 이렇게 주물럭거리면서 한 쪽을 세계 누르면 한쪽이 나오게 되잖아요. 제가 아이들을 이렇게 억압하면서 만들고 있지 않았나 생각하게 되었어요. ‘아이들을 부드럽게 대할 필요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라고 말하며 “제가 개별성을 인정하지 않는 점이 보여요. 아이들의 개성을 존중하고 키워줘야 하는데 저는 쉽게 가려고 쉽게 기계적으로 만드는 경우가 있구나. 제가 없을 때는 본연의 모습이 나오고 내가 늘 반성이죠. 제가 일상에서 제 나름대로의 틀을 마련해주고 결정권을 마련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과연 좋은 것인지 안 좋은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직 위로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구나. 말 한마디로 너무나 지적하고 가르치려고 했구나. 가장 간단한 위로의 말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라며 양육자 스스로 아동의 마음을 공감하고자 하였고 그에 대해 자신의 모습을 성찰하는 변화가 나타났다. “인간적으로 애들을 향해서, 속상해하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아이들에게 비춰지니까. 가족놀이치료를 하고 나니(양육자에게 아동들이) 더 빨리 다가온다고 해야 하나? 가족놀이치료 이후에 아이들이 숙소의 겪는 어려움을 이야기하더라고요.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기다렸다가 제방에 들어와 침대에 와 이런 저런 어려움을 이야기했어요. 거기서 아이들이 이런 어려움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라며 아동과 양육자 간의 공감적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었고, 그 안에서 안정적이고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가족놀이치료는 아동과 양육자 간의 공감적 상호작용을 활발하게 하여 긍정적인 관계를 촉진하도록 하였다.

2. 가족 협동화에 나타난 가족 상호작용의 변화

가. 참여집단 가

참여집단 ‘가’의 사전 가족 협동화의 순서를 정하는 과정에 있어 몸싸움을 벌이며 경쟁적이었으나 가장 힘이 센 C가 큰 소리를 내며 다른 아동들을 제압하였고, 자신이 가

장 첫 번째 순서를 가졌다. 그 이후 힘의 세기에 따라 순서가 정해졌다. 아동들은 전지가 찢어질 정도로 격렬하게 그림을 그렸으나 A, B, F, I, 양육자는 적은 면적을 사용하고 선을 긋거나 그림을 그리지 않고 바로 들어왔다. 사후 가족 협동화 그리기 순서를 정하는 과정은 양육자가 압전히 앉아있는 순서부터 할 것이라고 하자 아동 모두가 조용해지며 양육자가 결정에 동의하였다. 양육자의 그림이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였고 산과 집, 나무를 그렸다. H와 I는 계속적으로 다른 사람의 그림에 방해를 하며 낙서를 하였으나 B, C, D, E, F, G가 양육자가 그린 그림의 테두리에 덧칠을 해주며 도와주었다. F는 특히 영망이 되는 느낌이 들자 시간을 채우고, 그리기를 하지 않고 들어갔으나 B와 C가 덧칠을 강하게 해주자 같이 도우며 그리기 시작했다. 이와 같이 가족 내의 문제를 함께 협력하여 해결하는 모습이 나타났고, 아동들은 양육자의 권위를 세워주고 함께 그림을 그리며 친밀감이 나타났다. 특별히 H와 I는 자신의 욕구를 표현할 힘이 생긴 것으로 보이며 형들은 동생들에게 비난하지 않고 상황을 이해해주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초기 가족 협동화의 제목을 정하지 못하였으나 사후 가족 협동화에서는 ‘활발 깨끗 행복한 집’의 제목이 정해진 것을 보았을 때, 놀이 규칙을 지켜나가며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안정적인 분위기와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참여집단 ‘가’의 가족 협동화 변화는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참여집단 ‘가’의 사전·사후 가족 협동화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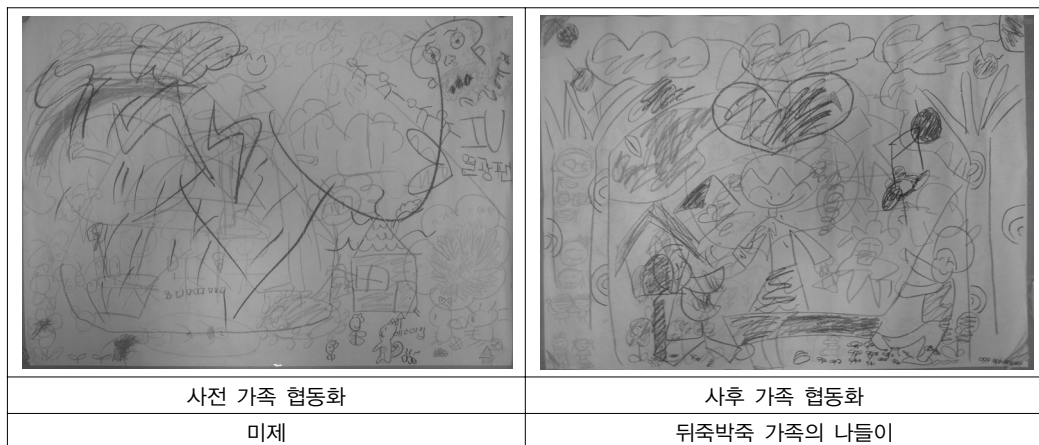
가. 참여집단 나

참여집단 ‘나’의 가족 협동화 그리기 순서는 N과 O가 먼저 그리겠다고 하였으나 다른 아동들로부터 수용되지 않았고 양육자의 지도 아래 가위 바위 보로 결정하여 가장

나이가 적은 순으로 시작하였다. 양육자는 가장 큰 면적을 사용하였고 주로 왼쪽 부분에 취중 해 그림을 그렸다. J는 검정색으로 그림에서 다음으로 많은 면적을 사용하여 주변 그림을 방해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K와 Q는 주변 그림에 색칠을 해주고 도와주는 모습을 보이며 주변 사람들과 상호보완적인 모습을 보였다. M은 양육자를 따라다니며 옆에 그림을 그렸고, N과 O는 자신의 그림에만 몰두하며 다른 아동과의 상호작용에 어려움을 예상해 볼 수 있었다. 전체적으로 아동과 양육자 모두 그림에 조화를 이루기보다는 부분적으로 제한된 범위 내에서 상호작용을 하고 있었다.

사후 가족 협동화 그리기에서는 동생대표와 언니 대표로 나누어 가위 바위 보를 한 뒤 언니가 이겨 나이가 많은 사람부터 그리기로 결정했고, 양육자는 덜 강압적인 모습으로 아동들의 순서를 정리해 주었다. 양육자는 가장 많은 면적을 가졌으며 전지 전면을 사용해 전체 그림의 틀을 제시하여 안정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또한 주변 그림에 필요한 요소를 색칠하여 그려줌으로써 주변의 그림을 돌아보고 여러 아동들과 상호작용을 시도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사전에는 제목을 정하지 못하였으나 사후에는 ‘자연, 휴식, 여행, 나들이’라고 하였고 양육자의 주도하에 ‘뒤죽박죽 가족의 나들이’라고 정하였다.

사전 가족 협동화에 비해 사후 가족 협동화에서는 모두가 조화를 이루려는 모습이 많았고, 특히 예전에는 자신의 그림에만 몰두하던 경우가 많았지만 지금은 다른 사람의 그림에 색칠해주고 협력하는 모습을 통해 상호보완적인 상호작용이 이루어짐을 볼 수 있었다. 양육자 또한 한쪽 부분에 치우쳐 그림을 그렸으나 사후에서는 전체적으로 어울리는 그림을 그리며 전반적으로 안정된 분위기가 나타났다. 참여집단 ‘나’의 가족 협동화 변화는 다음 <그림 2>와 같다.



<그림 2> 참여집단 ‘나’의 사전·사후 가족 협동화 변화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아동양육시설의 아동과 양육자를 대상으로 가족놀이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아동과 양육자 간의 상호작용에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는지 사례를 분석하여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에 연구대상으로 아동 19명(만3세~14세)과 이 아동들을 담당하고 있는 양육자 2명이 참여하였고, 주 1회 총 6회기에 걸쳐 프로그램을 실시하였으며 사전·사후 가족 협동화를 실시하여 변화를 알아보았다. 아동과 양육자 간의 상호작용의 변화 내용을 분석하기 위해 매 회기 관찰, 녹음 및 녹화, 전사, 동료 검증,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Moustakas(1994)가 제안한 현상학적 분석방법을 사용해 심도 있게 사례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를 토대로 하여 아래와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1. 긍정적 인식 변화

가족놀이치료 프로그램은 아동과 양육자 간의 긍정적 인식 변화에 영향을 주었다. 초기 프로그램 진행과정에서 참여집단 ‘가’의 아동들은 양육자가 제공하는 신체접촉에 부끄러움을 보이며 눈을 맞추지 못하고, 이불 속에 숨거나 신체접촉을 거부하며 짜증과 불편감을 표현하였다. 그러나 중기 단계 이후 신체접촉을 놀이에 거부 의사가 줄어들고, 즐겁고 기분 좋은 감정을 언어로 표현하며 양육자와 함께하고자 하였다. 놀이 이외의 대화중에도 아동과 양육자 간 자연스러운 신체접촉이 나타났다. 참여집단 ‘나’의 경우 아동과 양육자 간의 신체접촉이 따뜻한 분위기로 이루어지기 보다는 과제 수행을 목표로 한 피상적인 상호작용이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중기부터 놀이 중 기대기, 안아주기, 손잡기 등의 신체접촉이 증가하였고, 참여집단 ‘가’와 같이 자연스러운 신체접촉이 증가하였다. 이와 같이 가족놀이치료 프로그램을 통한 아동과 양육자 간의 신체접촉의 경험은 서로 간의 즐거움을 제공하고, 자연스러운 신체접촉을 시도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가족과 함께 놀이하는 경험은 초기 신체접촉이 원활하지 않았던 부모와 자녀가 놀이 활동을 통해 신체접촉의 즐거움을 표현하고, 혼자 놀이하였던 아동이 부모와 거부감 없이 적극적으로 놀이하며 친밀감을 변화시킨다는 김효선(2011)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가족놀이치료 프로그램은 참여집단 내 힘의 구조로 형성된 구분된 친밀 관계가 허

물어지고, 형과 언니들은 동생을 돌봐주며 양육자를 인정하기 시작했다. 참여집단 ‘가’는 놀이를 수행하지 못하는 동생에게 면박주기, 놀리기, 눈치 보기 등 갈등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했으나 중기 이후 아동 간 즐거운 대화를 나누거나 장난을 치는 모습이 나타나며 동생에게 질책하기 보다는 규칙을 설명해주고 이해시키며, 동생들의 요구를 들어주려는 모습이 나타났고, 양육자와 함께 놀이하고자 하였다. 또한 놀림을 받았던 아동이 결석한 사유를 촉진자에게 이야기해주며 관심 표현이 증가하여 나타났고, 놀이 중 양육자에게 결정권을 맡기며 그것을 따르고자 하였다. 참여집단 ‘나’ 또한 아동과 양육자 서로의 눈치를 보며 친한 아동끼리 나뉘며, 아동의 잘못을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나 중기 단계로 접어들자 언니들은 동생들을 놀이에 참여시켜주고 자발적으로 함께 놀이하는 것이 가능했다. 또한 양육자가 오면 신발을 챙겨주고, 반갑게 맞이하는 등 서로 간의 긴장감이 줄어들고 관심이 증가하였다. 이와 같이 가족놀이치료 프로그램은 아동과 양육자 간의 정서적 유대감을 촉진시키고 그 안에서 새로운 친밀감을 재형성하게 되었다. 이것은 가족놀이치료 프로그램에서 긴장과 눈치 보는 행동이 줄어들고 가족 간 자유롭고, 편안한 모습이 증가하였다는 정현아, 선우현(2012)의 연구결과와도 유사하며, 가족놀이치료가 가족의 응집성과 적응성에서 개선 효과를 보여준다는 선우현(2007b)의 연구결과 또한 효과를 뒷받침해 준다.

양육자는 프로그램을 통해 아동들에게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 결과 아동들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었고, 특별히 아동과 양육자 사이에 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아동에게 관심을 표현하고 친밀감을 형성하고자 하는 노력을 보였다. 또한 놀이 수행에 있어 아동들이 협력하고자 하며, 친근하게 다가오는 모습을 통해 아동들에 대해 긍정적으로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표현하였다. 이는 부모와 자녀의 공동 놀이 경험이 회피, 무반응, 부정적인 가족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킨다는 한유진, 노남숙(2014)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또한 Keith와 Whitaker(1981)가 밝힌 가족놀이치료의 장점으로, 모와 자녀의 치료경험이 아동을 새롭게 알아가게 하는 것과 같다(이현주, 2010 재인용)는 결과를 보였다.

이와 같이 가족놀이치료 프로그램은 아동과 양육자 간의 신체접촉 놀이를 경험하게 함으로써 친밀감을 변화를 가져왔고, 다양한 놀이 활동을 통해 아동과 양육자 간의 긍정적인 새로운 인식 변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긍정적 정서 촉진

가족놀이치료 프로그램은 아동과 양육자 간의 긍정적 정서를 촉진시키는데 영향을 주었다. 참여집단 ‘가’는 프로그램 중 짜증, 분노, 통명스러움의 의사소통을 빈번하게 사용하였지만 점점 미소와 웃음이 증가하며 표정이 밝아졌고, 상냥함과 부드러운 말투가 증가하여 아동과 양육자 간에도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증가하였다. 참여집단 ‘나’는 경직되었던 표정과 말투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콧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며 큰 소리로 웃는 등의 긍정적인 정서가 증가하였고 지지와 칭찬의 말로 아동과 양육자 간의 상호작용의 분위기가 부드러워졌다. 아동들의 문제행동을 바로 소거하기 위해 양육자들은 지시와 통제, 강압적인 방법으로 아동들과 상호작용을 이루었으나 참여집단 ‘가’의 양육자는 차분하고 안정된 말투로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모습이 증가하였고, 참여집단 ‘나’의 양육자는 미소, 웃음, 공감의 눈물 등의 통해 긍정적인 정서적 상호작용을 이루어갔다. 상호작용의 어려움이 있는 가족에게 가족놀이치료를 건강한 상호작용을 촉진한다는 선우현(2007a)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가족놀이치료 프로그램의 개발에서 이론으로 적용한 가족치료놀이의 연구에서는 초기 굳은 얼굴표정과 아동에게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고, 덜 온정적인 모습, 적절한 통제를 제공하지 못하는 모가 자녀에게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따뜻하고 배려있는 모습이 증가하며 모와 자녀의 상호작용이 긍정적으로 향상되었다는 최순옥(2006)의 연구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이처럼 아동과 함께하는 즐거운 경험은 모에게도 정서적인 안정감을 제공하고 모의 심리는 아동의 치료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송현정(2006)의 주장과 같은 맥락이다.

참여집단 ‘가’는 프로그램 초기 참여 과정에서 촉진자의 요구에 낮은 관심을 보였고, 아동과 양육자 간의 불쾌한 감정을 싸움으로 표출하려는 경우가 많았지만 점점 웃음이 많아지고 불쾌한 감정은 프로그램 마지막 소감을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기분이 상하지 않게 표현하고자 하였다. 또한 표정과 말투에서 유쾌하고 즐거운 감정이 증가하였고 미안한 마음을 표현하고자 할 때, 양육자를 찾아와 언어로 표현하며 선물을 주기도 하였다. 참여집단 ‘나’ 또한 신체를 활용한 놀이에서 부정적인 감정을 다른 아동을 발로 차거나 공격하는 방법으로 표출하며 적절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중기 이후 함께 놀이하는 과정에서 즐겁게 대화하는 모습이 증가하였고, 양육자에게 꽃을 선물하며 미안한 감정을 전달하는 등의 정서 표현에 적극적이며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시도하였다. 가족놀이치료를 가족에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하며 부정적인 감정이 긍정적으로 변화시켰다는 박재훈, 선우현(2012)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3. 긍정적 관계 형성

가족놀이치료 프로그램은 아동과 양육자 간의 긍정적 관계를 형성하는데 영향을 주었다. 아동과 양육자는 서로의 입장을 공감하여 주고 지지해주는 모습은 이러한 긍정적인 관계를 촉진하도록 하였다. 아동과 양육자는 서로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듣고자 하며 함께 어려움을 이겨나가고자 하였다. 이와 같이 가족놀이치료를 통한 부모와 자녀 간의 경험은 관계의 거리를 좁히고,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이현주(2010)의 연구와 일치된다.

참여집단 ‘가’는 상대방의 이야기에 집중하기 보다는 대화 중 끼어들어 자신을 주목하게 하는 행동들이 빈번하게 나타났다. 하지만 점차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끝나면 이야기를 하거나 경청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양육자가 전체를 통제하는 과정에서도 집중하여 놀이가 원활하게 이루어졌다. 참여집단 ‘나’는 회기가 거듭 될수록 대화하는 태도에 있어 고개를 끄덕이며 눈을 맞추고 이야기하는 등 비언어적 방법을 사용하였고, 상대방의 이야기에 대답하며 공감을 표현하는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나타났다. 구조화된 가족놀이치료는 놀이와 소감나누기를 통해 가족 간의 의사소통과 상호이해가 촉진되는데 효과적이며 이완게임, 가족자유놀이 등의 활동은 아동의 충동성·과잉·주의 산만한 행동 경향을 감소시킨다는 이승희, 윤호열(2007)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아동과 양육자는 고민하고 있는 어려움을 표현하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 아동과 양육자 간의 유대관계가 형성되어 긍정적인 관계가 촉진되었다. 참여집단 ‘가’는 공동의 문제에 대해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합의점을 찾는 것이 어려웠으나 중기 이후에는 어려움에 처한 다른 사람의 입장을 대신 이야기해주고, 우는 사람에게 휴지를 건네주고 위로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또한 적절한 해결방법을 찾아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참여집단 ‘나’는 P가 울며 놀이를 할 수 없도록 하였으나 대부분 관여하지 않고 방관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중기 이후 P아동이 함께 할 수 있도록 관심을 보였고, 적극적으로 해결방법을 찾아보았다. 또한 어려움이 있는 사람에게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며 눈물을 흘리며 함께 공감하였고, 어려운 상황에 대해 양육자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모습도 나타났다. 참여집단 ‘가’와 B의 양육자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아동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려는 시도가 나타났고, 자신의 모습을 반성하는 모습도 나타났다. 이러한 아동과 양육자의 상호작용을 통해 서로에게 공감적이고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었다. 이처럼 가족놀이치료는 부모가 덜 위협적인 놀이를 통해 아동과 의사소통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를 통해 부모는 자녀와의 부정적이고 부적절한 상

호작용을 인식하고 변화하고자 하는 동기를 갖게 되며 이것은 아동의 행동 변화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선우현(2007a)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다. 또한 부모가 자녀의 마음을 공감적으로 이해하고, 자녀를 존중하고 촉진적으로 의사소통하게 되면 아동은 심리적 안전과 성숙을 보이고 문제행동이 적게 나타난다는 김연희(2005)의 연구와도 일치되게 나타났다.

4. 가족 협동화에서 나타난 상호작용 변화

가족놀이치료 프로그램 사전·사후 가족 협동화에 나타난 상호작용의 변화는 다음과 같다.

사전 가족 협동화에서 참여집단 ‘가’는 산만하고 공격적인 경향의 분위기 안에서 가족 협동화 그리기가 시작되었다. 순서를 결정하고 크레파스를 선택하는 과정은 경쟁적이었는데 그 상황에서 C가 아동들을 강압적으로 통제하여 가장 먼저 순위를 얻었으며 양육자는 통제하거나 관여하지 않았다. 가족놀이치료 프로그램이 진행된 후, 사후 가족 협동화 그리기에서는 양육자가 아동들에게 그리는 순서를 정해주었고 그것에 대해 아동들은 불평하지 않고 순응하며 아동과 양육자 간의 친밀감이 높아지고, 안정적인 위계질서가 나타났다. 또한 크레파스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침착하고 여유롭게 색을 살펴보고 그리는 동안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규칙 또한 수행해 내 양육자의 칭찬이 이루어졌다. 이와 같이 아동과 양육자 간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증가하였다.

사전 가족 협동화 그리기에서 아동들은 의미를 지니지 않는 선을 그어 양육자는 그리는 것을 포기하였고, 아동 간에도 그림에 방해를 하고 서로 비방하는 내용을 그림에 적었다. 가족놀이치료 프로그램 진행 이후, 사후 가족 협동화 그리기에서는 H와 I가 선을 긋고 장난을 쳤으나 나머지 아동들은 양육자가 그린 그림을 덧칠해주며 형체를 알아볼 수 있도록 도왔고, 권위를 세워주었다. 또한 동생들에게 질책하지 않고 수용해주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며 긍정적 관계를 형성하였다.

사전 가족 협동화 그리기에서는 그림의 제목을 결정하지 못하였으나 사후 가족 협동화 그리기에서는 아동과 양육자가 협력하여 ‘활발 깨끗 행복한 집’으로 결정하며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참여집단 ‘나’의 사전 가족 협동화 그리기는 양육자의 지시에 따라 순서를 정하였고 서로 눈치를 보며 자유로운 분위기가 낮았다. 양육자는 왼쪽 부분에 집중적으로 그림을 그렸지만 가장 많은 면적을 사용하였고 서로 그리고 싶은 것을 그렸다. 가족놀이치료

프로그램 진행 후 사후 가족 협동화 그리기에서는 양육자의 관여가 보다 적었고 양육자의 눈치를 보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자유로운 상호작용이 이루어졌다. 양육자는 종이 전체에 그림을 그리며 아동들과 상호작용을 활발하게 이루어나갔다. 또한 아동들은 그림과 연관된 소재들을 그리고, 참여집단 ‘나’의 인물들을 모두 그렸다. 참여집단 ‘나’는 서로 덧칠을 해주며 상호보완적인 상호작용의 모습이 증가하였다.

사전 가족 협동화 그리기에서는 다양한 제목을 이야기하였지만 결국 정하지 못했다. 그러나 사후 가족 협동화 그리기에서는 ‘뒤죽박죽 가족의 나들이’로 표현하며 참여집단과 같이 협력적이고 가족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참여집단 ‘가’와 B의 가족 협동화 그리기는 아동과 양육자 간의 긍정적이고, 협력적인 상호작용이 증가하여 나타났다.

본 연구는 아동양육시설의 아동과 양육자의 가족놀이치료 프로그램을 통해 상호작용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아동과 양육자 간의 긍정적 인식변화가 나타났다. 가족놀이치료 프로그램은 신체접촉을 거부하고, 함께 놀이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아동과 양육자 간의 상호작용에 친밀감을 형성하여 자유로운 신체접촉 및 관심표현을 증가시켜 긍정적 인식변화를 이끌었다. 둘째, 아동과 양육자 간의 긍정적 정서촉진이 나타났다. 가족놀이치료 프로그램은 아동의 짜증과 분노 표현, 양육자의 지시적이고 통제하는 의사소통 방식을 유쾌하고 즐거운 정서적 상호작용을 통해 미소와 웃음을 촉진하고, 상냥하고 부드러운 의사소통 방식으로 변화시켜 긍정적 정서 촉진을 이끌었다. 셋째, 아동과 양육자 간의 긍정적 관계형성이 나타났다. 가족놀이치료 프로그램은 낮은 자기표현, 산만하고 충동적인 행동방식으로 낮은 유대감을 형성한 아동과 양육자 간에 공감적 상호작용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긍정적 관계형성을 이끌었다. 결론적으로 가족놀이치료 프로그램은 양육시설의 아동과 양육자 간의 상호작용에 긍정적 인식 변화를 이끌고, 긍정적 정서를 촉진하며 긍정적 관계를 형성하는데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가정해체와 친부모와의 분리를 경험하고 새로운 가정인 아동양육시설에 적응해야 하는 아동에게 심리적 안정감 및 사회 적응을 위한 개인 심리치료 서비스가 현재 요구되고 있으며, 치료과정에서 그와 함께 거주하는 아동 및 양육자와의 관계 또한 아동 개별 치료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아동양육시설에 거주하는 아동과 양육자가 치료 과정에 함께 참여하게 되는 가족놀이치료 프로그램은 아동과 양육자 모두에게 효과적인 치료적 접근이 된다고 할 수 있다. 가족놀이치료 프로그램은 원 가정과의 단절 경험을 통해 부모와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하기 어려웠던 아동과 초기 애착을 경험하지 못

한 현재의 양육자 간의 적응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자연스러운 놀이를 통해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우며, 공감과 수용을 바탕으로 상호작용하며 공동된 정서를 나눔으로써 아동과 양육자 간의 새로운 인식 및 긍정적인 관계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한다. 더불어 아동과 양육자 간의 놀이를 통해서 갈등을 경험하고 해결하는 과정은 앞으로의 다양한 갈등 앞에 함께 극복하고자 하는 동기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아동에게 보다 건강한 상호작용을 경험하게 하고 양육자 또한 아동을 돌보는 일에 심리적 소진을 줄여 줌으로써 효과적으로 기능하도록 한다. 따라서 아동양육시설의 아동과 양육자 외에도 일반가정, 입양가정 및 재혼가정의 아동과 양육자에게 긍정적 상호작용을 위한 치료적 접근으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는 그러나 만3세~14세의 총 2팀의 아동양육시설의 아동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로써 연구 결과를 전체 아동양육시설의 가족에게 일반화하기 어렵다. 따라서 앞으로 다양한 연령대의 아동과 양육자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의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본 연구는 아동의 양육자가 2인이지만 교대 환경 여건으로 1인의 양육자와 가족놀이치료 프로그램을 구성하게 되어 아동양육시설 내 함께 거주하는 전체 집단이 함께한 연구결과와 다소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후속연구에는 모든 양육자가 참여한 가족놀이치료 프로그램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참고 문헌

- 강복정·이정덕(1999). 시설청소년의 가족상에 관한 사례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7(3), 15-26.
- 권세은·이순형(2002). 시설보호 아동과 일반아동의 사회적 기술, 정서조망능력의 비교, 아동학회지, 23(2), 107-120.
- 김광웅·유미숙·유재령(2010). 놀이치료학, 학지사.
- 김명성(2011). ADHD 성향을 가진 아동양육시설아동의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학술지임상사회사업연구지, 8(2), 23-45.
- 김보람·이경숙·박진아·이지성(2008). 시설보호아동의 인성과 정서 및 행동문제: 성차를 중심으로, 한국여성심리학회지, 13(1), 43-61.
- 김선희(2002). 시설청소년의 생활실태에 관한 연구 : 소규모 아동양육시설을 중심으로, 대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수정(2009). 가족치료놀이, 공동체.
- 김수정·김영미·이화명(2013). 아동양육시설 보호청소년의 사회적 지지가 학교적응 및 스티그마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학회지, 20(10), 27-52.
- 김연희(2005). 부모의 개방적 의사소통과 아동의 행동문제와의 관계 : 자아존중감과 자기통제력을 매개변인으로,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유숙(2006). 재혼가정에 대한 단기가족놀이치료의 적용사례, 한국여성심리학회지, 11(3), 311-325.
- 김유진(2007). 치매노인 가족의 간병 경험에 관한 선행적 현상학 연구, 한국노년학회지, 27(4), 963-986.
- 김윤경(2012). 입양 모자가정의 치료놀이 사례,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9(3), 219-238.
- 김춘경·김기영(2004). 시설아동의 사회적 기술 증진을 위한 집단놀이치료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 한국아동심리재활학회지, 8(1), 19-35.
- 김현자·한성심·서명원(2008). 양육시설아동의 정신건강과 아동복지적 접근, 아시아아동복지연구지, 6(1), 29-48.
- 김형숙(2012). RAD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을 위한 가족치료놀이 참여 과정과 의미: 현상학적 관점을 중심으로,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23(1), 9-49.
- 김효선(2011). 가족놀이음악치료를 통한 부모-자녀관계 증진, 명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노병일·김주연(2008). 시설아동의 일상적 스트레스가 학교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지, 25, 107-126.

- 노혜련·장정순·백은형(1997). 시설아동의 심리사회적 실태와 상담욕구에 관한 연구, 서울 : 한국아동단체협의회.
- 박미경·문혁준(2009). 시설보호 아동과 일반가정 아동의 정서지능, 사회적 능력, 학교생활만족도와 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47(2), 1-13.
- 박영준(1997). 육아시설아동의 생활환경요인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사회복지개발연구 3(2), 133-155.
- 박재훈·선우현(2012). 가족놀이치료를 통한 희귀난치성질환 환우 가족의 상호작용 변화 연구: 루게릭질환 환우가족을 중심으로,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23(3), 117-152.
- 박진희(2014). 국내 가족놀이치료 효과연구 분석,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9(2), 55-74.
- 배진희(2007). 집단미술치료가 시설보호아동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효과, 목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보건복지부(2015). 2015년 아동분야 사업안내.
- 선우현(2006). 학습장애 아동의 자아존중감 및 자기효능감 향상을 위한 가족놀이치료의 효과성 사례연구, 한국아동교육학회지, 16(1), 201-211.
- 선우현(2007a). 가족놀이치료가 정서 및 행동장애 아동과 부모와의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한국정서·행동장애아교육학회 23(4), 197-216.
- 선우현(2007b). 가족놀이치료가 정서장애 아동과 부모와의 비언어적 의사소통 향상에 미치는 효과성 연구, 한국정서·행동장애아교육학회 학술발표논문집, 1, 91-106.
- 선우현(2007c). 위계질서가 혼란된 가족의 가족놀이치료 사례연구, 한국가족치료학회지 15(2), 389-406.
- 선우현(2013). 상호작용 가족놀이치료 프로그램 효과성 연구, 놀이치료연구, 17(1), 69-81.
- 성미영(2006). 시설보호 여부에 따른 아동의 정서성 발달과 내면화 및 외현화태도문제, 한국생활과학회지, 15(1), 17-29.
- 성미영·설경옥(2012). 시설보호 아동의 행동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보호요인과 위험요인 탐색, 한국아동교육학회지, 21(2), 147-160.
- 성영혜(1997). 가족놀이치료, 상조사.
- 성영혜·김영진(1997). 아동복지, 동문사.
- 송영혜·박진희(2000). 게임놀이치료가 시설아동의 적응행동에 미치는 효과, 놀이치료연구지, 4(1), 103-117.
- 신혜령·안혜영·김성경·문성윤(2002). 시설보호아동의 자립지원정책의 개선방안, 국립보건원보.

- 신혜숙(2009). 시설아동의 공격성 감소에 대한 아동양육시설의 양육자의 역할연구, 호남신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심혜옥(2011). 행동규제가 힘든 시설아동이 모래놀이치료를 통해 의식화 되는 과정에 관한 사례연구, 놀이치료연구 15(3), 101-116.
- 양숙미·임원신·최미옥(2005). 아동중심 놀이치료가 시설아동의 우울 및 공격성 감소에 미치는 효과, 아시아아동복지연구지, 3(1), 35-48.
- 양승미(2010). 아동생활시설 생활지도원의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양승연·오정란·권지성(2012). 아동양육시설 아동의 적응유연성 형성과정에 대한 근거이론 연구, 한국아동복지학회지, 39, 93-126.
- 양점도·변미희(2001). 아동복지시설의 양육환경이 아동·청소년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복지연구, 3(2) (2001. 10), 13-23.
- 유가효·위영희·문현주·이희정·김태은(2010). 놀이치료의 이해. 양서원.
- 윤미원·김윤경·신형정(공역)(2011). 치료놀이. 서울: 학지사.
- 이승희·윤호열(2007). 가족놀이치료가 주의력결핍 과잉행동 경향을 지닌 아동 가족의 가족기능과 아동의 주의산만 행동에 미치는 효과, 놀이치료연구 11(2), 43-69.
- 이은영·황예원·김진현(2011). 아동 공동생활가정 생활지도원의 직무만족에 영향, 청소년복지연구 13(1), 69~25.
- 이진숙·한지현(2006). 시설보호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과 행동문제간의 관계, 한국생활과학회지 15(6), 951-959.
- 이현주(2010). 통합적 가족놀이치료를 통한 ADHD아동 가족의 가족체계 변화 및 치료적 요인,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전규용(2003). 시설아동의 심리사회적 환경과 사회부적응 행동에 관한 연구, 경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선옥(2006). 시설보호 아동의 보육사 관계 경험 연구, 한국아동복지학 21, 115-145.
- 정현아·선우현(2012). 가족놀이치료가 맞벌이 가정의 부모-자녀 상호작용에 미치는 효과, 한국청소년시설환경학회지, 10(4), 129-140.
- 조홍식·정선옥·김진숙·권지성(공역)(2010). 질적 연구방법론: 다섯 가지 전통. 서울: 학지사.
- 최성수(2009). 아동양육시설 생활지도원의 직무만족도에 관한 연구: 서울·경기 아동양육시설을 중심으로, 서울신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순옥(2006). 가정폭력피해가족을 위한 가족치료놀이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한국가족 복지학회지, 11(1), 5-21.
- 최영주(2001). 보육사의 양육태도가 시설청소년의 자아정체감 형성에 미치는 영향, 대구 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한성김·하승민·윤혜미(2012). 아동복지론, 양서원.
- 한유진·노남숙(2014). 애착문제 유아 가족을 위한 인형을 이용한 가족놀이치료 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2(3), 115-135.
- 홍정애·성영혜(2007). 가족놀이치료가 발달장애아동과 부모의 상호작용에 미치는 효과, 한국놀이치료학회지, 10(3), 1-15.
- Eaker, B.(1986). Unlocking the family secret in family play therapy. *Child and Adolescent Social Work, 3(4)*, 235-253.
- Griff, M. D.(1983). *Family play therapy*. In Schaefer, C. E., & O'Connor, K. J.(Eds.), *Handbook of play therapy*, 65-75. New York: Wiley.
- Moustakas, C.(1994). *Phenomenological research methods*. Thousand Oaks, London, New Delhi: Sage Publications.
- Thoburn, J.(1994). *Child placement:principle and oractice*. Arena.

〈Abstract〉

A Case Study on Interaction between Institutionalized Child and Care-giver with Application of Family Play Therapy

Kim, Hyo Jeong · Sunwoo, Hyun
Myongji University, Myongji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experiences in interaction changes between institutionalized child and care-giver with application of family play therapy. In order to analyze interaction changes between institutionalized child and care-giver, Moustakas(1994) phenomenological research methods were used. For evaluation of interaction changes through the family play therapy, pre and post family cooperation was implemented. Participants were children in an institution in Seoul, aged from 3 to 14 years and their care-givers.

The concrete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family play therapy developed intimacy in interaction between institutionalized child and care-giver, thus bringing about positive perspective change. Second, family play therapy increased pleasant and enjoyable emotional interaction, resulting in positive emotional enhancement. Third, family play therapy enabled institutionalized child and care-giver to experience empathetic interaction, thus forming a positive relationship. It is concluded that family play therapy is an effective way of bringing positive interaction changes between institutionalized child and care-giver.

Key words : Family Play Therapy, Institutionalized Child and Care-giver, Interaction between Institutionalized Child and Care-giver

즉흥연주 중심 창작음악극 활동이 교육복지특별지원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 만 5세 유아를 중심으로 -

양예슬·문소영*
명지대학교

본 연구는 즉흥연주 중심 창작음악극 활동이 교육복지특별지원 대상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는데 목적이 있다. 교육복지특별지원 대상 유아란 양육자가 법정 저소득층, 차상위층, 다문화 가족, 북한이탈주민의 조건에 해당하거나 담임교사 추천(교육 취약 및 위기 가정의 유아)을 받은 유아를 지칭한다. 이러한 유아는 가족 구조의 형태나 소득 수준에 따른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또래와의 관계에서 문제를 보이거나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스트레스에 취약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유아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한 즉흥연주 중심의 창작음악극 활동은 노래 부르기, 악기 연주, 즉흥연주로 구성되었으며 과정 중심의 활동으로 고안되었다. 즉흥연주 중심 창작음악극 활동을 적용한 실험집단은 중재 전과 비교하여 일상적 스트레스의 전체 점수가 감소하였으며($p < .000$), 하위 영역인 비난·공격적 상황에 접함($p < .000$), 불안·좌절감 경험($p < .000$), 자존감 상함($p < .004$)에서 의미 있게 감소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즉흥연주 중심 창작음악극 활동이 교육복지특별지원 대상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핵심어 : 음악치료, 즉흥연주 중심 창작음악극, 교육복지특별지원 유아, 일상적 스트레스

* 교신저자: 문소영(symoon@mju.ac.kr)

■ 게재 신청일 : 2015년 8월 3일 ■ 최종 수정일 : 2015년 8월 24일 ■ 게재 확정일 : 2015년 8월 26일

I. 서론

교육복지특별지원 대상 유아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법정 한 부모 가족의 자녀, 다문화·탈북 가족 자녀 등 종합적인 교육지원과 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교육소의 유아를 말한다(서울시교육청, 2014). 교육복지특별지원 대상이 되는 유아는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여러 가지 사회·정서적 문제를 겪는다. 이러한 환경에 놓인 유아는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한 스트레스를 극복하거나 해결하지 못하면, 스트레스가 점차 누적되어 문제 행동이 빈번해지거나 정서적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유아의 스트레스는 자극의 강도에 따라 ‘중대한 생애사건(major life event)’과 ‘일상적 스트레스(everyday stress or daily hassles)’로 구분할 수 있다(Band & Weisz, 1998; Lazarus & Folkman, 1984). 중대한 생애의 사건은 가족의 사망, 부모의 이혼, 질병으로 인한 입원, 학대, 이사, 전학 등이 있다. 한편, 일상적 스트레스로는 꾸중을 듣거나 유아들이 흔히 일상에서 경험하는 사소하지만 부담스러운 경험으로 또래에게 놀림을 받는 것, 속상하거나 놀랐던 경험으로 인한 심리적 변화 등이 있다. 이처럼 유아의 스트레스의 큰 요인은 가정 또는 유아가 속해 있는 기관 또는 집단으로부터 찾을 수 있다. 유아의 과도한 스트레스는 유아기의 건강 발달에 해가 될 수 있으며(Elkind, 1984), 안정감이 없는 증세와 행동, 학교 도피증, 학습된 무기력감과 같이 학습적 부적응 행동을 초래한다(문금순, 1993). 또한 유아의 스트레스는 좌절감이나 분노심, 공포심, 우울감, 소외감, 불안감, 압박감, 거부감, 긴장감 등의 정서적인 부적응 행동을 가져온다(엄현경, 1998).

교육복지특별지원 대상이 되는 유아는 가정의 해체, 경제적 빈곤, 문화적 차이와 같은 환경적 영향으로 인해 스트레스에 직접적으로 노출될 위험이 크다. 가족의 부재로 인한 환경에서 성장한 유아는 가족 간의 상호작용이 제한되거나 단절되어 또래 집단과의 관계 형성에서도 어려움을 겪는다(조용태, 이근매, 이도균, 2004). 또한 다문화 가정의 유아는 언어적 제한으로 인해 사회 적응의 지연을 가져오고, 또래 집단 내에서 소통이 단절되어 소외된 경험을 하게 된다(이혜원, 2013). 교육복지특별지원 유아는 이러한 환경에서 성장하며 점차적으로 스트레스가 발생되고, 이를 스스로 해소하지 못해 사회·정서적 측면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한편 유아기는 발달속도가 빠르며 인격의 기초가 확립되는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또한 유아기는 음악적 지능발달도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진다(전인옥, 이숙희, 1997). 그

러나 유아는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기에 미숙한 한계점을 갖고 있다. 이와 같은 유아기 특징을 고려하여 유아는 다양한 음악적 경험을 통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고 분출하며 표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또한 유아에게 음악적 발달 특성에 맞는 의미 있는 음악적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유아의 신체, 언어, 정서, 인지적 발달을 도울 수 있다. 따라서 음악은 유아의 전인적 발달을 위한 긍정적인 수단으로 작용한다.

창작음악극이란 음악적 활동을 주 매개체로 하여 치료적 내용과 목적을 내포한 이야기 속에 유아는 직접 참여하여 구성하는 과정 중심의 활동이다(정현주, 김동민, 2005). 즉흥연주 중심 창작음악극 활동은 다양한 음악적 경험으로 구성된다. 본 연구에서 진행되는 창작음악극은 동화를 배경으로 노래 부르기, 악기 연주, 즉흥연주를 통한 동작 표현이 결합된 활동이다. 이러한 음악적 경험은 유아에게 다양한 감정을 분출하고 표현하는 경험을 제공한다. 자신이 감정을 표현하는 것에 서툰 유아는 자신의 감정을 음악적 경험 안에서 표현하고 표출함으로써 스트레스를 감소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음악, 극놀이, 동작 활동과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면, 김지연(2005)의 연구에서는 노래 부르거나 신체표현을 더한 음악활동을 처치한 유아들이 스트레스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김동은, 전인옥(2014)의 연구에서는 난타 음악활동이 유아의 스트레스 하위변인인 비난·공격적 상황에 접함, 불안·좌절감 경험, 자존감 상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양진희, 박윤(2007)은 동화를 주제로 한 극놀이 활동을 통해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 특성을 보이게 되었고, 사회적 지지를 통해 사회적 적응 행동을 증진시켜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갈등 상황에 잘 대처하게 함으로써 일상적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데 효과가 있음을 입증하였다. 권경아, 문현상(2001)은 동작 활동을 통해 신체 발달, 사회적 능력을 증진시켜 유아의 공격성, 불안, 걱정, 긴장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감소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이렇듯 음악, 극놀이, 동작 활동은 여러 선행연구에서 유아의 사회·심리적 환경에서의 안정 및 스트레스 감소에 효과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지만, 3가지 활동이 모두 결합된 활동을 적용한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보완하여, 연구자가 유아의 동작과 상황에 맞게 음악을 즉흥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유아 자신의 아이디어로 동작 표현의 범위를 확장시키고 지지할 수 있도록 하여 음악, 극놀이, 동작의 요소가 모두 적용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창작음악극 내에서 동작 표현을 위해 사용되는 즉흥연주는 여러 가지 치료적 의미가 있다. 자유롭고 창의적인 동작 표현은 음악과 관련될 때 더 즐거워지고 음악적 이해도 쉬워진다(김명순, 조정자, 1998). 이는 음악과 함께 진행되는 탐색, 모방, 즉흥, 창작의

동작 표현이 유아에게 강압적이지 않은 분위기 속에서 무한한 상상과 표현을 자극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창작음악극에서 사용되는 즉흥연주는 오르프 즉흥연주모델에 기초하여 노래, 리듬 말하기, 손뼉 치기, 춤추기, 일상생활의 사물 두드리기 등 유아가 즐겨하는 음악적 행동에 중점을 두고 있다(Carl, Gunild, Keetman, & Orff, 1977). 오르프 즉흥연주모델에서 음악은 동작을 강화시키고, 동작 또한 음악을 강화시킨다고 설명한다(Bruscia, 1998). 이는 음악이 동작의 구조를 제공하거나 동작의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데 사용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치료사가 치료 상황 하에 제공하는 음악적 자극은 유아의 의사소통을 일으키는데 도움을 주며(Carl et al., 1977), 유아가 과정 중심의 창작음악극 안에서 스스로 창조적 경험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유아는 그들이 속해 있는 그룹 안에서 공동의 창작물을 이끌어 가는 과정을 경험하게 되고, 나아가 심리적 역동, 상호작용의 경험을 제공한다. 이처럼 창작음악극은 유아에게 치료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활동으로 적합하며, 유아의 전인적인 발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에 본 연구는 교육복지특별지원 대상 유아를 대상으로 한 즉흥연주 중심 창작음악극 활동이 유아의 스트레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 참여한 유아는 서울시 동작구 교육복지특별지원 지정유치원으로 선정된 기관에 재원하고 있으며, 교육복지특별지원 대상 기준(법정, 편부모, 다문화, 저소득 가정의 유아, 담임 추천 유아)에 해당되었다. 대상 연령으로는 연구자가 선정한 동화를 음악적 활동으로 구성해 나가는 과정 중심의 창작음악극 활동을 적용하기 위해 조복희(1996)가 설명한 신체적·언어적인 표현이 자유로운 특성을 보이는 유아기(Early Childhood)에 해당되는 만 5세로 선정하였다. 여기서 담임 추천에 해당되는 유아는 가족의 형태나 소득에 관계없이 부모의 맞벌이, 양육 환경의 불안정 등 교육 기회의 부재로 인해 담임교사가 추천한 유아이다.

교육복지특별지원 대상이 되는 유아를 실험집단 15명(남 6명, 여 9명), 통제집단 15

명(남 6명, 여 9명)으로 무선 배치하였다. 유아를 대상으로 한 스트레스 관련 국내 연구의 실험집단 인원을 살펴보면, 최유정(2008)의 연구에서는 42명(실험 21명, 통제 21명), 박선영(2010)의 연구에서는 20명(실험 10명, 통제 1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것을 확인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유아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의 최대 인원수와 최소 인원수의 중간 범주인 30명(실험 15명, 통제 15명)을 기준으로 배정하였다.

〈표 1〉 연구 대상자의 특성

집 단	성 별		평균연령	법 정	편부모	다문화	저소득	담임추천
	남	여						
실험집단 (n=15)	6	9	5년 4개월	1	1	2	6	5
통제집단 (n=15)	6	9	5년 6개월	1	0	1	6	7
총 30명	12	18	5년 5개월	2	1	3	12	12

2. 연구도구

가. 한국형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 검사

본 연구에 사용된 측정 도구는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 상황을 연구하기 위해 염현경(1998)이 개발한 한국형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 척도(Korea Preschool Daily Stress Scale: KPDSS)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만 3~6세의 유아를 대상으로 제작되었으며, 유아들로 하여금 문항에 대한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 남녀용 그림카드와 스트레스 평정 동그라미 그림 자료 등을 사용하여 실시하였다. 본 검사지의 하위 영역은 비난·공격적 상황에 접함, 불안·좌절감 경험, 자존감 상함의 3개 영역의 총 2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척도에 대한 자세한 구성은 다음과 같다.

〈표 2〉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 척도 구성

하위 요인	개 념	문항 구성	신뢰도
비난·공격적 상황에 접함	유아가 친구나 부모님에 의해 갈등이 생기는 상황에 처하거나 공격적 상황을 경험하는 상황을 말한다.	6, 8, 9, 10, 23	.62
불안·좌절감 경험	유아 자신이 원하는 행동을 하지 못하거나, 목표로 하는 일이 어떤 대상이나 상황에 의해 방해를 받고 불쾌한 감정을 경험하는 상황을 말한다.	1, 2, 3, 5, 7, 11, 12, 13, 19, 20, 21, 22	.68
자존감 상함	유아가 부모님 또는 선생님께 칭찬을 받지 못한다거나 비교 대상이 되어 자신의 수행에 대해 자신감이 저하되며 느끼는 상황을 말한다.	4, 14, 15, 16, 17, 18	.66
전체	유아가 일상생활 중 경험하는 사소하지만 부담스러운 사건을 의미하며 좌절감, 분노심, 공포, 우울감, 불안감, 압박감, 거부감, 긴장감을 유발시키는 상태를 말한다.		.80

3. 즉흥연주 중심 창작음악극 프로그램

본 연구에서 진행되는 세션은 총 40분으로 진행되었으며 총 12회기로 구성되었다. 매 회기는 인사노래, 창작음악극 활동, 마침노래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본 활동은 각 장면을 구성하여 창작음악극을 완성하게 되는 과정 중심의 활동으로 진행된다.

〈표 3〉 각 회기의 구성

단 계	목 표	구 성	내 용	시 간
도 입	관계 형성	인사노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동의 시작을 알리고 반갑게 인사하며 적극적인 참여와 동기를 유도한다. • 누리교육과정에 해당되는 주제에 맞춰 새노래를 다 함께 부른다. 	5분
전 개	등장인물의 감정경험 및 감정인식	동화듣기 역할정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화의 내용을 듣고 각 등장인물의 감정을 경험한다. • 유아가 자유롭게 역할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5분
	상상력 및 창의성 향상 감정표현과 분출	즉흥연주를 통한 동작표현 악기연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하는 장면을 연상할 수 있는 연구자의 즉흥연주를 듣고 유아가 등장인물의 감정과 상황을 동작으로 표현하며 악기를 자유롭게 연주한다. 이때 연구자는 유아의 창의적인 동작표현을 위해 유아가 표현하는 동작에 맞게 즉흥연주로 음악적 지지를 한다. 	20분
	자존감 향상 긍정적인 정서 발달	음악극 회상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작음악극에서 진행된 이야기를 회상하고,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다 같이 주제를 부른다. 	5분
마무리	활동의 마무리	마침노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동을 정리하며 노래로 인사를 나눈다. 	5분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12회기의 음악치료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프로그램은 총 3단계인 탐색 단계, 창작 단계, 완성 단계로 진행된다. 본 연구에 사용된 창작음악극 활동에서 사용된 동화는 ‘어디로 갔을까 나의 한 쪽은’으로, 쉐일버스타인의 원작을 이재명이 옮긴 그림 동화를 사용하였다. 이 동화의 내용은 이가 빠진 동그라미가 잃어버린 조각을 찾아 길을 떠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조각과 나비, 벌레와 같은 친구들을 만나며 행복을 느끼고 일상생활에서도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희망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창작음악극에 관한 선행연구에서 김주애(2014)가 이 동화를 토대로 악기 연주, 송라이팅, 노래 부르기 활동을 통해 시설보호아동의 자기표현력 향상에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정현주와 김동민(2005)의 ‘아동들을 위한 음악치료 놀이극’에 2가지 창작음악극 사례가 수록되어 있어 치료적 효과가 입증되었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연구자는 유아가 악기 연주와 동작 표현을 통해 또래와의 상호교류와 정서적 만남의 기회를 접하고 음악과 이야기가 엮어내는 구조 내에서 긍정적인 경험을 가질 수 있도록(정현주, 김동민, 2005), 동화 흐름에 맞춰 다양한 악기를 제공하여 프로그램을 계획하였다.

〈표 4〉 즉흥연주 중심 창작음악극 프로그램의 내용

단계	회기	프로그램 내용	동작 자료	음악적 자료	치료적 논거
탐색 단계	1	1) 인사 노래 2) 규칙송 만들기 3) 동화 듣기	• 인사하기 동작	피아노 롤리팝드럼 뽀뽀	• 규칙송은 또래 관계 속에서 지켜야 할 점을 알고, 활동의 참여도와 흥미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준다.
	2	1) 주제가 배우기 ‘어디로 갔을까 나의 한 쪽은’ 2) 역할 나누기 3) 동화 오프닝	• 이 빠진 동그라미 • 여행을 떠나는 동그라미	피아노 핑거심벌	• 동화 내용에 맞는 동작을 만드는 과정은 유아 스스로 자신의 신체를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동작을 표현함으로써 문제 상황에 대한 해결력을 기른다. 그로 인해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판단력 및 문제 해결력 향상에 도움을 준다.
창작 단계	3	여행을 떠나는 동그라미	• 뜨거운 햇살1 • 서늘한 소나기 • 뽀뽀 얼은 눈 • 뜨거운 햇살2	윈드차임 썸머튜브 레인스틱 템플블록	
	4	즐겁게 여행하는 동그라미	• 아름다운 무지개 • 꿈틀꿈틀 벌레 • 향기로운 꽃 • 날쌔 풍뎅이 • 아름다운 나비	돌림실로폰 클래터필터 슬레이벨 핸드벨 핸드차임	

단계	회기	프로그램 내용	동작 자료	음악적 자료	치료적 논거	
창작 단계	5	다양한 조각을 만나는 동그라미 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동 바다를 건너는 동그라미 • 비탈진 산길 오르는 동그라미 • 한 조각을 찾아 좋아하는 동그라미 	오션드럼 템플블록 돌림실로폰 핑거십벌		
	6	다양한 조각을 만나는 동그라미 I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러 가지 모양의 동그라미 조각들 • 크기가 맞지 않아 잃어버리거나 부서진 동그라미 조각들 • 구덩이에 빠진 동그라미 • 돌담에 부딪힌 동그라미 	웨이프드럼 키즈드럼 카바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룹원과 함께 만들어 가는 동작활동은 타인과의 원만한 의사소통 및 상호 교류를 위한 사회적 기술 향상을 돕는다. 이로 인해 유아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초래되는 갈등 상황에 대해 긍정적으로 해결하는데 도움이 된다. 	
	7	조각을 만난 동그라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그라미에게 꼭 맞는 조각의 출현 • 짝을 찾은 동그라미 • 조각을 찾아 빠르게 굴러가는 동그라미 • 너무 빨리 굴러가 벌레, 꽃, 나비를 지나쳐가는 동그라미 • 입이 열리지 않은 채 노래 부르는 동그라미 	돌림실로폰 클래터필터 슬레이벨 핸드벨 핸드차임 아고고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악과 결합된 동작활동은 신체의 움직임을 유도하여 여러 가지 형태의 동작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돕는다. 	
	8	조각을 빼버린 동그라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는 길을 멈추는 동그라미 • 곰곰이 생각하는 동그라미 • 조각을 빼는 동그라미 	우드블록 리듬스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작을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활동은 유아의 감정과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는데 도움을 준다. 이는 유아가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상황에 대한 감정과 생각을 표현하고 분출하는데 도움이 된다. 	
	9	동그라미가 다시 여행을 떠나는 장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시 자신의 노래를 찾은 동그라미 • 흥겹게 노래 부르며 굴러가는 동그라미 	핑거십벌 돌림실로폰		
	10	동그라미의 행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벌레, 꽃, 풍뎡이, 나비를 다시 만난 동그라미 • 햇살, 소나기, 눈을 다시 만난 동그라미 • 행복을 느끼는 동그라미 	슬레이벨 핸드벨 핸드차임 윈드차임 레인스틱 썬더튜브 핑거십벌		
	구성 단계	11	창작음악극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동을 통해 만들어진 모든 동작 회상하기 	활동에 사용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악과 결합된 동작활동은 부정적 감정은 발산하고, 긍정적 감정은 지지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는 유아의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심리·정서적으로 안정된 환경을 제공한다.
		12	창작음악극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장 재미있었던 장면 또는 동작 발표하기 	모든 악기	

Ⅲ. 자료분석

본 연구의 결과는 양적 변화와 내용 분석에 따른 스트레스 행동 변화에 의해 분석되었다. 양적 분석으로는 한국형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 척도를 사용하여 계산된 점수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은 모두 유의수준 $p < .05$, $p < .01$, $p < .001$ 에서 검증하였으며, 통계처리는 SPSS WIN 21.0v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내용 분석을 위해 유아 스트레스 행동 관찰척도를 사용하였다. 내용 분석은 창작 단계인 2회기부터 10회기까지를 3단계로 나눠 관찰된 유아 스트레스 행동 변화를 행동적, 언어적 측면으로 분석하여 변화를 알아보았다.

Ⅳ. 결 과

1. 유아 스트레스의 변화

가.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 동질성 검사

활동 전 두 집단의 일상적 스트레스 수준이 동질한 지 살펴보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두 집단의 일상적 스트레스는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즉 비교대상 두 집단의 활동 전 일상적 스트레스 수준이 동일함을 알 수 있다.

〈표 5〉 활동 전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 동질성

변 인		집 단	N	M	SD	t	p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	비난·공격적 상황 접함	실험	15	10.60	1.80	-.444	.661
		통제	15	10.93	2.28		
	불안·좌절감 경험	실험	15	23.40	2.53	-.053	.958
		통제	15	23.47	4.14		
	자존감 상함	실험	15	9.47	3.11	-.128	.899
		통제	15	9.60	2.59		
전체	실험	15	43.47	4.82	-.367	.716	
	통제	15	44.00	2.90			

나.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 사전-사후 검사

두 집단 간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대응표본 *t*-검정을 실시한 결과 실험집단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가 뚜렷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실험집단 내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 변화

변인		사전	사후	평균차	<i>t</i>	<i>p</i>	
비난·공격적 접합	M	10.60	6.20	4.40	5.516***	.000	
	SD	1.80	2.04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	불안·좌절감 경험	M	23.40	19.20	4.20	4.747***	.000
		SD	2.53	3.00			
	자존감 상함	M	9.47	7.20	2.27	3.407**	.004
		SD	3.11	1.97			
전체	M	43.47	32.60	10.87	5.979***	.000	
	SD	4.82	4.17				

** $p < .01$, *** $p < .001$

먼저 즉흥연주 중심 창작음악극 활동을 한 피험집단 내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전체)의 변화를 살펴보면 사전 43.47점에서 활동 후 10.87점이 감소한 32.60점으로 나타나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t=5.979$,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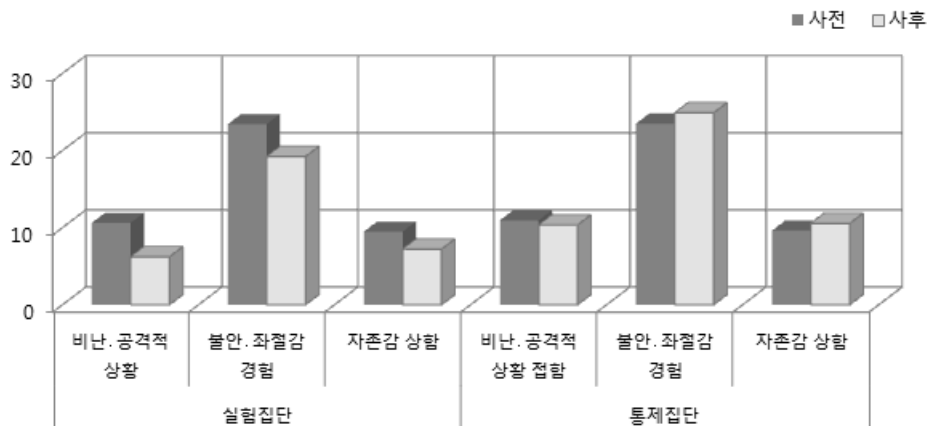
다음 하위 세 개 영역에서도 활동 전, 후로 뚜렷하게 스트레스가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그 중 비난·공격적 상황에서의 스트레스가 활동 후 4.40점 감소하여 검정통계량 $t=5.516$ ($p<.001$)으로 가장 크게 유의한 감소폭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불안·좌절감 경험에서 4.20점 감소하여 검정통계량 $t=4.747$ ($p<.001$), 자존감 상함에서 2.27점 감소하여 검정통계량 $t=3.407$ ($p<.01$)순으로 스트레스 수준이 유의하게 낮아진 것을 알 수 있다.

다음 통제집단 내 활동 전과 활동 후의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전체) 변화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활동 후 오히려 스트레스가 약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3.520$, $p<.01$).

〈표 7〉 통제집단 내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 변화

변인		사전	사후	평균차	t	p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	비난·공격적 상황 접함	M 10.93 SD 2.28	10.33 2.55	.60	1.260	.228
	불안·좌절감 경험	M 23.47 SD 4.14	24.87 3.54	-1.40	-1.782	.096
	자존감 상함	M 9.60 SD 2.59	10.53 2.45	-.93	-1.933	.074
	전체	M 44.00 SD 2.90	45.73 3.73	-1.73	-3.520**	.003

** $p < .01$



〈그림 1〉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 사전-사후 변화

또한 위의 결과를 바탕으로 두 집단의 사전·사후 변화량의 통계적 차이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두 집단의 활동 전후 변화량에 매우 뚜렷하게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8〉 두 집단 간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 변화량 차이

	변인	집단	N	M	SD	평균차	t	p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	비난·공격적 상황 접함	실험	15	-4.40	3.09	-3.80	-4.091***	.000
		통제	15	-.60	1.84			
	불안·좌절감 경험	실험	15	-4.20	3.43	-5.60	-4.733***	.000
		통제	15	1.40	3.04			
	자존감 상함	실험	15	-2.27	2.58	-3.20	-3.893**	.001
		통제	15	.93	1.87			
	전체	실험	15	-10.87	7.04	-12.60	-6.691***	.000
		통제	15	1.73	1.91			

** $p < .01$, *** $p < .001$

즉, 즉흥연주 중심 창작음악극 활동을 한 실험집단은 전체 10.87점 감소하였고, 통제집단은 1.73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두 집단의 변화량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 = -6.691, p < .001$).

이러한 결과를 통해 즉흥연주 중심 창작음악극 활동이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를 낮추는데 매우 긍정적 역할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3개의 하위 영역에서 모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실험집단 내에서는 상대적으로 비난·공격적 상황 접함에서 스트레스를 크게 낮추지만, 이를 통제집단과 비교했을 경우에는 불안·좌절감 경험에서의 스트레스에 가장 큰 유의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즉흥연주 중심 창작음악극 활동이 교육복지특별지원 대상 유아의 스트레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고자 하였다. 이것은 현대 사회의 양극화 현상으로 인해 초래되는 가족의 역할 부재로 사회·정서적 문제를 보이는 유아가 점점 증가하여 치료적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이다. 연구 대상으로는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 만 5세 유아 30명 중 15명의 실험집단에게 주 2회, 총 12회기의 즉흥연주 중심 창작음악극 활동을 실시하였다. 대상 유아의 스트레스 변화는 일상적 스트레스 척도 검사(KPDSS)를 실시하여 사전과 사후 점수 비교를 통해 결과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와 함께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본 연구에 참여한 유아는 일상적 스트레스가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즉흥연주 중심 창작음악극 활동의 특성과 관련하여 생각해 볼 수 있다. 유아에게 평소 가장 일상적으로 이뤄지고 친숙한 유치원 교육 활동 중 하나는 동화 듣기, 동화 구연, 동극 활동 등과 같은 동화와 관련된 수업이다. 이러한 친숙한 활동과 음악적 경험을 접목시킨 창작음악극은 유아의 흥미를 유발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일상적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데 효과적인 활동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유아들은 끊임없이 움직이면서 성장한다. 움직임은 유아들에게 의사소통의 수단이 되는 동시에 환경을 탐색하고 자신의 신체를 발견하는 방법이기도 한다(윤은영, 2004; 황순각, 2003). 본 활동에서 유아는 연구자가 제공하는 즉흥연주를 통해 동화의 장면을 상상하며 다양한 동작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이것은 끊임없는 움직임을 갖는 유아의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다양한 동작 표현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발산하게 된다. 유아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게 되고 나아가 정서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다.

둘째, 즉흥연주 중심 창작음악극 활동은 노래 부르기, 악기 연주, 즉흥연주를 중심으로 한 동작 활동으로 음악극을 만들어가는 과정 중심의 활동이다. 이러한 과정 중심의 창작음악극 활동은 사회·정서적 문제를 보이는 교육복지특별지원 대상 유아가 그룹원과 함께 상의하고 의견을 공유하는 과정을 경험하게 한다. 이를 통해 유아는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대처하는 능력이 촉진되어, 스트레스 상황을 대처하고 해결하는 것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연구자가 제공하는 즉흥연주를 통한 동작 표현은 유아의 창의성을 증진시킨다. 일반적으로 동극에서는 녹음된 음악이나 효과음을 사용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오르프 즉흥연주모델을 기반으로 하여 연구자가 즉흥연주를 제공함으로써 유아의 동작을 지지하고 강화하였다. 따라서 유아는 즉흥연주의 지지와 공감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자유롭고 다양하게 동작으로 표현하게 되었고, 스트레스를 느끼는 감정을 해소할 수 있음을 입증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즉흥연주 중심 창작음악극 활동이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와 스트레스 행동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여 유아의 스트레스를 감소하는 매체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유아 스트레스 감소를 위해 음악 활동을 실시한 선행 연구 중 김지연(2005), 장빛나, 김수지(2009), 김동은, 전인옥(2014)의 연구에서 스트레스가 감소된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이로써 본 연구에서도 음악을 적용한 선행 연구들과 마찬가지로 유아의 스트레스에 긍정적인 결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현재까지 음악치료와 유아의 스트레스, 또는 창작음악극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회·정서적 문제를 가진 유아의 스트레스 감소를 위한 즉흥연주 중심 창작 음악극 활동의 도입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에 의의를 두고 있다.

끝으로 본 연구는 만 5세 유아만 대상으로 즉흥연주 중심 창작음악극 활동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유아 스트레스가 감소한 결과를 보이며 연구의 효과성을 입증할 수 있었다. 대부분 유아 관련 연구는 만 5세 유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본 연구를 토대로 다른 연령의 유아에게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연령을 다양하게 선정하고, 참가하는 대상 연령에 맞게 활동을 고려하여 적용하여 폭넓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유아 스트레스는 일상생활에서 수시로 다뤄지는 문제이다. 결국 유아는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 상황이 반복되고, 이러한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유아가 속해 있는 교육기관 또는 가정에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끊임없는 관심을 보여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유아의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확인하는 것에 국한되지 않고, 유아교육현장에서 본 활동이 교육과정과 함께 적용되어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 권경아·문현상(2001). 놀이중심의 동작활동이 유아의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생활지도 연구, 21(1), 55-76.
- 김동은·전인옥(2014). 난타 음악활동이 유아의 스트레스와 자아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음악교육연구, 43(4), 57-75.
- 김명순·조정자(1998). 유아를 위한 음악 교육의 이론과 실제. 서울: 다음세대.
- 김주애(2014). 시설보호아동의 자기표현력 향상을 위한 음악극 창작하기 프로그램 사례연구. 명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지연(2005). 음악활동이 유아스트레스 감소에 미치는 영향. 한국음악치료학회지, 7(1), 19-34.
- 문금순(1993). 국민학교 어린이들이 느끼는 스트레스 수준과 자아개념과의 관계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선영(2008). 달크로즈 기법을 적용한 음악치료가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서울시교육청(2014). 2014 교육복지특별지원 유아지원사업 운영 매뉴얼. 서울특별시교육청 내부자료.
- 양진희·박윤(2007). 친사회적 동화를 활용한 주제극 활동이 유아의 사회적 적응 행동과 일상생활 스트레스 감소에 미치는 효과. 열린유아교육연구, 12(2), 349-374.
- 염현경(1998).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 척도의 개발을 위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11(1), 67-82.
- 윤은영(2008). 무용/동작치료 프로그램이 유아의 정서적 자기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유아체육학회지, 9(1), 27-39.
- 이혜원(2013). 다문화가정유아의 사회적 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연구. 한국유아교육·보육행정연구, 17(2), 216-234.
- 장빛나·김수지(2009). 타악기를 이용한 음악 활동이 유아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아동교육, 18(3), 213-226.
- 전인옥·이숙희(1997). 유아음악교육. 서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 정현주·김동민(2005). 아동들을 위한 음악치료 놀이극. 서울: 학지사.
- 조용태·이근매·이도균(2004). 구조화된 집단미술치료가 도시 저소득층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사회성에 미치는 효과. 한국특수교육학회, 6(2), 97-118.

- 조복희(1996). 아동발달. 서울: 교육과학사.
- 최유정(2008). 유리드믹스와 음악교육 프로그램이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와 유치원 적응에 미치는 영향. *종합예술과 음악학회지*, 2(1). 145-163.
- 황순각(2001). 유아 신체활동 프로그램의 구성 및 효과: 유아의 지각운동능력과 신체적 자아개념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Band, E. B. & Weisz, J. R.(1998). How to feel better, when it feel bad: Children's perspective on coping with everyday stress. *Developmental Psychology*, 27, 247-253.
- Bruscia. K. E.(1998). 음악치료의 즉흥연주 모델. 김군자(역), 오르프 즉흥연주(pp. 261-315). 서울: 양서원.
- Carl, Gunild, Keetman & Orff.(1977). *Music for children: Based on music for kinder*. New York: Schott Music Corp.
- Elkind, D.(1984). 스트레스 받는 우리 아이들. 이현순·심성경·원영미(공역). 서울: 창지사.
- Lazarus, R. S. & Folkman, S.(1984). *Stress, appraisal and coping*. Yew York: Springer Published Company.

〈부록 1〉 창작음악극에 사용된 주제가 악보 ‘어디로 갔을까 나의 한 쪽은’

어디로 갔을까 나의 한 쪽은

Score

양예슬 작사
양예슬 작곡

Song

Piano

5

Pno.

9

Pno.

13

Song

Pno.

A E/G# F#m E D A/C# Bm E A

A Bm A/C# A/E D A/C# Bm E

어 디 로 갔 을 까 나 의 한 쪽 은 어 디 로 갔 을 까 나 의 한 쪽 은

라 라 라 라 라 라 라 라 신 나 게 찾 아 보 자 나 의 - 한 쪽 을 찾 아 떠 - 나 자!

A E/G# F#m A/E D A/C# Bm E A

없 어 버 린 나 의 한 쪽 을 찾 으 러 나 신 다 나 의 한 쪽 을

〈Abstract〉

The Effects of Improvisation-Oriented Creative Music Drama Activities on Daily Stress of Pre-School Children supported by Special Education Welfare Priority Service

Yang, Yae Seul·Moon, So Young
Myongji University, Myongji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s of Improvisation-Oriented Creative Music Drama Activities on daily stress of pre-school children supported by special education welfare priority service. This legal support group is to target low-income groups, multicultural families, North Korea defectors, and families in crisis recommended by a teacher in charge. Those pre-school children often exhibit a problems in their relationships with peers due to environmental factors, such as the income level or family structure. As a result, they may become vulnerable to psychological stress. In order to reduce the pre-school children's daily stress, creative musical drama activity using instrumental improvisation was composed of singing, instrument playing, and improvisation provided by the music therapist.

The group participated in Improvisation-Oriented Creative Music Drama Activities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daily stress compared to control group($p<.000$). In detail, the results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situations of aggressive condemnation($p<.000$), fear, frustration experienced by anxiety($p<.000$) and bruised self-esteem($p<.000$). Additionally, the behavior analysis for experimental group showed that stress on themselves, stress from others and stress on objects were reduced gradually.

Results from the current study suggest that Improvisation-Oriented Creative Music Drama Activities can help pre-school children supported by special education welfare priority service to reduce daily stress. Future research suggestions and study limitations are provided.

Key words : music therapy, Improvisation-Oriented Creative Music Drama Activities, special education welfare priority service, daily stress of pre-school children

〈별첨 1〉

통합치료연구 연구 윤리 관련 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한국통합치료학회(이하 ‘학회’라 한다) 정관과 관련된 연구 활동의 윤리를 확립하고 연구 부정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을 검증하여 연구 활동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연구자의 정직성) ① 연구자는 본인이 수행하는 연구과정 전반에 걸쳐 모든 과정을 정직하게 수행해야 한다. 연구과정은 아이디어의 도출, 연구디자인의 설계, 연구 참여자에 대한 보호, 결과의 분석, 연구 참여자에 대한 공정한 보상 등이 포함된다.

- ② 연구자는 부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며, 표절, 사기, 조작, 위조 및 변조, 중복 게재 등을 심각한 범죄행위로 간주해야 한다.
- ③ 본 항의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경우 적절한 절차를 거쳐 학회에 보고해야 한다.
- ④ 연구자는 연구 수행 시 자신의 이익과 타인 또는 타기관과 이익이 상충하거나 상충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이를 공표해야 한다.

제3조 (연구자의 의무) ① 연구자는 연구의 제안, 과정, 및 결과보고 등의 연구전반에 걸친 활동을 정직하고 진실 되게 수행해야 한다.

- ② 연구자는 연구활동 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에 의한 판단에 따라 의견을 제시하고 토론 한다.
- ③ 연구자는 타인의 연구 활동에 관련된 모든 행위를 존중한다.

제4조 (연구 부정행위) 본 학회의 학회지는 다음과 같은 연구 부정행위가 있는 논문은 게재하지 않으며, 학회지 발간 이후 적발 시에는 학회 연구윤리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 ① 위조: 존재하지 않는 연구 결과물을 기록하고 보고하는 행위
- ② 변조: 연구결과물을 임의로 조작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 ③ 표절: 본인이나 타인의 연구내용이나 결과물을 원저자 승인 없이 인용, 또는 참조 없이 도용 하는 행위
- ④ 중복게재: 1) 연구자는 국내·외 타 학회와 학술대회에서 발표하였거나 발표 예정인 연구물을 본 학회의 학술대회에서 발표할 수 없다.
2) 연구자는 국내·외 타 학회와 학술대회에서 발표하였거나 발표 예정인 연구물을 본 학회의 학회지에 게재신청할 수 없다.

제5조 (연구 참여자 보호) 연구자는 각자의 연구 활동 과정에서 연구 참여자의 인권을 보호하며, 정신적, 신체적 위해가 가해지지 않도록 한다. 이를 위하여 연구자는 연구 시행 전 반드시 연구 참여자 또는 법적 대리인에게 연구 절차와 내용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며, 동의를 받는다.

제6조 (연구윤리위원회) ①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회 내에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학회장과 편집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장은 학회장이 당연직으로 하며, 위원은 상임이사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 ④ 위원이 심의대상자아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당 심의 건에 대한 위원자격을 상실한다.
-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⑥ 위원 중 결원이 생길 때에는 후임위원을 위촉하여 그 임기를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7조(연구윤리심의규정) 윤리위원회는 아래의 사항들을 심의하고 결정하며, 그 사항들은 아래와 같다.

- ① 본 학회의 연구윤리규정 심의
- ② 본 학회의 연구윤리 위반 행위에 대한 사항 심의
- ③ 연구의 진실성 검증, 검증 결과처리와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 ④ 제보자 보호 및 비밀 유지와 심의대상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
- ⑤ 기타 연구윤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된 사항

제8조(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처리) ① 학회와 관련된 연구 부정행위가 발생한 경우 위원회는 적절한 조사와 처리를 하여야 한다.

-
- ②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와 결과는 학회에 보고되어야 하며, 그 기록은 처리가 종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5년간 학회에 보관한다.
 -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연구 부정행위 심의 대상자를 출석시켜 자신을 보호하고 반론을 제기 할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 ④ 조사 결과 연구 부정행위가 확정될 경우, 다음과 같은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다.
 - 1) 해당 연구 결과물에 대한 취소 또는 수정 요구
 - 2) 해당 연구자의 논문 투고 3년간 금지
 - 3) 해당 연구과제의 관련자 교체
 - 4) 적정 기간 회원자격 상실
 - 5) 제명
 - 6) 법률기관에의 고발 등조사 결과 부정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확정될 경우, 위원회는 심의대상자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다.

〈별첨 2〉

투고규정

가. 투고논문의 범위는 언어치료, 음악치료, 놀이치료 및 심리상담적 이론과 접근을 기반으로 한 통합적 시각의 연구 및 관련 주제를 다룬 국문 또는 영문논문으로서 투고 자격은 학회정회원으로 한다. 단, 논문 등의 성격상 필요한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의 결정으로 여타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다.

나. 투고논문 제출은 e-mail을 통해 파일을 전송한다. 원고작성 시 투고규정에서 정한 “논문 작성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다. 원고분량은 논문작성지침에 의거한 규격용지 기준 국문원고 15매, 영문원고 20매로 제한한다.

라. 논문의 저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제1저자를 저자표기 가장 앞부분에, 나머지 연결저자는 논문집필의 기여도에 따라 순서대로 표기한다.

마. 투고 시 원고 겉면에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주소, e-mail을 포함한 연락처를 명기하며, 제출된 논문은 반환하지 않는다.

바. 투고논문은 다른 간행물, 논문집 등에 발표되지 않은 창작물이어야 하며, 제출된 논문은 『통합치료연구』 편집위원회에서 정한 심사과정을 거쳐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게재불가판정 논문에 한해서는 일체의 심사내용을 통보하지 않는다.

사. 투고시 심사비 6만원, 게재 확정시 10만원(15쪽 기준)을 납부하며 15쪽(본 학술지의 편집기준)을 초과한 경우 인쇄쪽당 1만원씩 추가 납부한다.

아. 본 학술지 원고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논문은 접수가 불가하다.

<별첨 3>

논문 작성 요령

[통합치료연구] 투고 논문 작성 양식

1. 원고 작성 개요

가. 작성 도구: 한글 3.0 이상 프로그램으로 작성한다.

나. 논문원고 용지

(1) 용지 종류: 사용자 정의(190×260)

(2) 용지 여백: 위쪽 18, 아래쪽 20, 왼쪽 26, 오른쪽 26, 머리말 10, 꼬리말 10, 제본 0

다. 문단 모양 : 줄간격 170

라. 글자 모양

	글꼴	크기	장평	자간	문단정렬	비고
제목	신명조	18p	100	0	가운데	진하게
저자명	중고딕	10p	100	0	오른쪽	1줄 띄고
소속	신명조	9p	100	0	오른쪽	
요약	신명조	9p	95	-5	양쪽정렬	1줄 띄고 줄간격 140 좌우여백 :4
본문	신명조	11p	95	-5	양쪽정렬	
그림	중고딕	10p	95	-5	하단 가운데	출처 9p 중고딕 그 외 설명 9p 신명조
표	중고딕	10p	95	-5	왼쪽상단	출처 9p 중고딕 그 외 설명 9p 신명조
참고문헌 제목	견명조	14p	95	-5	가운데	
참고문헌 내용	신명조	9p	95	-5	양쪽정렬	
영문초록 제목	신명조	14p	95	-5	가운데	
영문초록 내용	신명조	9p	95	-5	양쪽정렬	
부록제목	중고딕	10p	95	-5	왼쪽	진하게
부록내용	신명조	10p	95	-5	양쪽정렬	

마. 제목의 번호 붙임

- 1단계: I. II. III. …………… (2줄 띄고, 14p, 견명조, 가운데)
- 2단계: 1. 2. 3. …………… (1줄 띄고 1칸에서 시작, 11p, 중고딕, 진하게)
- 3단계: 가. 나. 다. …………… (1줄 띄고 2칸에서 시작, 9.5p, 신명조, 진하게)
- 4단계: (1) (2) (3) …………… (1줄 띄고 4칸에서 시작, 9p, 중고딕)
- 5단계: ㄱ. ㄴ. ㄷ. …………… (4칸에서 시작, 9p, 신명조)
- 6단계: (ㄱ) (ㄴ) (ㄷ) …………… (4칸에서 시작, 9p, 신명조)

바. 들여쓰기

문단의 첫 문장은 3칸에서 시작, 문장과 문장 사이는 1칸으로 하고, 문단과 문단 사이는 1줄 띄지 않는다(“참고문헌”의 들여쓰기는 9칸에서 시작함).

사. 용어의 사용

- (1)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의미적 혼동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용어가 처음 나왔을 때 () 속에 원어나 한자를 쓴다.
- (2) 세 개 또는 그 이상의 관련성 있는 단어를 연속하여 나열하는 경우에는 마지막 단어 바로 앞에 심표 없이 “그리고”, “와(과)”, “및”, “혹은” 등을 삽입한다.

2. 인용 사항

본문에 인용문을 삽입하는 경우에는 단어 및 구두점 등의 모든 사항이 인용되는 원문과 일치되어야 하며, 그 인용부분의 길이에 따라 다음 규정을 지킨다.

가. 인용내용이 짧은(1-2행) 경우 예는 본문 속에 인용부호(“ ”)를 사용하여 기술하며, 인용내용의 끝에 인용출처(저자, 출판년도)를 밝힌다. 한 문장 내에서 내용을 축약하는 경우에는 반 칸을 띄운 후에 세 개의 공간점“…”을 사용한다.

예: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홍길동, 2003)

나. 인용내용이 긴(3행 이상) 경우 예는 본문에서 따로 떼어 기술한다. 이 경우에는, 인용 부분의 아래와 위를 본문에서 한 줄씩 띄고 좌우로 각각 3글자씩 들여 쓴다. 인용문의 출처는 “저자(출판년도)”를 먼저 밝히고 인용문을 적거나, 인용문 뒤에 “저자(출판년도)”를 표기한다.

예: 이승환(2005)은 언어병리학이 다학문적 학문이라는 것을 강조하며 다음과 같은 의견을 피력하였다. 특수교육학, 심리학, 컴퓨터공학 등의 전문인들과 협력해야 하고, 나아가 의학의 여러 분야의 전문인들과 팀을 구성해야 할 장애 유형도 많다. 그래서 상호 의뢰가 적극적으로 권장되어야 한다.

3. 각주(脚註, footnote)와 후주(後註, endnote)

가. 각주의 사용은 금한다.

나. 그 대신, 본문에 표시하기 어려운 보충적 내용이나 설명에 한하여 후주의 사용을 허용한다. 후주를 표시하는 위치는 본문 내 해당되는 곳에 반 괄호를 붙인 어깨 숫자로 일련번호를 표시하고, 그 내용은 본문의 가장 뒤, 참고문헌 바로 앞에 기술한다.

4. 본문 내의 인용문헌

가. 직접 인용의 경우: 인용부호(“ ”)를 달고 기술하며, 인용처(저자 및 발행년도)를 표기한다.

예 1: 김영옥(2003)에 의하면 “.....”

예 2: 한 선행연구에 의하면 “.....”(김영옥, 2003)

나. 간접 인용의 경우 : “저자”와 “출판년도”를 아래 예들과 같이 명기하되, 출판년도 표시의 괄호 앞 어절이 한글일 경우에는 괄호를 붙여 쓰고 (단, “참고문헌”에서는 반 칸을 띄어 쓴다), 영어인 경우에는 반 칸 띄고 쓴다.

예 1: 이 이론에 대하여 고도홍(2003)은.....

예 2: 이 이론에 대하여 Pinker(1975)는.....

예 3: 한 연구(고도홍, 1995)에 의하면.....

예 4: 최근의 연구(고도홍, 1995; Boone, 1990)에 의하면.....

다. 저자가 다수인 경우 :

(1) 저자가 3인 이상 5인까지일 경우, 최종 저자 앞에 “및” 또는 “와/과”로 표기한다. 또 같은 문헌이 반복 인용될 때에는 한국인인 제 1저자의 성과 이름 뒤에 “등/외”를 표기하고, 외국인은 제 1저자의 성 뒤에 et al.을 표기한다.

예: 김수진, 윤미선 및 김정미(2002)는... 첫 인용
김수진 등(2002)은... 반복 인용
Boone, Hodson & Paden(1995)은... 첫 인용
Boone et al.(1995)은... 반복인용

(2) 6인 이상이면 제1저자만 기재하고 “000 외”나 “0000 et al.”등으로 표시한다.

5. 참고문헌 작성법

가. 참고문헌은 논문의 말미에 한, 중, 일, 기타 동양, 서양 문헌 순으로 열거한다. 서양 문헌작성의 경우 여기에서 규정한 형식 이외의 것은 APA(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양식에 따른다.

나. 저자는 저자수와 관계없이 모두 표시한다. 영문 이름의 경우에는 성을 먼저 쓰고, 이름은 첫 글자만(예: Kim, H. K.) 표시한다.

다. 동일한 저자가 같은 해에 낸 다수의 논문을 참고했을 경우에는 출판년도 뒤에 영문 소문자를 써서 구별한다.

예: 2005a,

라. 단행본(연수회 교재, 발표회 교재 및 검사도구 포함)의 경우 :

(1) 국문: 저자 또는 편집자(출판년도). 책제목. 출판사 소재지: 출판사.

예 1: 이승환(2005). 유창성장애. 서울: 시그마프레스.

예 2: 심현섭, 신문자, 이은주(2004). 파라다이스-유창성검사

(Paradise-Fluency Assessment, P-FA). 서울: 파라다이스복지재단.

(2) 영문: 저자 또는 편집자(출판년도). 책제목(이탤릭체). 출판사 소재지: 출판사.

예: Van Riper, C. & Erickson, R. L.(1996). *Speech correction: An introduction to speech pathology and audiology*. Needham Heights, MA: A Simon & Schuster Co.

마. 단행본 속의 논문 또는 단원(chapter)의 경우 :

(1) 국문 : 저자(출판년도). 논문[단원]명. 편집자[기관]명(편). 단행본명. 발행지: 발행처.

예: 김영태(2000). 조음음운장애 치료를 위한 임상이론. 한국언어청각임상학회

(편). 말·언어임상 전문요원교육: 조음음운장애 및 실어증 치료기법의 임상적 적용. 서울: 한학문화.

- (2) 영문 : 위와 동일하나 출처인 단행본명을 이탤릭체로 표기
아래 예와 같이 단행본저자의 이름을 표기하되, 단행본 저자가 1명인 경우에는 “(Ed.)”로, 2명 이상인 경우에는 “(Eds.)”로 표기.

예: Beeson, P. & Hillis, A.(2001). *Comprehension and production of written words*. In R. Chapey(Ed.), *Language intervention strategies in aphasia and related neurogenic communication disorders*(4th ed.). Baltimore, MD: Lippincott Williams & Wilkins.

- (3) 단행본이 재판(再版)이상 : 단행본명 뒤의 ()안에 “3판” 혹은 “3rd ed.” 등으로 표기.

바. 정기간행물(학술지) 속의 논문의 경우 :

- (1) 국문 : 저자(출판년도). 논문명. 논문수록 학술지명, 권(호) 번호, 페이지.
예: 장빛나, 김수지(2009). 타악기를 이용한 음악 활동이 유아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아동교육*, 18(3), 213-226.
- (2) 영문 : 저자(출판년도). 논문제목. 논문수록 학술지명(이탤릭체), 권(호), 페이지.
예: Kim, S. J.(2010). Music therapy protocol development to enhance swallowing training for stroke patients with dysphagia. *Journal of Music Therapy*, 57(2), 102-119.

사. 학위논문의 경우

- (1) 국문 : 저자(출판년도). 논문제목. 학위명. 학위수여대학.
예: 김민정(2004). 아동용 한국어 조음검사의 개발. 연세대학교 대학원 언어 병리학 협동과정 박사학위논문.
- (2) 영문 : 저자(출판년도). 논문명(이탤릭체). 학위명, 학교명 및 학교소재지.
단, 석사논문은 “master's thesis”로, 박사논문은 “doctoral dissertation”으로 표기한다.
예: Sim, H. S.(1996). Kinematic analysis of syllable repetition and sound prolongation in children who stutter.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Iowa, Iowa City.

아. 번역서의 경우

(1) 원저자명(출판년도). 번역서명[원전의 제목을 알고 있는 경우에 표기]. (역자명).
번역서의 출판지: 번역서의 출판사명.

예 1: 정옥란(역)(1993). 음성과 음성치료. 대구: 배영출판사.

예 2: 이승복, 한기선(공역)(2000). 의사소통 과학과 장애: 과학에서 임상실습까지. 서울: 시그마프레스.

자. 연수회, 특강 또는 학술대회 자료의 경우

(1) 저자명(발표된 년도). 발표제목. 자료명. 발표장소.

예 1: 윤미선, 이봉원(2005). 한국어 어휘 특성에 따른 단어인식 검사에 대하여. 한국언어청각임상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전북대학교, 전주.

예 2: Pae, S. & Yoon, H. J.(2005). Reading miscue analysis of the Korean second graders. Proceedings of the American Speech-Language-Hearing Association(ASHA) annual conference. San Diego, CA.

차. 기관이 저자인 경우 :

(1) 국문 : 기관명을 저자로 명기(발행년도). 단행본명. 발행도시명: 기관명에 준하여 “동부”, “동 협회”, “동 학회” 등으로 표기.

예: 문화관광부(1999). 교과서의 어휘 분석연구 - 초등학교 교과서를 대상으로. 서울: 동부.

(2) 영문 : 단행본명을 이탤릭체로 표기. 발행처가 저자와 동일한 경우에는 발행 도시명: 을 적은 후에 “Author”라고 표기.

예: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2001). Publication Manual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5th ed.). Washington, DC: Author.

6. 표, 그림 및 부록

가. 표, 그림 및 부록에는 일련번호를 각각 붙이되, < >를 사용한다. 표와 그림은 본문 안에 삽입하고 부록은 참고문헌 뒤에 삽입한다.

예: <표 1>, <그림 1>

나. 표 및 부록의 제목은 상단 왼쪽에, 그림의 제목은 하단 중앙에 붙인다.

다. 표, 그림 및 부록을 다른 문헌에서 인용하였을 때, 표와 부록의 경우에는 하단 왼쪽에, 그림의 경우에는 하단 중앙 제목 밑에 출처를 명기한다.

라. 부호를 사용할 때의 글씨체 및 띄어쓰기는 다음과 같다.

- (1) p, F, t는 신명조체의 이탤릭체로 쓴다. 단, M, N, SD는 신명조체의 정자체로 한다.
- (2) 부호 사이는 반 칸 띄어 쓴다(예: $p < .001$, $F(1,129) = 2.71$, $t = 4.52$).
- (3) *는 윗 첨자의 형태로 통계표 안의 t값과 표 밑의 p값을 제시할 때 쓴다.
(예: *t, * $p < .05$)

마. 유의확률을 나타내는 p값은 표 하단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소수점 이하 3자리까지 기재한다. (예: $p = .003$)

7. 초록

가. 한글 논문의 경우

- (1) 한글초록: 10줄 이내의 한 문단으로 된 한글초록(연구목적, 방법, 결과 등 포함)을 별지에 작성하여 논문 맨 앞에 첨부한다.
- (2) 영문초록: 10줄 내외의 영문초록을 별지에 작성하여 논문 맨 뒤에 첨부한다.
- (3) 핵심어: 3-5개의 핵심어를 한글초록과 영문초록 밑에 쓴다.

나. 영문 논문의 경우

- (1) 영문초록: 10줄 이내의 한 문단으로 된 영문초록(연구목적, 방법, 결과 등 포함)을 별지에 작성하여 논문 맨 앞에 첨부한다.
- (2) 한글초록: 1쪽 이내의 한글초록(한글제목, 한글이름, 한글소속 포함)을 별지에 작성하여 논문 맨 뒤에 첨부한다.
- (3) Key Words: 3-5개의 핵심어를 영문초록과 한글초록 밑에 쓴다.

〈별첨 4〉

한국통합치료학회 회칙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학회는 한국통합치료학회(The Korean Society of Interdisciplinary Therapy)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학회는 음악, 언어, 놀이, 가족, 상담심리의 이론과 실재를 연구함으로써 한국 치료학의 발전 및 회원의 학문적 성장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제3조 (위치) 본 학회의 사무소는 당해 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사업) 본 학회의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학술연구 및 발표
2. 심리적, 신체적 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 및 연구 활동
3. 학술지 발간
4. 학회발전을 위한 교육
5. 국내외 학회와의 유대
6. 회원의 권익보호 및 친목
7. 기타 본 학회의 목적에 부합한 사업

제2장 회원

제5조 (회원의 자격) 본 학회의 회원은 상담심리, 놀이치료, 언어치료, 음악치료, 가족치료 또는 관련 학문을 전공하고 본 학회의 목적에 찬성하는 자로 한다.

제6조 (회원의 구분) 본 학회의 회원은 준회원, 정회원, 평생회원, 일반회원, 기관회원으로 구분한다.

1. 준회원은 5조에 관련된 전공의 학사학위 취득 후 관련 경력 1년 이상인 자 또는 관련 전공 석사과정 중인 자로 본 학회의 취지에 찬성하고 학회가 제시한 일정한 구비요건을 충족하며,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 하여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2. 정회원은 5조에 관련된 전공의 석사학위 소유자로서 본 학회의 취지에 찬성하고 학회가 제시한 일정한 구비요건을 충족하며,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 하여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3. 평생회원은 5조에 관련된 전공의 석사학위 취득 후 관련 경력 3년 이상인 자로서 본 학회의 취지에 찬성하고 학회가 제시한 일정한 구비요건을 충족하며,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 하여 자격관리 위원회의 심사와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4. 기관회원은 본 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기관으로서 정회원이 운영 재직하는 기관 및 치료전문기관으로서 본 회의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기관으로 한다.

제7조 (입회 절차) 본 학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입회 원서 제출과 함께 입회비를 납부하고 회장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8조 (회원의 권리)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1. 총회의 의결에 참여할 권리
2. 임원의 피선거권을 가질 권리
3. 학술대회에서 발표할 권리
4. 본 학회의 사업에 참여할 권리
5. 본 학회의 각종 출판물을 받을 권리
6. 기타 학회에서 인정한 권리

제9조 (회원의 의무) 회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총회 참석 및 회칙을 준수할 의무
2. 본 학회 활동에 성실히 참여할 의무
3. 본 학회에서 결의한 사항을 준수할 의무
4. 소정의 회비를 납부할 의무

제10조 (회원의 탈퇴) 본 학회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11조 (회원의 제명) 본 학회의 회원으로서 본 학회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명예,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함으로써 학회의 회장이 제명한다.

제12조 (회원의 자격 정지) 2년 이상(당해 연도 제외) 회비가 체납된 회원은 체납회비가 완납될 때까지 회원 자격 및 권리가 정지된다.

제3장 임 원

제13조 (임 원) 학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 1명
2. 부회장 : 1명
3. 총무 : 1명
4. 감사 : 2명
5. 학술위원장 : 1명
6. 학제 간 연구위원장 : 1명
7. 편집위원장 : 1명
8. 국제교류위원장 : 1명
9. 윤리위원장 : 1명
10. 홍보위원장 : 1명

제14조 (임원의 임기)

1. 각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기타 임원의 결원이 발생할 때는 운영위원회에서 후임자를 선출한다.
3.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5조 (임원의 선출)

1. 회장과 감사는 운영위원회의 추천과 심의를 거쳐 총회에서 무기명투표로 하여 출석 회원의 과반수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기타 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2. 임기 전의 임원의 해임은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다.

제16조 (임원의 직무)

1. 회장은 학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하고, 총회,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총무는 총회에서 위임한 업무를 관장하며 학회를 책임 운영한다.
4. 각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운영위원회에서 위임된 직무를 수행한다.

제17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학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운영위원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 1호 및 제 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총회에 보고하는 일

제4장 기 구

제18조 (기구의 종류) 학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구를 둔다.

1. 총 회
2. 운영위원회
3. 상임위원회

제19조 (총회)

1. 총회는 학회의 최고결기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 한다.
 - 1) 정관 개정에 관한 사항
 - 2)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 3) 사업계획 및 예·결산의 보고
 - 4) 규약 및 제 규정에서 총회의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
 - 5)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상정하는 주요안건
2. 총회는 그 기능의 일부를 총회 의결을 통하여 운영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20조 (운영위원회)

1. 운영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총무, 학술위원장, 학제 간 연구위원장, 편집위원장, 국제교류위원장, 윤리위원장, 홍보위원장으로 구성 한다.
2.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집행한다.
 - 1) 회장과 감사를 총회에 추천한다.
 - 2) 준회원, 정회원, 평생회원, 기관회원의 자격을 심사 및 승인한다.
 - 3) 각종 규정 및 지도감독을 한다.
 - 4) 중요사업을 계획, 심의한다.
 - 5) 정관의 개정을 총회에 건의한다.
 - 6) 본 학회의 운영을 총괄 조정한다.
 - 7) 기타 중요사항을 결정한다.
3. 감사는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없다.
4. 기타 운영위원회의 조직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5. 제 20조의 모든 사항은 출석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단, 위임장을 제출한 경우 정족수에 포함한다.

제21조 (상임위원회)

1. 편집위원회
 - 1) 구성 : 위원장, 위원 약간 명
 - 2) 임무 : 학술지 발간 및 학술발표, 세미나 등 주관 및 교육
2. 국제교류위원회
 - 1) 구성 : 위원장, 위원 약간 명
 - 2) 임무 : 국제 교류 및 협력 주관 및 관리
3. 학제 간 연구 위원회
 - 1) 구성 : 위원장, 위원 약간 명
 - 2) 임무 : 음악, 언어, 놀이, 가족, 상담심리 등의 다양한 치료분야간의 통합치료모델 연구
4. 홍보위원회
 - 1) 구성 : 위원장, 위원 약간 명
 - 2) 임무 : 대외협력 및 홍보

5. 학술위원회

- 1) 구성 : 위원장, 위원 약간 명
- 2) 임무 : 학술발표, 세미나, 교육특강 등 주관 및 교육

제5장 회 의

제22조 (총회)

1. 총회는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갖고,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2. 총회에서 투표권은 정회원, 평생회원에게 있다.

제23조 (총회의 의결정족수)

1. 총회는 정회원, 평생회원의 재적 회원 3분의 1 이상 출석으로 개최한다.
※ 단, 위임장을 제출한 경우 정족수에 포함한다.
2. 총회의 의사는 출석 정회원, 평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24조 (총회의 특례)

1. 회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 운영위원회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2)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소집이 불가능할 때는 운영위원회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25조 (총회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회원자신과 학회와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6장 재 정

제26조 (재정)

1. 본 학회의 재정은 회비, 학회운영 수익, 및 기타 찬조비 등으로 충당한다.
2. 회원 자격별 회비(입회비, 연회비, 및 평생회비 등)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3. 본 학회 회원으로서 2년 이상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의 자격은 회비 납부시 까지 정지되며, 미납회비(당해 연도를 포함한 3년분 미납 연회비)의 납부와 동시에 회원 자격이 회복된다.
4. 평생회비를 납부한 회원은 연회비가 면제된다.
5. 본 학회 재정의 모든 입출금은 본 학회가 보유한 은행 계좌를 통해 이루어진다.

제27조 (회계년도) 학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1. 본 정관은 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본 정관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른다.
2. 본 정관은 2015년 3월 23일부로 시행한다.

편집위원회

편집위원장 : 최광현(한세대학교)
편집위원 : 김은연(명지대학교)
박정환(제주대학교)
박춘성(상지영서대학교)
서근원(대구카톨릭대학교)
손보영(선문대학교)
이상진(평택대학교)
최예린(명지대학교)
Dr. Felicity Baker(The University of Melbourne)

통합치료연구 제7권 제1호

2015년 8월 31일 인쇄
2015년 8월 31일 발행

발행인 : 선우현 (한국통합치료학회장)
(우) 120-728
서울시 서대문구 남가좌동 50-3
명지대학교 경상관 4716호
Tel: 02-300-0881 / E-mail: anita0610@naver.com

인쇄처 : 동 문 사

이 학회지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한국통합치료학회의 사전 서면 허락없이 복제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